

연구보고서 2018-08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정여진·고지영·문순덕·현혜경·기계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 정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문순덕(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현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계형(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연구지원 홍성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기간 2018년 3월 ~ 12월

과제 유형 : 기본 과제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여성이 역사에서 소외되어 그 실상이 왜곡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역사도 오랜 동안의 중앙 중심의 역사발전 속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기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젠더와 지역의 결합인 지역여성이라는 주제는 지역여성이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는 중앙-지방, 남성-여성이라는 이중의 배제와 소외 속에서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긴급하고 가시적인 연구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지역은 해녀, 다양한 여성 관련 신화 및 설화, 민담 등 타지역과 구별되는 풍부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 도정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여성사 연구분야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의 연구 성과, 연구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여성사회 및 생활, 문화 등 부분적인 연구는 실제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여성이 주요 테마가 되는 통합적인 연구는 미진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된 제주 여성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근거로 제주여성에 관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연구지형 이해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주 여성관련 연구물을 시대별, 영역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근거로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를 맡아주신 문순덕 박사님, 현혜경 박사님, 기계형 박사님 그리고 연구자문과 전문가 FGI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 책임을 맡은 정여진 박사와 공동연구를 맡은 고지영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보고서가 제주지역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제주여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1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지역여성 연구는 대체로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및 2000년대 지역 여성정책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음(하정화, 2012). 그러나 전문 연구자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연구 실적에서의 차이가 있음.
- 제주지역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지원에 의해 시작되었고, 타지역에 비해 제주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의 연구 성과, 연구지원 체계 등 연구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 제주여성사 관련 연구물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연구 성장 동력이 멈춘 것으로 보임. 제주의 여성사회 및 생활, 문화 등 부분적인 연구는 실제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어 있으나, 제주 여성이 주요 테마가 되는 통합적인 연구는 미진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빚고 있음(이문교, 김은석, 김동진, 이은주, 한림화, 양덕순, 정승훈, 2003). 이에 그간 연구된 제주 여성 관련 연구성과물을 집약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제주여성에 관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연구지형을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공백기를 겪고 있는 제주 여성연구를 다시 활성화하고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그간에 연구되어진 여성연구물을 시대별·영역별로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근거로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제주 여성 관련 연구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논의
- 국내·외 여성연구 현황 검토
- 제주 여성에 관한 연구물 분석을 통한 여성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 진단
- 여성사, 여성문화, 문학, 해녀, 제주4·3, 다문화, 여성정책 등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나. 연구 범위

- 제주 여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물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화사 형성에 관여하여 파생된 문화적 요인이 있어야 하고, 여성들이 사회제도 변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제주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제주 여성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논의 범위로 정하였으며, 제주 여성을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석사·박사), 학술논문, 단행본(연구보고서 포함)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약 70년간(해방 후 ~ 2018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

다.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제주(제주도,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여성사, 여성문화, 가족제도, 정치, 경제/직업, 복지/사회제도, 해녀, 4·3, 다문화, 민요, 제주방언(여성어), 문학, 설화(신화, 전설), 인물(김만덕,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홍운애 등)}’ 등을 키워드로 실시함.
- 검색된 자료들은 해방 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들로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여성사(인물), 여성문화(여성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룬 경우, 여성문화유적 등), 여성문화사(정치, 경제, 직업, 교육, 가족제도, 언어, 사회제도, 생활문화), 해녀, 제주 4·3, 다문화(국내·외 이주), 문학(현대문학, 구비문학), 여성정책 등임.

2)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 제주도내·외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진행함. 전문 분야는 여성, 역사, 문화, 예술, 인권,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함. 주요 면접 내용은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여성연구 접근 및 연구 방법, 향후 연구가 필요한 여성연구 주제,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방법,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또는 추진체계 조성 등임.

제2장 국내·외 여성연구 동향

1.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가. 여성연구의 의미

- 학문으로서 여성연구는 1960년대 후반 서구의 페미니즘운동 '제2의 물결'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시민권리 운동, 뉴레프트 운동(the New Left), 평화 운동(특히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68운동을 위시한 1960년대 서구의 학생운동 등과 깊은 관련을 지님.
- 여성들은 자신이 여전히 이등시민 혹은 이등국민으로 취급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집단으로서 여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연구하기 시작함. 그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사, 여성문학, 그리고 여성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에 착수하게 되었고, 고조된 분위기는 곧이어 대학의 강의실로 옮겨가,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대학들에 수백 개의 여성연구 코스가 나타나게 됨.
 - 공식적으로는 1970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여성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역사, 문학, 문화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여성연구'로서 대학의 커리큘럼 안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처음에 여성연구는 female studies로 쓰이다가 곧이어 women's studies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여성연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이를 일컫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짐.
 - '그것은 '여성의 연구인가? 아니면 '여성에 의한 연구인가? '여성의 연구, 또한 여성에

1) 여성연구는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젠더연구', '여성과 젠더연구', '페미니스트연구'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

관한 연구라면, 그 여성의 범주에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는 포함되는가? 남성에 의해 여성연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임.

- 1980년대에 이르면 서구의,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연구라는 지배적 경향성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 속에서 서구 이외 지역의, 인종적으로 백인여성이 아닌 여성들의 여성연구가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생겨남.
- '세계 각지에 자리 잡은 여성연구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그 연구대상에 여성 문화, 여성정책, 여성운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여성연구의 공통점은 여성을 사고와 분석의 중심에 둔다는 점,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한 '여성 자신'의 평가가 설명과 분석의 출발점이라는 점,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발전을 겪었던지 간에 여성의 종속이 공통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에서 공통점이 있음.
- '여성연구에서 성(sex)이 아니라 젠더(gender) 개념이 중요한 분석범주로 사용되고 있음도 공통점으로 지적할 만함.

나. 여성연구의 가치

- 국내·외 여성연구의 동향과 여성연구의 가치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여성사 분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 여성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 구명을 시도하는 연구이며, 역사가들의 여성사 서술은 과거를 바라보는 행위이자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임(정현백, 2014). 여성사에 내재하는 문제의식은 기록된 역사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과 기여를 최소화하거나 경시한다는 점에 있음.
- 페미니즘 '제2차 물결'에 의해, 사회사 연구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들이 여성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여성으로서 경험한 억압과 불평등을 논의하고 분석하여 자신들의 시대에 앞섰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게 됨.)
- 여성들은 역사적 서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며, 설사 언급되는 경우라도

2) 그들은 출간된 연구들 가운데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역사는 주로 남성에 의해 쓰여졌고, 주로 전쟁, 정치, 외교, 행정 분야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의 활동이 기록되었음을 알게 됨.

아내, 어머니, 딸, 애인 등과 같은 여성의 전형성 속에서 그 묘사가 이루어졌음.

- 처음에 여성사 연구의 목표는 ‘여성이 보이게 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며, 여성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분명했으나(최재인, 2014),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나게 됨.
- ‘1986년에 조안 스콧(Joan Scott)이 여성사 발전을 위해 젠더를 중요한 분석의 도구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여성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역사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짐.
- 여성의 삶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작업임. 가정, 소비, 섹슈얼리티, 출산 등 그전까지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주제들이 역사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각종 통계와 주요 자료 항목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음(최재인, 2014).
- 이는 여성들을 역사 서술에 끼워 넣는 ‘보충사’를 넘어서며, 여성위인의 역사적 역할을 드러내되 그들을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여성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헌사’를 넘어서야 함을 보여줌.

2. 국외 여성연구 동향

가. 미국

- 미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³⁾는 1960년대 여성운동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 여성사 수업이 미국대학들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되는 배경 위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음. 현재까지도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는 페미니즘과 긴밀한 관련을 유지해 오고 있음.
- 미국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는 1970년대 이후 방대한 연구 성과물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대에 걸쳐있음. 최근 경향에 대해서는 다소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으나, 요약하자면 글로벌 히스토리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인종, 계급 및 섹슈얼리티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운동이 미국사회를 변화시키던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여성사는 역사학 내에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시민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페미니즘 운동에서

3) 여성사가 여성인물, 여성 관련 역사적 사건, 여성간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젠더사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간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역사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다룸.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인종과 계급의 차이가 빈번하게 논의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연구함.

- 거다 러너, 앤 스코트(Anne Firor Scott, 1970), 토마스 더블린(Thomas Dublin, 1979)은 여성의 삶에서 인종, 지역, 계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였고, 샤론 할리(Sharon Harley, 1978)와 로잘린 터보르그-펜(Rosalyn Terborg-Penn, 1978)은 흑인여성들의 역사적 경험들을 조명함. 린다 고든(Linda Gordon, 1976)과 재클린 다우드 홀(1979)은 여성의 경험 형성에서 섹슈얼리티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 중에 계급과 인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였음.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종에 대한 관심 속에서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아메리카 인디언 여성,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이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남. 동시에 젠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조안 스콧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논문 “젠더: 역사 분석의 유용한 범주”에서 어떻게 젠더담론이 모든 종류의 권력 관계와 정치투쟁을 만들어냈는지 해명하였음(1986; 1999; 2008).
- 역사가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젠더화 된 존재로 탐구하고 남성성을 보다 완벽하게 연구하기 시작함. 흑인, 라틴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 게이 및 레즈비언 역사, 노동자 계급의 역사는 연구자들이 백인, 이성에 규범 및 중산층을 이해하기 위해 인종, 젠더 및 계급의 범주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
- 몇몇 여성사가들은 젠더사가 여성사를 따라잡을 것이며 여성 삶의 자료화 및 여성들의 조직노력을 발굴하는 과제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젠더연구가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됨. 오늘날 학자들은 젠더를 연구하지 않고 여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최근에는 21세기 페미니즘의 변화상이 여성사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음. 여성노동, 젠더 정치, 문화적 재현, 몸,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연구들과 아울러 세부적으로 인종, 계급 및 섹슈얼리티 연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일관되게 연구 폭의 확대, 학문간 통섭, 혁신을 장려하고 있음. 더불어 여성사가들은 웹상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트린 스클라와 토마스 더블린은 웹사이트인 ‘미국의 여성과 사회운동’을 운영하고 있음.

나. 영국

- 영국 여성사는 1980년대 들어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젠더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속에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성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 및 여성사 연구 흐름과 공조하는 측면이 강함.
- 영국은 19세기 말 페미니즘운동 '제1차 물결'의 주된 중심지였으므로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팡크허스트, 에밀리 데이비슨 등에 의해 영국 참정권 운동, 참정권 운동가들, 부르주아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기할 만함. 특히 올해 2018년은 영국의 참정권획득 100주년이라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음.
- 현재 영국 여성사 연구는 다양성이 화두이며, 이에 따라 여성의 전통적 성별에 따른 역할로서 여성의 출산 및 모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비롯해 성폭력, 동성애, LGBT 집단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다. 프랑스

- 프랑스 여성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박효근, 2014), 대학에서 젠더연구와 같은 과목이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역사학계에서는 여성사가 특정 사회운동, 즉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극히 편향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보수적 학문풍토가 있어 왔음.
- 프랑스 여성사 연구방법론은 영미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프랑스 역사 학계에서는 젠더이론, '언어적 전환' 퀴어이론 등의 이론을 여성사 연구에 접목시키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임.
- 프랑스 여성사는 여성의 역할과 문화를 유별나거나 특화된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일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방식, 상호갈등이 생기는 접점, 양자간 공통점과 상호의존이 발생하는 방식을 발견하려는 방식으로 연구의 주류를 형성함.
- 프랑스 여성사의 경우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은 영미권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여성사가 학문적 계토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억압상을 복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과 남성이 관계 맺었던 다양한 측면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

- 프랑수아제트의 실증적, 사료중심적 연구의 흐름은 여성사학자들이 여성사의 시대별 핵심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미권 연구자들이 도입한 젠더사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라. 독일

- 독일의 여성사는 1980년대에 상당한 연구축적이 일어났으며, 미국 여성사의 자극을 받아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전환을 시도함. 미국에서 1980년대에 진행된 젠더사로의 전환이 독일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면 제도화작업이 제한적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사 연구의 호황이 중단되면서 여성사의 위기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독일의 여성사 및 젠더사는 1980년대에 활성화 되었고, 1990년 이후 ‘여성젠더역사연구모임’이 발족되면서 여성사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공조의 분위기가 고조됨. 이 조직은 2007년에는 협회로 발전하여 독일에서 젠더사 연구의 안정성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사학계 전체로 보면 독일 젠더사는 담론의 역사, 남성사의 연구성과들, 그리고 초기근대사의 사회적 변화와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축적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독일 현대사 부분에서는 인정받을 정도로 질적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독일의 지배적인 거대 서사를 젠더사의 관점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미진하며, 이것이 독일 여성사 및 젠더사의 향후 과제임. 페미니즘 약화와 여성학의 약화는 독일 여성사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현상임.
- 연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독일 여성사학계의 특징은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을 둘러싼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 또한 독일 자체의 사례에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여성사의 이론화 주제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쟁점을 만들어나가는 점에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보임.
- 현재는 젠더사를 보편사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을 여성사학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추세임.

3. 국내 여성연구 동향

- 서울의 경우, 모든 부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역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서울여성사의 주요 흐름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실 여성들, 그리고 식민강점기에 전 지역에서 몰려들어 항일투쟁이나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든 신여성들, 즉 엘리트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경기지역의 여성사는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가 단연 많음. 경기도 여성 인물에 대한 첫 연구로서 김미란은 『충명이 무딘 붓끝만 못하니』(1992)에서 훌륭한 어머니를 비롯해 학자, 문인, 사회봉사자, 시인 등 활달한 삶을 살아낸 여성 25명을 발굴 소개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도에는 ‘경기여성인물을 찾아서’ 시리즈가 두 권으로 출간되기도 하였음. 경기도 여성 인물 중 연구가 활발한 인물은 이사주당, 강정일당, 나혜석, 최용신, 차미리사 등이며,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여성 지식인들의 학문성취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2007)에서 이사주당, 이빙허각, 강정일당이 연구되었음.
-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1996년 지역여성사의 가치를 가장 먼저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로 연결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이 지역에서는 대학이나 정부교육기관의 공백을 한동안 ‘강원도민일보’라는 신문사와 강원여성연구소가 메꾸었음.
 - ‘강원도는 1997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신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엘리트여성들의 조명작업에 집중되었으며 전체 강원여성의 일반적 삶과 유리되는 경향이 있었음. 최근에는 근현대 강원여성의 역사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지는 중임.
- 충청지역의 경우, 연구자들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현실과 맞닥뜨린 여성의 삶에 주목해왔는데, 조선시대의 여류문장가 이사주당, 강정일당, 김호연재를 비롯해, 유관순, 신순호, 박자혜 등 항일투쟁에 참가한 영웅적 여성들을 조명함.
- 전라지역 여성사 연구는 여성문인, 예술인, 가정경영의 생활인, 독립운동가, 교육인, 종교인, 복지봉사, 고전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속 여성인물 연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음. 주요하게 연구된 여성문인들로는 순창의 설씨부인, 부안의 이매창, 진안의 김삼의당, 담양의 덕봉 송종개, 해남 녹우당의 광주이씨 등을 꼽을 수 있음. 근현대 여성사 연구로는 전남 『광주 전남여성 100년사』(2012), 전북은 『전북여성 100년사』(2013)를 각각 발간했음. 그러나 여성사 발간작업에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통사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대구·경북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타지에 둘러싸인 지형적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전 통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비교적 풍부하게 보존되었음. 고대사 연구가 월등히 많아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 연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임.
 - 대구·경북지역 여성인물의 경우, 신문자료, 심화 인터뷰에 기초하는 구술 생애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전통과 현대의 격차 또는 지속성을 해명하기 위해 중부의 삶 그리

고 종가문화 연구와 종가포럼을 개최하기도 함. 아울러 여성인물 선양작업의 일환으로 매년 인물이 선정되고 선덕왕, 장계향, 최송설당, 남자현 등을 새롭게 이해하는 작업도 진행 중임.

- 부산·경남의 경우, 고중세사 연구자는 매우 드물고 주로 근현대 연구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부산·경남지역의 여성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개 속에서 시작되었음. 부산지역은 섬유, 피혁, 신발산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임.
- '1987년 6.10항쟁은 지역 여성 노동운동에도 전환의 계기였던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들은 다양한 여성인물의 발굴을 이끌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임.

제3장 제주 여성연구 현황

1.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개요

- 제주 여성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대별 현황과 공공 영역에서 수행된 여성정책 연구 현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함.
- 시대별 연구 현황은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해녀, 제주4·3, 다문화, 문학, 민간영역에서 연구된 여성정책 등을 분석 범위로 하여 시대와 주제에 따라 추진 실적을 분석함. 이에 따라 여성연구 현황분석에서는 해방 후~1960년대 4편, 1970년대 7편, 1980년대 11편, 1990년대 45편, 2000년대 99편, 2010년대 154편 등 총 320편의 여성연구물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 됨(<부록 1> 참조).
- 공공 영역에서 수행된 여성정책 연구 현황은 제주도 직속 기구이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여성정책 연구물을 대상으로 함(<부록 2> 참조).

2. 제주 여성연구 시대별 현황 분석

가. 해방 후 ~ 1960년대

- 해방 후 1960년대까지의 제주 여성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가 거의 없거나 별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성연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

- 해방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본 학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인류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일본학자들이 제주도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연구를 다루는 형태로 나타남. 제주여성에 대한 국내연구 역시,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둔 민속학 등에서 먼저 연구가 일어났으며 주요 주제로는 해녀와 전통혼례 등이 있음.

나. 1970년대

- 제주 여성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60년대의 분위기가 연장된 혼인 연구가 상당부분 이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제주여성들의 전통적인 혼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첩 제도에 대한 고찰 연구도 이루어짐. 1970년대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되었던 것과 맞물려 미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하나의 연구 유행이 되기도 함.
-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 해녀는 수산업의 구성원이자, 관광자원으로 대상화되기 시작함. 해녀 연구에서 1세대라고 불리는 언론인 강대원은 1960년대부터 해녀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벌여 왔으며 1970년 『해녀연구(한진문화사)』 등을 발간하였음. 바깥물질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력이 뛰어난 제주 해녀에 대한 고의적 편차가 공공연해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는) 조혜정의 잠녀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작으로, 학문분야에서 ‘잠녀학’, ‘해녀학’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함.

다. 1980년대

- 1980년대 제주 여성연구는 1970년대에 비해 분야를 다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여성문화사 연구를 비롯하여 해녀 연구, 문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나타남.
 - 여성문화사 연구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들의 신체와 출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의복과 여성의 역할 및 규범에 대한 연구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해녀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 전통을 잇는 한편 학제적 연구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됨. 그 밖에도 융복합적 입장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해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나타나기 시작함.
 - ‘문학 분야에서의 여성연구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여성과 관련한 민요, 무속과 같은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라. 1990년대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주지역의 여성연구는 뚜렷하게 분화되기 시작함.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한국사회의 민주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의해 여성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해짐. 이 시기 제주 여성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 관심과 더불어 제주 4·3, 해녀, 무속 등으로 그 관심이 이동·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1990년대 말에 접어들어 여성사 연구는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이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는 형태로 나타남. 더불어 제주 여성문화사에 대한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 제주 여성들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는 여성들의 정치활동 및 경제활동, 가족, 출산, 건강, 복지, 직업, 여성노인, 의식 및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짐.
- '해녀 연구에서는 융복합 연구가 제안되고, 젠더적 관점이 연구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제주 4·3과 관련하여 전쟁의 경험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 동원되었으며 제주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음.
- 전체적으로 1990년대는 제주 여성연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시작되어, 젠더적 관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러 주제들로 확산되는 시발점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동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구술생애사적 접근들이 이 시기 여성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에 해당함.

마. 2000년대

-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물 총 99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문학(구비문학 중심) 등의 연구 실적이 많은 편임. 이 외에도 제주 해녀 문화를 대표하는 해녀 연구, 제주현대사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 제주4·3연구, 외국인의 이주가 빈번해지면서 형성된 다문화 분야 등이 연구되었음.
- '제주의 전근대시기와 근대시기 여성사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여성사료집 I』(2007)과 『제주여성사료집 II』(2008a)가 발간되었으며 제주 여성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편의 생애사 관련 단행본이 발간되기도 하였음. 여성문화 영역에서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여

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이 주를 이룸.

- '이 시기 해녀 연구의 주요 주제는 해녀의 경제활동, 출가해녀의 다양한 활동, 해녀투쟁의 역사, 해녀들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해녀들의 생활사 등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제별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 연구 주제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음. 그 외 주제들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더디게 연구되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제주 여성연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양성은 물론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2010년대

-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도 특정 주제가 몰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집중한 결과로 보임.
- '여성사 연구는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인물' 중심의 연구로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대표 인물로는 김만덕, 최정숙 등이 있음. 여성문화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등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직업, 사회참여 현상, 사회복지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이 시기 해녀 연구의 주요 주제는 국가 출가해녀들의 물질 방식과 작업 환경, 고령해녀의 질병, 제주 해녀들의 독도와 일본 출가의 역사, 해녀들과 관련 있는 어휘, 해녀들의 공동체문화, 제주해녀문화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해녀들의 노동공간의 축소 및 훼손 현상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지난 1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등 제주도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연구가 추진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제주도의 연구 성과, 연구지원 체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
- 그러나 여성연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여성연구는 침체기를 겪고 있음.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연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3. 제주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가. 공공 영역 여성정책 관련기관의 변천

-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 공기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 <제주도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여성문제 상담과 함께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1997년에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되면서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여성의 평생교육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신행철, 2004).
- 2000년에는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기관인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발족됨.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조정 기구로서, 임기 2년제로 제 1기(2000~2011년)부터 제 8기(2014~2016년)까지 구성·운영되었음.
- 2001년에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읍·면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격상되어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지니게 됨.
- 2005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직속으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위탁받은 주요 업무는 제주지역 여성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연구 개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단체의 여성 관련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양성평등지표 개발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제주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 관련 연구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임.
 - 특히 2007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공무원 대상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지원 등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을 지원함(정영태, 강창민, 강경숙, 2010).
- 제주지역 관련 기관들 간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중복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로 흡수되고 연구기능은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이관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

발원 여성능력개발부>의 교육기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이관되었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과 '공연장'을 보유하는 등 문화기능을 추가하였음.

- 2014년에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는 폐소되었음.

나.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제주지역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정책 제안들이 제기되면서 연구기관의 역할이 부각됨.
- 2006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내 기획조사부에는 여성문화조사연구팀, 여성권익증진정책팀, 출산장려정책팀, 고령사회대책팀 등이 있었으며, 연구기능이 종료된 2009년 2월까지 25권의 여성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영역은 2건, 노동·일자리 영역은 9건, 돌봄·가족·복지·아동청소년은 14건으로 추진되었으나, 안전·폭력 영역에서는 연구가 되지 않음.

2) 제주발전연구원⁴⁾ 여성정책연구센터

- 제주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주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여성정책 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내 설치되었음.
- 제주지역 여성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기능을 하였으며, 개소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0권의 여성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영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여성의 지위·대표성 영역이 9건, 가족·복지·다문화 영역이 7건으로 나타남. 특히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이때부터 성주류화 영역 연구 및 사업이 제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4) 2017.5.1부로 제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13. 9)를 근거로 2014년에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됨.
- 정책연구실, 성인지정책센터, 경영지원실의 2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지정책센터 내에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5~현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현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개원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성주류화 정책 기반 강화, 제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일·가정 양립, 노동·일자리, 안전·폭력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사업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성주류화, 여성의 지위·대표성, 노동·일자리, 가족/복지, 돌봄, 안전·폭력, 지역 여성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2014년 8건에서 2018년 현재 16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음.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연구가 전체의 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안전·폭력 분야와 지역 여성 역사 분야는 각각 6.5%와 4.8%로 낮은 편임.

4.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와 과제

가.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1)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재인식 기회 제공

- 제주 여성연구 70년을 종합적 접근을 통해 주제별·시기별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 집약된 시기 등을 확인하게 되었음. 여성연구의 주요 주제는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해녀, 제주4·3, 다문화, 문학, 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나 시기에 따라 특정 주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 연구 결과물이 많은 주제를 보면 연구자들 입장에서 자료 이용이 쉽고, 경험자들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음. 더불어 여성사 연구인 경우 전근대 시기의 사료와 자료의 빈약함 때문에 폭넓은 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편임.

-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 여성연구의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향후 연구 범위를 알려주는 등 연구 결과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2) 여성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확대

-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도입 및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1980년대), 90년대의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과 맞물려 지방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제주 여성에 대한 '젠더적' 관점들과 관련한 연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함.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주 지역 여성연구는 2000년을 분기점으로 여성연구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서 이 기간이 지속되지 못하고 쇠퇴기로 접어드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성연구 전성기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여성연구의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을 새로이 생각하는 계기가 됨.

3) 연구자의 역할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확인

- 여성연구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이전과 이후 연구 환경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정기구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자의 열정, 연구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등 조직, 인력, 예산의 안정성과 연관이 있음.
- 현재 제주 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내 여성학 관련 학과의 부재, 연구진 및 연구 집단의 부재, 연구를 위한 물적 토대의 빈약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나. 제주 여성연구의 향후 과제

1)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접근방법 수립

- 기존 여성연구물들에 대해서는 젠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여성 연구들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에 기대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연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와 동시에 제주 여성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젠더적 시각을 반영한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을 정립해야 함. 그런 점에서 기초연구부터 중장기연구까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여성연구 및 지방의 여성연구와 연동하여 통합적·종합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제주 여성연구 분야의 확장

- 제주 여성연구는 주로 여성사 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여성의 문화와 삶을 살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사를 구성하는 제요소를 발굴하고, 영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함.

3) 여성연구 자료 구축 및 활용 방안 기회 제공

- 역사적으로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는 기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모아 구술사 및 구술생애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자료 구축의 가치를 인식하고, 분야별로 아카이빙화 하고 있음. 이는 제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함. 향후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 구축 계획을 단기,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 자료의 콘텐츠화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홍보 전략이 필요함.
- 또한 구축된 제주 여성 관련 자료들을 전문가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향유 및 활용방안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함.

4)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허브 역할 강화

- 최근 들어 제주 여성의 삶과 역사적 의미에 가치를 찾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였음.
-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 요소이므로, 공공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함. 더불어 제주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국내의 여성정책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제주의 여성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5) 연구자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 기회 확대 필요

- 제주 여성연구가 폭넓게 지속적으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 환경이 튼튼해야 함. 다시 말하면 여성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제주 여성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교류활동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여성 관련 행사 및 활동들이 가부장적 시각에서 제도되는 경우들이 많음. 젠더 시각으로 제주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제4장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1. 전문가 면접조사 개요

- 전문가 면접조사는 제주도내·외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대면 또는 서면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전문가들의 구성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 영역, 행정, 언론, 활동가 등 다양함.
- 주요 논의 내용은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연구방향 및 접근방법, 연구주제,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등임.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가.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 여성연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우선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이는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과 과제 선정 등 여성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임.
- 제주 여성의 역사 기록 부재로 여성의 삶 재조명 작업 필요
 - 여성연구가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제주 여성 역사 기록의 부재에 있음. 이는 그동안의 역사 기록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 문화는 주변화 되어 왔기 때문임. 이에 여성연구는 절반의 인간에 대한 역사 기록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임.

- 그동안 여성 인권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 지원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인 과제는 젠더 관점의 여성사 연구라고 볼 수 있음.

○ 기존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분석과 재해석의 의의

- 제주 여성사 서술 작업이 2000년대에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연구방향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없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젠더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그 성과를 재조명하는 후속 작업이 부족함.
-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를 조명하고, 그 성과물들을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제주 여성연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의의가 됨.

○ 제주 여성의 가시화 및 제주 역사문화 가치 제고의 의의

- 여성연구 활성화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역사와 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제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나. 제주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

○ 여성의 삶을 젠더 구조로 재해석

- 여성연구의 접근은 무엇보다도 '젠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 젠더 관점의 접근이란 단순히 '여성'에 대한 기록이나 '여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그 안에 있었던 여성의 삶을 남성과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 젠더 구조로 분석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말함.

○ 새로운 지식이론으로서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 정립

- 젠더 관점의 역사 재조명과 재해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의 정립이 필요함. 특히 지식이론으로서의 여성주의적 지식 이론의 정립이 필요함.
- 나아가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은 단순히 남성중심의 기존 체계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근대적 사회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의 출발점으로 서 그 이론적 정체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

○ 선행 여성연구 자료 정리와 성과 분석 및 젠더 관점의 재조명

- 기존의 여성연구 자료를 분류, 색인, 정리하고 그 성과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

○ 제주 여성 역사의 시기 구분 작업

- 여성연구 또는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
- 여성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에 대한 이론적 정립
- 여성 역사의 시기에 따른 연구 주제 발굴, 연표 작성 작업

○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 문화의 생산자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 여성 인물(문화유산) 발굴 : 여성 문화재 및 문화예술인 발굴, 유적경승지생활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 발굴 등
- 생애사 및 구술사 연구 : 지역·계층·지역·연령별 다양한 여성 인물 발굴, 소수의 선각자적 인물을 넘어 평범한 제주 여성에 대한 기록, 인물 중심에 치우치기보다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여성 인물 발굴 등
- 제주 여성 인명사전 발간 : 여성 인물 및 여성 연구자 인명사전 또는 목록 발간

○ 제주 지역사에서 여성 재조명

- 제주의 특수한 역사적 사건이나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에서의 여성 역사 연구 추진
- 제주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
- 젠더 관점의 제주4·3 연구 : 4·3 관련 증언 채록이나 구술 자료의 여성주의적 분석, 4·3의 과정과 이후의 가족과 여성의 생존과 생계, 4·3 이후 제주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 및 가부장제의 복원과 성별 분업의 변화 등
- 제주 경제와 여성의 일 : 19세기 말 이후 제주 근대 경제사에서 여성의 일, 미시사·생활사 관점에서 여성 경제사 발굴, 현대 제주 경제사에서 여성 기업사,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과 일에 대한 연구 등
- 제주의 사회 운동사에서 여성 운동사 정립

○ 제주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주 여성

- 해외로 이주한 제주 여성
- 제주의 신여성 등 육지와와의 관계 속에서 제주의 여성 역사화
- 제주로 이주한 외부의 여성들: 한국전쟁 피난민 여성 60-70년대 호남 이주민 2000년대 신이주민 등

○ 제주 정책에서의 여성

-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 연구
- 제주의 성평등 문화 지표 개발 연구

라.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

○ 제주 여성연구 DB 구축

- 여성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여성연구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여성연구 성과물의 번역을 통한 세계화 작업

○ 제주 여성 문화 콘텐츠 개발

- 연구 자료를 활용한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 여성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문화 자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문화 자원 개발: 여성 역사 이야기 거리 조성, 여성 문화유산 책자 발간, IT 기반 관광 가이드 시스템 개발 등
- 여성 문화자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력 양성: 여성 역사문화해설사, 학예사 등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젠더 관점의 인문학 교육 교재와 강좌 프로그램 개발, 대학 여성학 강의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마.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 여성연구 인력 양성

- 여성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제주 여성연구 주제에 대한 석·박사 논문 지원, 신진 연구자 논문 공모 지원, 제주 여성연구 관련 도서 출판, 번역, 문화예술 작품 지원 등
- 대학 여성연구(여성학) 과정 운영: 도내 대학의 여성학 강좌 개설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연구 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서 협동 과정 등 운영

○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 여성연구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전문가 위원회, 학회, 학술지, 연구분야별 지역사회 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 여성연구 허브로서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수행,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 역할,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여성연구 지원 사업 등

○ 여성연구 예산 지원

- 여성연구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의의

- 제주 여성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다 19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주 여성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연구의 주제는 폭넓게 다루어졌지만 시기에 따라 특정 주제로 쏠리는 현상이 발견됨. 이는 연구자의 관심도와 관련 분야 연구자의 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또한 전담기구, 예산, 행정의 지원이 있었던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관련 연구물이 집중 발간된 것이 확인됨.
- 2010년대에 들어서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개소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여성정책연구가 집중적으로 추진됨. 여성사 분야에서는 타시도의 지역 여성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으로 인한 연구의 침체기가 나타남.
-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 여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서술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임.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타시도 지역여성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기존 연구 성과물에 대

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제주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에 관한 환기가 필요함을 확인함.

- 한편 본 연구는 제주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연구접근과 더불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함. 더불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 여성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 자료들을 총망라함으로써 지역과 여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하겠음.
- 다만, 시대구분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여성연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여성연구 현황 분석의 대상을 문헌 연구로만 한정하여 제주지역의 여성운동, 여성 콘텐츠, 여성 관련 유물 등을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지 못하였음. 제주 여성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여성의 사회적 권리, 사회·정치참여,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인권 등의 분야에서는 개선이 더딘 점에 대한 성찰적 논의들을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마지막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2. 향후 과제

가. 제주 여성연구 영역 확대

1)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 확립

- 그간의 여성연구 성과를 젠더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여성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여성에 대한 기록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제주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여성연구에 대한 의미 있는 시기 구분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여성연구의 새로운 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젠더적 관점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임. 단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가족, 혼인관계, 정치·경제적 지위, 남성 지배자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임.

2) 젠더 관점의 제주지역 역사 재조명 연구

○ 제주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에서 젠더 관점으로 여성의 경험과 삶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함. 특히 제주4·3이나 해녀문화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젠더 관점의 조명과 재해석이 필요함.

○ 제주4·3과 여성

- 여성의 역할과 기억에 관한 연구
- 4·3 증언채록 및 구술 자료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
- 4·3 역사자료 인권교육에의 활용

○ 제주 해녀

- 제주 여성의 상징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탄탄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 계획(2017~2021)'에 따라, 제주 해녀의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여성공동체로서 사회적 기능 등 여성사 연구 및 출향 해녀의 생애별·지역별 연구 확대 등이 필요함.
-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에 항거한 국내 최대의 여성 항일 투쟁인 제주해녀 항일운동의 경우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등이 대표적 인물로 발굴되어 있음. 그러나 당시 판결문과 수형기록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향후 조사에 난항이 예상됨. 개인문집, 향토사료, 일제 자료 등을 분석하여 더욱 많은 여성인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밝혀 의미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기계형, 김정숙, 문희순, 박미현, 이송희, 정해은, 2017).

○ 제주 지역발전과 여성

- 제주 경제 구조의 변천 과정에서 여성의 일과 삶을 사람이나 사건, 지역에 미친 영향 등에 초점을 둔 미시사 또는 생활사 관점에서 녹여내는 연구가 필요함.
- 시대별로 여성의 노동 혹은 경제활동을 기록할 때, 남성의 경우와 적절히 비교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임. 또한 당대 제주 여성들의 역할과 위상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제주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문순덕, 2018). 나아가 제주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

와 성별분업, 노동구조, 직업의 다양화, 여성교육 기회의 확장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연구 주제로는 제주지역 노동요 분석 연구, 19세기 말 이후 여성 수공업 연구, 도일 제주여성과 그 이후 삶 등 제주 여성의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 감귤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등 20세기 후반 제주 경제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근로자의 삶 연구, 제주 여성 기업가 정신, 제주 여성 CEO 리더십 분석, 제주 여성기업사 연구 등을 제안함.

3) 제주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 제주여성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가운데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을 이어나가는 작업에 대한 의미 부여와 새로운 역사적 콘텐츠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여성무형문화유산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 그 외에도, 문화의 생산자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문학, 토속신앙, 복식, 음식 등 문화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현재 젠더 관점에서 계승·보존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함.
- 제주여성유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성문화 유적지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콘텐츠화(물통, 불턱, 신당, 소곰밭, 연자매, 신화·전설지, 4·3유적지 등)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유적, 경승지, 생활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가족, 공공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의 여성공간 및 여성노동의 작업장, 공원 등과 같은 기념적 공간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발굴을 통한 생애사 연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여성역사 연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에 따른 여성역사 콘텐츠를 연구하여 이를 연표로 작성하는 작업과 더불어, 해외 여성문화유산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벤치마킹도 필요함.

4) 다양한 여성인물 발굴 및 생애사 연구

- 근현대 격동의 시기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제주지역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여성인

물을 추적하여 생애와 활동상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들을 지역 여성들의 생생한 모델로 확장하여야 함.

- 『부산여성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기별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기록하되, 이미 제주 여성인물에 관한 저서들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등 엘리트 여성, 2000년대 여성 국회의원 등에 관한 인물 생애사 연구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여성조직과 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 즉 여성운동의 활성화 및 4·3진상규명 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재조명 연구 등을 통해 제주 지역 양성평등과 민주화를 위한 여정 속에서의 여성인물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제주 근현대사의 거친 역사적 질곡을 공유하고 구성해 왔다는 것임.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로 대표성 있는 여성을 선정하여 구술을 채록하되, 소수의 엘리트 여성뿐만 아니라 평범한 제주 여성에 대한 작업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문학, 미술, 예능, 공예, 전문기술(조리, 주조, 직조 등), 놀이, 전례 등에서도 여성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발굴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인명사전이나 단행본 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제주여성사Ⅲ』 편찬 추진

- 기존의 지역 여성사의 편찬 목표를 보면 지역특징을 살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여성사Ⅱ』에서 일제강점기 제주여성들이 어떻게 각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처했는지, 제주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집약하면서 출가해녀 등 제주만의 활동도 포함하고 있음.
- 『제주여성사Ⅲ』의 경우, 시기별로는 해방이후 미군정기, 4·3 혼란기 또는 1950년대 편찬 작업이 필요함. 이 시기 내용으로는 미군정기, 4·3과 여성, 생존여성의 노동과 가족/친족제도 변동, 한국전쟁, 민간신앙과 종교, 근대교육과 여성, 성별 분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60-70년대에 대한 편찬 작업도 필요함. 지역개발과 여성 삶의 변화가 시작된 1966년에서 1981년까지 시기 즉 제주에서는 이 시기에 감귤산업이 본격화되고 산업

구조가 관광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 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일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성별분업이 시작되었음. 또한 소득향상으로 교육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됨.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여성의 삶과 어떻게 조응했는지를 내용으로 답을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지역여성사는 여성의 일상적 삶, 여성의 사회활동 등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남성과의 권력관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따라서 『제주여성사Ⅲ』에서는 남성과의 권력관계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6) 제주 여성정책 연구 범위 확대 및 고도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성주류화, 여성의 대표성, 노동·일자리, 가족·복지, 돌봄, 안전·폭력, 여성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기록작업은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여성정책 연구분야에서도 제주여성의 지위와 제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작업이 필요함. 또한 여성사 연구와 여성정책 연구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 제주지역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 등과 관련하여 성평등 문화활동 지표 개발, 성평등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향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사분야 연구성과 진작을 통한 여성연구의 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고도화를 통하여 제주지역 성평등 향상을 위한 지역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임.

7) 변화의 주체로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 연구

- 제주 밖으로 나간 여성과 제주로 이주한 여성 양쪽 모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및 제주 여성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도일 제주여성, 출가해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하여 육지로 나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전승 및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등을 역사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이들의 후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외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이주민의 제주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삶, 이주민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전쟁 피난민 여성, 60-70년대 호남 여성 이주민, 2000년대 국내 여성 이주민, 2000년대 결혼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나. 제주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제고

1) 제주 여성연구 자료화 및 서비스 제공

- 제주 여성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은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진행되어야 하며, 풍부한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기간,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향후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탐라시대부터 현대까지 여성들의 역할과 위상,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는 도서·논문 등의 문헌 자료, 구술 녹취·사진 등의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됨. 이들을 전자 파일로 전산화하여 각 자료의 메타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DB화 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사료와 다양한 기록물에서 여성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추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구축된 여성연구 DB 자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아카이브는 온라인 구축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제주 여성사 도서관 등의 인프라로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발굴된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을 통해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국외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근대 신문기사 자료는 물론 탐라시대, 전근대까지 전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료와 개인문집을 발굴하고 번역하여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전문화된 아카이브는 여성연구 홍보와 활용에 매우 유용할 것임. 온라인 활성화를 통해 제주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사이트, 블로그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함.

2) 제주 여성연구 대중화를 위한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제주 여성연구 자료의 문화 콘텐츠화는 여성연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심화연구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여성연구 자료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행정, 박물관, 문화 관련 단체,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와 기업 등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아울러 심화연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야 함.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축제는 60여건에 이르지만, 여성과 관련한 축제와 현장 사업들이 지역과 지역문화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여성문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주체들과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응용을 시도하면서 재해석 작업을 하고, 의의를 추출해 내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기계형 등, 2017).
- 한편 이러한 여성문화 콘텐츠를 테마로 한 거리 조성, 여성 문화유산(인물, 유적지 등)에 대한 책자 발간 IT 기반 관광 가이드 시스템 개발 등이 문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문화 해설사 등 인력양성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 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늘 새로워야 하며, 다양한 세대와의 폭넓은 교감과 세련된 표현방식이 필요함. SNS를 적극 활용하고 어플이나 웹툰과 같은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주 여성연구 추진 기반 강화

1) 여성연구 인력 양성

-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연구 인력임. 따라서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전국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는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제주 여성 관련일 때 논문 공모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음.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의 경우에는 제주 여성을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도내 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내에 여성학 대학원을 개설하여 전문 연구 인력을 배출해야 함. 다만 대학의 여건이 어렵다면, 협동과정으로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제주지역 여성연구 분야의 학문적 풍토를 가꿔 나가야 할 것임.

2) 여성연구자⁵⁾ 네트워크 구축강화

- 제주지역 내 여성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함. 지역 내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연구를 통섭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센터, 제주4·3연구소 등 연구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관광학회 등 연구기관과 학회와도 센터를 바탕으로 둔 지속적 교류 및 정기적 세미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연구 분야별 또는 특정 주제별로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연구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제주 여성 문화유산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연구 기관, 관련 학회, 여성사 전시관, 박물관, 문화재청, 여성 문화 단체, 지방자치단체 정책 부서 등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젠더 관점의 연구 협력 및 지원.
 - 제주 해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해녀 관련 연구자 및 연구 기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일본 해녀(아마)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는 토바시 바다 박물관, 가네자키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의 자매결연 등.
- 제주지역에 여성연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칭)제주여성학회를 창립하여 다양한 사업 즉 학술지 발간, 심포지움 및 세미나, 여성인권증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여성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구성된 학회에서 제주포럼의 한 섹션으로 젠더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 여성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는 지역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를 위해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였음. 이러한 센터의 설치는 제주 여성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고 젠더관점의 여성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을 통한 조직화가 중요할 것임.

5) '여성연구자'는 연구자의 성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제주지역에 새로운 여성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생산의 중심이 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연구·개발하고,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임. 센터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김은실(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함.
-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제주여성에 관한 자료의 수집·기록 및 이에 근거한 자료 제공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주여성 자료 아카이빙을 통해 개별 연구자나 타연구기관에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제주여성에 대한 역사문화적 이해 증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여성 역사연구 아카데미 운영, 여성연구 성과물에 근거한 탐방로 개발 및 운영, 제주지역 방문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와 지식산업으로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변환이 가능할 것임.
- 한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등 제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여성 관련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및 자료구축을 추진하고, 연구 자료를 도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교양을 함양시키는 도민교육이나 전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범위	5
다. 연구 방법	5
제2장 국내·외 여성연구 동향	7
1.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9
2. 국외 여성연구 동향	12
가. 미국	12
나. 영국	16
다. 프랑스	17
라. 독일	19
마. 국외 여성연구의 시사점	20
3. 국내 여성연구 동향	21
가. 시대별 국내 여성사 연구	21
나. 지역별 국내 여성사 연구	22
다. 국내 여성연구의 시사점	32
제3장 제주 여성연구 현황	37
1.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개요	39
2. 제주 여성연구 시대별 현황 분석	40
가. 해방 후 ~ 1960년대	40
나. 1970년대	41
다. 1980년대	44
라. 1990년대	46
마. 2000년대	53
바. 2010년대	62

3. 제주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69
가. 공공 영역 여성정책 관련기관의 변천	69
나.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71
4.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와 과제	90
가.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90
나. 제주 여성연구의 향후 과제	92
제4장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97
1. 전문가 면접조사 개요	99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101
가.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101
나.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주제	105
다.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	113
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115
3. 소 결	118
제5장 결 론	121
1. 연구의 의의	123
2. 향후 과제	125
가. 제주 여성연구 영역 확대	125
나. 제주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제고	133
다. 제주 여성연구 추진 기반 강화	135
참고문헌	138
부록 1. 제주 여성연구 논저 목록	144
부록 2. 제주 여성정책연구 논저 목록	162

표 목 차

<표 3-1>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	53
<표 3-2> 『제주여성사 I』의 목차	55
<표 3-3> 201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	62
<표 3-4> 『제주여성사II : 일제강점기』의 목차	63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71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73
<표 3-7>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75
<표 3-8>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77
<표 3-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80
<표 3-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88
<표 4-1> 전문가 면접조사(FGI) 개요	99
<표 4-2> 전문가 면접조사(FGI) 참석 대상자 특성	100
<표 4-3>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8
<표 4-4>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3
<표 4-5>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표 5-1> 제주 여성 무형문화유산 분류표	12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6
<그림 3-1>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기관 변천 과정	70
<그림 3-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도	79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 이후 젠더와 지역은 한국의 주요 사회변인으로 부각되어 왔음. 젠더와 지역의 결합인 지역여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은 지역여성이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물임 (김혜순, 정혜숙, 2004).
- 시대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역여성 연구는 대체로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및 2000년대 지역 여성정책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음(하정화, 2012). 이는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 내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임.
- 반면 전문 연구자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연구 실적에서의 차이가 있음. 또한 지역여성의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서술되느냐는 지역사회의 지배세력이 그 지역여성을 어떻게 위치 지우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김혜순, 정혜숙, 2004).
- 제주지역은 해녀, 다양한 여성 관련 신화 및 설화, 민담 등 타지역과 구별되는 풍부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의 민속과 생활문화 중 본격적으로 '제주 여성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음.
 - 그간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제주 해녀문화' 및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룸.
- 제주지역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지원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2001년에 발족한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사정립분과에서는 『제주여성사 자료총서』의 형태로 거의 매년 단행본을 발간하였으며 2006년 발족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제주 여성문화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여성문화』, 『제주여성사자료집 I』 등의 단행본을 발간함.
 - 200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통폐합에 따라 여성연구 관련 업무는 제주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제주여성사자료집Ⅱ』, 『제주여성문화유적』,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음.
- 이렇듯 제주지역 여성사 연구는 타지역에 비해 제주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여성사 연구의 축적 결과 이것이 콘텐츠화 되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해녀박물관>, <김만덕기념관> 등 여성 관련 기념 공간의 조성 및 건립으로 이어짐.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의 연구 성과, 연구지원 체계 등 연구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 제주여성사 관련 연구물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연구 성장 동력이 멈춘 것으로 보임. 이는 담당기관이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연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다는 단기간의 실적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임.
- 최근 들어 제주 여성의 삶과 역사적 의미에 가치를 찾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서는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였음.
- 제주의 여성사회 및 생활, 문화 등 부분적인 연구는 실제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어 있으나, 제주 여성이 주요 테마가 되는 통합적인 연구는 미진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빚고 있음(이문교, 김은석, 김동진, 이은주, 한립화, 양덕순, 정승훈, 2003). 이에 그간 연구된 제주 여성 관련 연구성과물을 집약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제주 여성에 관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연구지형을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공백기를 겪고 있는 제주 여성연구를 다시 활성화 하고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그간에 연구되어진 여성연구물을 시대별·영역별로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근거로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주 여성 관련 연구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논의
- 국내·외 여성연구 현황 검토
- 제주 여성에 관한 연구물 분석을 통한 여성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 진단
 - 여성사, 여성문화, 문학, 해녀, 제주4·3, 다문화, 여성정책 등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나. 연구 범위

- 제주 여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물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화사 형성에 관여하여 파생된 문화적 요인이 있어야 하고, 여성들이 사회제도 변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제주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제주 여성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논의 범위로 정하였으며, 제주 여성을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석사·박사), 학술논문, 단행본(연구보고서 포함)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약 70년간(해방 후 ~ 2018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

다.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제주(제주도,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여성사, 여성문화, 가족제도, 정치, 경제/직업, 복지/사회제도, 해녀, 4·3, 다문화, 민요, 제주방언(여성어), 문학, 설화(신화, 전설), 인물(김만덕,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홍운애 등)}’ 등을 키워드로 실시함.
- 검색된 자료들은 해방 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들로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여성사(인물), 여성문화(여성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룬 경우, 여성문화유적 등), 여성문화사(정치, 경제, 직업, 교육, 가족제도, 언어, 사회제도, 생활문화), 해녀, 제주

4.3, 다문화(국내·외 이주), 문학(현대문학, 구비문학), 여성정책 등임.

- 여성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를 시대별로 재분류한 결과, 해방 후 ~1960년대 4편, 1970년대 7편, 1980년대 11편, 1990년대 45편, 2000년대 99편, 2010년대 154편 등 총 320편을 최종 선정하였음.

2)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 제주도내·외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진행함. 전문 분야는 여성, 역사, 문화, 예술, 인권,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함. 각 그룹은 4-8명으로 구성하였고, 각 면접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됨.
- 회의 목적과 논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전문가 집단 면접(FGI)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질문을 하고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주요 면접 내용은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여성연구 접근 및 연구 방법, 향후 연구가 필요한 여성연구 주제,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방법,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또는 추진체계 조성 등임.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여성연구 현황 검토 • 제주지역 여성연구 자료 수집 및 검토
3단계	여성연구 현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여성연구 현황 분석 • 여성정책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분석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3회)를 통한 여성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 자문회의 개최
5단계	공동연구진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한 연구방향 및 활성화 방안 논의
6단계	분석·집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집필 및 발간본 제출

국내·외 여성연구 동향

1.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2. 국외 여성연구 동향
3. 국내 여성연구 동향

1.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

가. 여성연구의 의미

- 학문으로서 여성연구는 1960년대 후반 서구의 페미니즘운동 '제2의 물결'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시민권리 운동, 뉴레프트 운동(the New Left), 평화 운동(특히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68운동을 위시한 1960년대 서구의 학생운동 등과 깊은 관련을 지님. 또한 이러한 일련의 진보적 운동은 여성들을 모으고 여성해방운동을 조직하도록 고무시킴.
 -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 증가와 함께 1960년대 진보적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여학생과 여교수들을 포함해 많은 여성들이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의 리더로 참여하기 시작함.
- 여성들은 자신이 여전히 이등시민 혹은 이등국민으로 취급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집단으로서 여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연구하기 시작함. 그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사, 여성문학, 그리고 여성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에 착수하게 되었고, 고조된 분위기는 곧이어 대학의 강의실로 옮겨가,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대학들에 수백 개의 여성연구 코스가 나타나게 됨.
 - 공식적으로는 1970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여성연구 프로그램이 시작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역사, 문학, 문화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여성연구'로서 대학의 커리큘럼 안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연구의 용어와 개념은 그동안 변화를 겪어옴. 처음에 여성연구는 female studies로 쓰이다가 곧이어 women's studies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여성연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그것은 '여성의' 연구인가? 아니면 '여성에 의한' 연구인가? '여성의' 연구, 또한 여성에 관한 연구라면, 그 여성의 범주에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는 포함되는가? 남성성에 의해 여성연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임.
- 여성연구는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젠더연구, 여성과 젠더연구, 페미니스트연구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

- 초기 여성연구는 역사학, 문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곧이어 철학, 종교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지리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 1980년대에 이르면 서구의,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연구라는 지배적 경향성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 속에서 서구 이외 지역의, 인종적으로 백인여성이 아닌 여성들의 여성연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생겨남. 세계 각지에 자리 잡은 여성연구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그 연구대상에 여성문화, 여성정책, 여성운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여성연구의 공통점은 여성을 사고와 분석의 중심에 둔다는 점,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한 '여성 자신의' 평가가 설명과 분석의 출발점이라는 점,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발전을 겪었던지 간에 여성의 종속이 공통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에서 공통점이 있음.
 - 여성연구에서 성(sex)이 아니라 젠더(gender) 개념이 중요한 분석범주로 사용되고 있음도 공통점으로 지적할 만함.

나. 여성연구의 가치

- 국내·외 여성연구의 동향과 여성연구의 가치를 살펴봄에 있어, 여성연구의 토대가 되는 여성사 분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여성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 구명을 시도하는 연구이며, 역사가들의 여성사 서술은 과거를 바라보는 행위이자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임 (정현백, 2014).
- 여성사에 내재하는 문제의식은 기록된 역사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과 기여를 최소화하거나 경시한다는 점에 있음. 여성사는 전통적인 역사적 합의에 대해 도전하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고 확대한다는 점에서 수정주의 역사연구의 맥락에 있음.
- 페미니즘 '제2차 물결'에 의해, 사회사 연구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들이 여성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여성으로서 경험한 억압과 불평등을 논의하고 분석하여 자신들의 시대에 앞섰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게 됨.
 - 그들은 출간된 연구들 가운데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역사는 주로 남성에 의해 쓰여졌고, 주로 전쟁, 정치, 외교, 행정 분야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의 활동이 기록되었음을 알게 됨.

- 여성들은 역사적 서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며, 설사 언급되는 경우라도 아내, 어머니, 딸, 애인 등과 같은 여성의 전형성 속에서 묘사됨.
- 처음에 여성사 연구의 목표는 ‘여성이 보이게 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며, 여성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분명했으나(최재인, 2014),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나게 됨. 1986년에 조안 스콧(Joan Scott)이 여성사 발전을 위해 젠더를 중요한 분석의 도구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여성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역사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짐.
- 여성사를 연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젠더는 과연 인종 혹은 민족과 별개의 것인가 하는 문제임. 즉 여성과 남성간 차이만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나아가 그동안 여성사가 사회의 질서 체계로서 젠더에 관심을 갖지 않아 왔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젠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도화의 노력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는 것이라는 점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성사 혹은 젠더사는 해명을 기다리는 주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음.
- 여성의 삶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작업임. 가정, 소비, 섹슈얼리티, 출산 등 그전까지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주제들이 역사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각종 통계와 주요 자료 항목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음(최재인, 2014).
- 이는 여성들을 역사 서술에 끼워 넣는 ‘보충사’를 넘어서며, 여성위인의 역사적 역할을 드러내되 그들을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여성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헌사’를 넘어서야 함을 보여줌.
- 최근에는 ‘여성사’라고 쓰기보다는 ‘여성과 젠더사’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짐. 대학의 교과목이나 연구소 이름에서도 ‘여성사 과장’이나 ‘여성사 연구소’라고 하기보다는 ‘여성과 젠더사’ 혹은 ‘젠더사’, 경우에 따라서는 ‘젠더연구’라고 부르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임.
- 젠더 관점은 여성사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지닌 여성사학자들의 계도에서 벗어나 많은 역사가들이 자신의 연구에 적극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음.

2. 국외 여성연구 동향

- 국외 여성연구는 여성사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여성사 연구범위가 매우 방대하므로 최근 여성사의 핵심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대략적인 경향성과 연구 흐름에 중점을 두었음.
- 최근 10년 동안 여성사 관련 잡지들에 실린 논문과 단행본 서평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
- 가장 연구 성과가 많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큰 흐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가. 미국

- 미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⁶⁾는 1960년대 여성운동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 여성사 수업이 미국대학들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되는 배경 위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음. 현재까지도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는 페미니즘과 긴밀한 관련을 유지해 오고 있음.
- 미국 여성사 및 젠더사 분야는 1970년대 이후 방대한 연구 성과물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대에 걸쳐있음. 최근 경향에 대해서는 다소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으나, 요약하자면 글로벌 히스토리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인종, 계급 및 섹슈얼리티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1970년대-1990년대의 일반적 연구경향을 살펴면서 2000년대 이후 10여 년의 연구경향을 살펴본다면, 미국 여성사 발전을 위한 최초의 노력은 20세기 초 ‘미국 남부여성연합회(United Daughters of the Confederacy)’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 주요활동은 대체로 기념사업과 역사사업으로서 유적지를 보존하고 역사 기록과 기타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으나, 흥미로운 점은 이 조직이 남부전선의 후방에 있는 여성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임.
- 역사가 재클린 다우드 홀(Jacquelyn Dowd Hall, 1998)에 따르면, 남성역사가들이 주로 전투와 장군들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 조직은 여성들의 행동

6) 여성사가 여성인물, 여성 관련 역사적 사건, 여성간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젠더사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간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역사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다룸.

주의, 주도권,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여성들은 전쟁터로 떠난 남성들의 빈 자리를 대체하여, 식량을 구해 식구를 먹여 살리고 베틀을 이용해 옷감을 만들어 낡은 전통적 기술을 재발견하는 등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임.

- 그러나 1960년대까지 여성학자들의 작업은 남성 주류의 역사학에 의해 경시되어 왔음.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1963년에 처음으로 여성사 코스를 시작했으며, 여성사 분야는 1970년 이후에야 역사과 대학원 과정에 허용되었음. 1972년에 사라 로렌스 대학은 여성사에 문학 석사 학위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여성사 학위 과정이었음.
- 다른 중요한 발전은 여성들이 인종사와 노예사 연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는데, 선구적 노력은 데보라 그레이 화이트(Deborah G. White, 1985)에 의해 이루어짐. 『나는 여성이 아니었나? 남부 플랜테이션의 여성노예들』(1985)에서 인종, 노예, 노예폐지론,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저항, 권력, 행동주의, 폭력, 섹슈얼리티, 몸에 대한 분석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었음.
- 사회운동이 미국사회를 변화시키던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여성사는 역사학 내에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시민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페미니즘 운동에서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인종과 계급의 차이가 빈번하게 논의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연구함.
- 거다 러너, 앤 스코트(Anne Firor Scott, 1970), 토마스 더블린(Thomas Dublin, 1979)은 여성의 삶에서 인종, 지역, 계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였고, 샤론 할리(Sharon Harley, 1978)와 로잘린 터보르그-펜(Rosalyn Terborg-Penn, 1978)은 흑인여성들의 역사적 경험들을 조명함. 린다 고든(Linda Gordon, 1976)과 재클린 다우드 홀(1979)은 여성의 경험 형성에서 섹슈얼리티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 중에 계급과 인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였음.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종에 대한 관심 속에서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아메리카 인디언 여성,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이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남.
- 동시에 젠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조안 스콧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논문 “젠더: 역사 분석의 유용한 범주”에서 어떻게 젠더담론이 모든 종류의 권력관계와 정치투쟁을 만들어냈는지 해명하였음(1986; 1999; 2008).

- 역사가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젠더화 된 존재로 탐구하고 남성성을 보다 완벽하게 연구하기 시작함. 흑인, 라틴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 게이 및 레즈비언 역사, 노동자 계급의 역사는 연구자들이 백인, 이성애 규범 및 중산층을 이해하기 위해 인종, 젠더 및 계급의 범주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
- 몇몇 여성사가들은 젠더사가 여성사를 따라잡을 것이며 여성 삶의 자료화 및 여성들의 조직노력을 발굴하는 과제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젠더연구가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됨. 오늘날 학자들은 젠더를 연구하지 않고 여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1990년대에 인종적으로 다양한 여성 집단의 경험과 젠더담론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인종, 젠더, 계급의 상호교차점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게 되었음. 즉, 인종과 젠더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으로 분석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함.
- 엘사 바클리 브라운 (Elsa Barkley Brown, 1989), 제니퍼 내쉬(Jennifer C. Nash, 2008) 같은 학자들은 인종과 젠더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집단보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이성애 여성의 삶을 탐구함. 그 이후 여성 학자들은 백인 또는 흑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함.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가시화 되고 정치논쟁에서 그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심도 깊은 역사 연구들이 이루어짐.
- 젠더사에서 여성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데, 여성은 하나로 일반화될 수 없으며 계급, 인종, 젠더의 교차지점에서 서 있기 때문임.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이념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있었는데, 1990년대 초 엘사 브라운(Elsa Barkley Brown, 1992), 이블린 글렌(Evelyn Nakano Glenn, 1992), 페기 파스코(Peggy Pascoe, 1993)등이 여성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브라운은 많은 노동 계급 여성들, 특히 유색 인종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중산층 여성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뿌리 페미니즘에 대한 앤 엔케(Anne Enke, 2007)의 연구는 섹슈얼리티를 인종, 젠더, 계급과 함께 중심적인 분석 카테고리로 끌어 올렸음. 섹

슈얼리티를 교차 구조로 완벽하게 통합시킴으로써, 엔케는 레즈비언의 아이디어와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행동주의의 중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줌.

- 최근에는 21세기 페미니즘의 변화상이 여성사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음. 여성노동, 젠더정치, 문화적 재현, 몸,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연구들과 아울러 세부적으로 인종, 계급 및 섹슈얼리티 연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일관되게 연구 폭의 확대, 학문간 통섭, 혁신을 장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전적으로 여성사의 국제적 차원에 할애하는 최초의 저널이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1989년에 발간된 『여성사저널(Journal of Women's History)』의 경우 처음부터 젠더의 역사적 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에 의해 젠더가 구성되는 양상에 대한 비교사 및 트랜스내셔널 접근을 표명하였음.
- 최근의 주요 경향 중 두번째는 글로벌 히스토리 관련 연구를 지적할 수 있음. 여성이라는 단어는 북아메리카의 모든 역사논문의 요약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 8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임.
- 최근에 여성사가들은 웹상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트린 스클라와 토마스 더블린은 웹사이트인 '미국의 여성과 사회운동'을 운영하고 있음.7)
 - 1997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여성사 온라인 아카이브로서, 160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사와 미국 여성사 학생들과 학자들을 위해 자료를 모음.
 - 여성의 사회운동을 둘러싸고 조직된 컬렉션은 학문적 논쟁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124개 사료 프로젝트와 아카이브, 5,100개의 사료, 2,800여명의 저자들이 쓴 추가적인 텍스트 18만 페이지가 포함됨.
 - 이곳에는 책, 필름, 웹사이트 비평, 아카이브 연구노트, 교육방법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21세기 미국의 여성과 사회운동 아카이브를 준비하고 있음.
 - 2015년 가을부터 시작해 인문학연구기관의 학자들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임. 또한 '클릭! 페미니스트 혁명이 계속되다'와 같은 사이트도 있음.8)

7) Women and Social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1600-2000
<http://womhist.alexanderstreet.com/>

8) Click! The Ongoing Feminist Revolution, www.cliohistory.org

나. 영국

- 이진옥(2014)에 따르면 영국 여성사는 1980년대 들어와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1700년 이전의 전통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출간되었음. 전기적 접근도 있으나, 노동, 가족, 종교, 범죄, 여성의 이미지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편지, 회상기, 법정기록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옴.
- 1980년대 이후 젠더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속에서 글래스고우대학, 런던대학, 옥스퍼드대학 등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성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 및 여성사 연구 흐름과 공조하는 측면이 강함.
-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사 잡지는 글래스고우대학에서 연3회 발행하는 『젠더와 역사(Gender & History)』(1989년~), 루틀리지 출판사에서 격월로 연6회 발행하는 『여성사 리뷰(Women's History Review)』(1992년~)를 꼽을 수 있음. 잡지의 제목이 『젠더와 역사』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영국에서의 젠더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에 나타남.
- 그 외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학 잡지로서 격월로 연6회 발행하는 『영국사연구(English Historical Research)』(1886년~)와 옥스퍼드대학에서 연2회 발행하는 『역사워크숍 저널(Historical Workshop Journal)』(1976년~)은 유럽사 전반 및 영국사를 주제로 하는 학술지로서 최근에는 여성사 관련 논문과 서평을 싣고 있으며, 영국의 여성사 연구경향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줌.
- 한편 1987년부터 여성사 연구자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한 후, 1989년부터 처음으로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 국제여성사 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Research of Women's History, IFRWH)의 연4회 발행 소식지는 영국 여성사 동향 분석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 영국 기반의 이 단체는 2년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4년마다 열리는 세계역사학대회 마지막 날에 IFRWH 회의를 조직하여 세계 역사학계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음.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한 지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영국은 19세기 말 페미니즘운동 '제1차 물결'의 주된 중심지였으므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팡크허스트, 에밀리 데이비슨 등에 의해 영국 참정권 운동, 참정권 운동가

들, 부르주아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기할 만함. 특히 올해 2018년은 영국의 참정권획득 100주년이라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음.

- 현재 영국 여성사 연구는 다양성이 화두이며, 이에 따라 여성의 전통적 성별에 따른 역할로서 여성의 출산 및 모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비롯해 성폭력, 동성애, LGBT 집단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다. 프랑스

- 프랑스 여성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박효근, 2014), 대학에서 젠더연구와 같은 과목이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역사학계에서는 여성사가 특정 사회운동, 즉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극히 편향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보수적 학문풍토가 있어 왔음.
- 프랑스 여성사학자들은 '여성'을 학문적으로 중립적이며 연구가능한 대상으로 학계에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이 계급, 연령, 민족, 인종처럼 역사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비교적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논제를 설정함.
 - 즉 엄정한 사료비판 및 사회사방법론에 기초한 광범위한 연구전통의 기반 위에서 여성사 분야에 접근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사료 중심의 실증방법론 아래 전개함.
- 1973년 미셸 페로(Michelle Perrot)와 파비안느 북(Fabienne Bock), 폴린느 슈미트-팡텔(Pauline Schmitt-Pantel) 등 3명의 여성사학자들은 파리7대학에서 '여성의 역사' 세미나를 조직함. 이 세미나는 68혁명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속에서 프랑스 여성사 쓰기의 첫 시도로 인식됨.
- 프랑스 여성사 연구방법론은 영미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프랑스 역사 학계에서는 젠더이론, '언어적 전환', 퀴어이론 등의 이론을 여성사 연구에 접목시키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임.
- 1980년대까지는 주로 '여성의 몸', 즉 임신, 출산, 수유, 여성의 질병 등 인구사적 통계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연구,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하는 노동의 형태 즉 하녀, 유모, 산파, 매춘부, 수녀, 세탁부, 침모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어머니가 갖는

사회적 역할이나 여성을 마녀로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옴.

- 이러한 연구 속에서 여성은 역사 속에서 독자적 정체성을 지니며 사회적 영역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한 역할을 맡았으며 그 속에서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전략적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임이 부각되었음.
- 그러나 프랑스 여성사 연구자들은 역사 속에서 여성이 분명히 복원될수록 여성의 역사적 경험이 역사일반과 괴리된 특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역설에 직면하게 됨.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남성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 프랑스혁명 시기의 여성사에 대한 고찰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여성과 젠더에 대한 논의를 폭발시킨 주제의 중요한 예가 됨.
- 프랑스 여성사는 여성의 역할과 문화를 유별나거나 특화된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일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방식, 상호갈등이 생기는 점점, 양자간 공통점과 상호의존이 발생하는 방식을 발견하려는 형식으로 연구의 주류를 형성함.
- 프랑스 여성사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그 속에서 여성의 행동양식을 실증적 사료를 통해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리하여 1973년 미셸 페로 등이 조직한 ‘여성의 역사’ 세미나의 문제의식을 집대성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사 전반을 아우르는 전 5권의 『여성의 역사』를 발간하는 성과를 거둬.
-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여성사 연구자들 사이에 영미권 여성사 연구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남. 최근 프랑스 여성사학계는 프랑스제국주의 확장과 식민지여성과의 관계, 스포츠나 소비패턴 등 과거에 여성사의 주제가 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젠더의 양상 등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밝혀내고 있음.
 - 1995년에 발간된 잡지 『클리오: 역사, 여성, 사회(*Clio Histoire Femmes et Sociétés*)』는 2013년부터 『클리오: 여성, 젠더, 역사(*Clio Femmes, Genre, Histoire*)』로 이름을 바꿔 프랑스 여성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여성사 연구의 중심허브가 되고 있음.⁹⁾
- 앞서의 상황으로 볼 때, 프랑스 여성사는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은 영미권에

9) 이 잡지는 1995년부터 모든 논문을 인터넷에서 무료 배포함. <https://journals.openedition.org/clio/>

비해 비교적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프랑스 여성사 학계는 여성사가 학문적 계토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억압상을 복원하는 데서 나아가 여성과 남성이 관계 맺었던 다양한 측면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

- 또한 프랑스학계의 실증적, 사료중심적 연구의 흐름은 여성사학자들이 여성사의 시대별 핵심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미권 연구자들이 도입한 젠더사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라. 독일

- 독일의 여성사는 '제2의 물결'의 영향 속에서 1980년대에 상당한 연구축적이 일어났으며, 미국 여성사의 자극을 받아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전환을 시도함. 미국에서 1980년대에 진행된 젠더사로의 전환이 독일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 그러나 정현백(2014)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하면 제도화작업이 제한적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사 연구의 호황이 중단되면서 여성사의 위기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정현백(2014)은 젠더사 수용에서 드러나는 독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즉 영미이론의 자극을 받았으나 유럽 또는 글로벌 젠더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독일 현대사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젠더사를 수용하되 포스트모던 혹은 포스트식민주의적 학문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하였음.
- 독일의 여성사 및 젠더사는 1980년대에 활성화 되었고, 1990년 이후 '여성젠더역사 연구모임'이 발족되면서 여성사가들의 국제적 연대와 공조의 분위기가 고조됨. 이 조직은 2007년에는 협회로 발전하여 독일에서 젠더사 연구의 안정성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사학계 전체로 보면 독일 젠더사는 담론의 역사, 남성사의 연구성과들, 그리고 초기근대사의 사회적 변화와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축적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독일 현대사 부분에서는 인정받을 정도로 질적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 정현백(2014)은 독일의 지배적인 거대 서사를 젠더사의 관점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미진하며, 이것이 독일 여성사 및 젠더사의 향후 과제라고 지적함. 여성사와 젠더사의 위기는 2006년에 개최된 독일역사가대회의 51개 분과 중에서 젠더사 분과는 단 1개였으

- 며, 전체 200개 논문발표 중에서 여성사/젠더사 주제는 5개에 그친 것에서 볼 수 있음.
- 페미니즘 약화와 여성학의 약화는 독일 여성사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현상임.
 - 연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독일 여성사학계의 특징은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을 둘러싼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 또한 독일 자체의 사례에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여성사 이론화 주제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쟁점을 만들어나가는 점에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보임.
 - 현재는 젠더사를 보편사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을 여성사학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추세임.

마. 국외 여성연구의 시사점

- 여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두고 연구해온 서구여성사의 선구자들은 역사발전의 주요 국면마다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혀왔음. 서양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의 기여와 역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구여성사는 역사서술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만한 분야라는 평판을 받음.
- 하지만 여성주제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여성사가 여성사학자들만 연구하는 특수하고 주변적인 에피소드로 그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1980년대~1990년대에 여성사와 젠더사의 결합이 일어남.
- 젠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과 무수히 교차할 수 있는 분석틀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여성사 연구는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가능성을 획득하게 되었음.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여, 향후 여성과 남성의 역사적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제주지역 연구사에서는 강한 여성적 대표성만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 신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여성들 사이의 편차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글로벌 히스토리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연구성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인물 가운데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재해석의 가능성은 없는지 추적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지역으로 유학을 가거나 여성노동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국내 여성연구 동향

- 국내 여성사 연구는 먼저 전국을 8개 지역 서울지역, 경기지역(인천·경기), 강원지역, 충청지역(대전·충청), 전라지역(광주·전라), 경상지역1(대구·경북), 경상지역2(부산·경남), 제주지역으로 분류한 다음,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하여 서술함.
- 한편 국내 여성사 연구 고찰의 시대적 범위는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여성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이후 약 20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들임.
 - 이들 중 단행본, 연구논문, 보고서, 기타 사진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가. 시대별 국내 여성사 연구

- 한국의 여성사 연구로 가장 먼저 호명되는 저작은 1927년 이능화의 『조선여속고』로서, 이능화는 조선의 여성습속에 대한 서양인들의 왜곡된 서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음.
- 이후 1960년대에 가족, 여성운동 및 여성교육에 관한 글이 간간히 나타나다가, 1972년에 이화여대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가 전시대를 통사로 엮은 『한국여성사』를 발간하였음. 초창기 연구는 성과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친족 또는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이었음.
 - 1977년에 이화여대에서 여성학강좌가 개설되고 여성들은 지위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근대의 여성교육과 여성노동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나타남.
- 1980년대에는 민중사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 속에서 민중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한 여성사 연구가 출현함. 1985년에 여성사 연구회(후에 한국여성연구회)가 구성되어, 『여성』(~1989), 후에는 『여성과 사회』(1990~2005)를 출간하였음.
- 1990년대에는 여성사의 양적 성장이 가시화되었는데, 1992년에 한국여성연구회는 『한국여성사: 근대편』을 펴냈고 1999년에는 한국여성연구회의 후신인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우리여성의 역사』를 출간하였음. 한편 1994년에 『한국사시민강좌』 15집에서 여성사를 기획논문으로 실었는가 하면, 1996년 『역사학보』 150집에서는 여성사를 특집으로 실었음.

-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연구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제도나 가족생활을 구명함으로써,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나타남. 그렇지만 여성사는 여전히 여성교육이나 여성운동에 집중되었고, 일상생활, 여성노동, 여성의식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였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구술자료가 여성사의 중요 사료로 자리매김한 것은 여성사의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함.
- 2000년대에 들어서면 여성사 연구 환경이 매우 달라짐. 2001년에 여성부가 설치되어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성주류화정책에 박차를 가함. 2004년에는 여성사학회가 설립되어 2004년 말에 처음으로 학회지 『여성과 역사』가 출간되었음. 여성사학회는 여성문학회 및 여성철학회와 2년에 1회 연합학술회의를 진행하며, 학문간 통섭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2011년부터는 '국제 한·중·일 여성사대회'를 개최하여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여성사 연구를 도모하고 있음.
- 한편, 『한국여성학』 이외에 『페미니즘연구』가 발간되면서 여성사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지면이 늘어남. 그런데, 영미권에서 1980년대에 여성사학회가 설립되고 1990년대 초에 『여성사학보(Journal of Women's History)』, 『여성사론(Women's History Review)』 학술지가 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여성사의 제도적 정착은 늦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역별 국내 여성사 연구¹⁰⁾

- 1980년대 전국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은 각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구체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때부터 지역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여성들은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각자 자신들이 처한 공간에 대해 되돌아보게 됨. 이는 전국에서 지역 단위의 여성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 1996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역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맞물리면서, 각

10) 지역별 국내 여성사 연구는 기계형·김정숙·문희순·박미현·이승희·정해은(2017)을 참조하였음.

행정단위에서 지역여성사 발간을 촉구하였음. 실제로 『강원도여성사』(1996)를 시작으로 최근의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2015)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이 지역연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¹¹⁾

- 농촌과 도시, 도서해안과 산악 등 지역적 특성이 여성 관련 문헌의 유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여성사 연구 현황은 지역별 특징 및 시기별 특징, 여성 정책과의 관련성, 여성 조직 운동의 상황 등에 따른 특이 상황을 살펴봄.

1) 서울 지역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역학’이 대두됨. 1993년에 서울 정도 6백주년을 기념하면서 ‘서울학’을 착수하였고, 서울 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됨.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2005)는 서울 여성사를 표방한 최초의 저술임.¹²⁾
 - 그 후 『여성문화유산-서울·경기·인천지역』(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한국여성사학회·(사)한국여학사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08)이 발간되었으나,¹³⁾ 이를 제외하고는 서울 여성사를 표방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서울 여성사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면 왕실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근 왕실 여성 자료의 발굴이 활발하여 『숙빈최씨자료집(淑嬪崔氏資料集)』 1 - 5(2009, 2010)와 『영조비빈자료집(英祖妃嬪資料集)』 1, 2(2011)가 출간됨. 숙종이나 영조의 비·빈뿐만 아니라 다른 왕비나 후궁에 관한 자료도 무궁무진해 자료 발굴 가능성이 매우 많음.
 - 자료가 각종 의례(儀禮)에 치우친 감이 있으나, 인물 연구의 기초 사료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음.

11) 『전북여성발전 50년』(2000, 전북여성정책관실); 『광주여성발전사』(2000, 광주시); 『포항여성사』(2001, 포항시여성사편찬위원회); 『경기여성발전사』(2002, 경기도); 『강릉여성사』(2003,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경북여성사』(200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남여성100년』(2004, 전북북지여성국여성정책과); 『사진으로 본 전남여성 100년』(2005);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2006); 『강릉시여성사』(2006); 『구술 생애사로 본 경북 여성의 삶』(2007); 『제주여성사 1』(2009); 『부산여성사 1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사』(2009,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남여성사』(2010); 『부산여성사 2 - 역사속의 부산 여성: 고대에서 근대』(201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역사속의 부산 여성 - 현대편』(201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주여성사 2』(2011); 『전북여성사 100년』(2013); 『충북여성인물사 1 -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2015).

12) 서울을 11개 구로 나누어 서울의 여성문화유산 109개를 소개함. 부록으로 ‘역사 속 그녀들을 찾아서’를 두어 여성유적의 답사 코스를 제시함. 답사 코스는 ‘여성의 생활과 공간’, ‘왕비릉을 찾아’, ‘조선 왕실의 여성’, ‘근대의 여성’의 4개 주제임.

13) 서울과 경기지역의 여성 문화유산 총274개를 선정하여 실었음. 서울을 7개 권역으로 나눔.

- 왕실 여성 관련한 연구는 『19세기 수렴청정 연구』(2008)가 대표적이며, 인류학에서도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를 다룬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 역사인류학적 접근』(2010)이 나옴.
- 여성사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전문연구서로서,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2012),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2012)가 주목됨. 그 외에 『조선왕비실록-숨겨진 절반의 역사』(2007), 『조선공주실록』(2009), 『조선 왕비 독살 사건』(2009), 『조선공주의 사생활-조선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2011), 『궁녀의 하루-여인들이 쓴 숨겨진 실록』(2013) 등을 비롯해, 숙빈 최씨를 소재로 단행본도 여러 권 출간됨.
-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 왕실 여성 연구는 전성기라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옴. 임혜련(2008)은 19세기 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대비들의 수렴청정을 종합적으로 접근함. 정치제도이자 정치 운영의 형태로서 수렴청정의 변천과 정비과정을 제도적으로 분석하면서, 수렴청정은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한 중요한 장치임을 밝힘. 이미선은 태조부터 고종의 후궁까지 후궁의 연원과 용어, 간택절차, 위상 변화 등을 중심으로 온갖 자료를 망라해 후궁을 공인으로서 복원하였고, 임민혁은 국혼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피현상과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혼이 나라의 경사가 아니라 왕실과 양반사대부의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는 장(場)이라는 독특한 분석을 내놓음(정해은, 2013에서 재인용).
- 한편, 친잠례는 내명부의 수장 왕비가 주관하는 국가 의례로서 농본을 바탕으로 한 조선왕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한형주는 친잠례를 정치적 함의가 가득 담긴 의례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행사의 하나로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써 왕실 여성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열어줌. 왕실 주변부 여성으로서 봉보부인(奉保夫人) 및 왕실 유모에 관한 연구도 진척되고 있음(정해은, 2013에서 재인용).
- 봉보부인은 조선시대에 국왕의 유모가 받은 작호로 종1품으로서, 정경부인(정·종1품)에 해당하니 여성으로서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써 획득한 품계라는 점에서 대단한 출세였음. 한희숙(2003)은 조선전기 봉보부인의 출신과, 역할, 지위 등을 규명해 봉보부인의 실체를 처음 학계에 소개하는 성과를 거둠. 김지영(2010)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의례 행위가 갖는 의미 발굴을 통해 왕실의 출산 문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조선 왕실 여성은 공사영역에 걸쳐있는 특이한 존재였음. 국가와 왕실의 대표자로서 명부(命婦)들을 이끄는 최상위 지위자로서 왕비는 국왕에 짝하는 공적 존재였음

(정해은, 2013). 그럼에도 출산과 내조를 담당하는 여성의 임무가 강조되면서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음. 왕실 여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반영해 재검토하고 질문해 볼 시점임.

2) 경기지역의 여성사

- 경기도 여성사를 검토해보면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가 단연 많음. 경기도 여성 인물에 대한 첫 연구로서 김미란은 『충명이 무딘 붓끝만 못하니』(1992)에서 훌륭한 어머니를 비롯해 학자, 문인, 사회봉사자, 시인 등 활달한 삶을 살아낸 여성 25명을 발굴·소개함. 또한 「조선 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1994)에서 실학의 범주에서 여성 인물들을 분석함.
 - 김미란이 다룬 경기도 여성 인물은 신사임당, 허난설헌, 이사주당, 이빙허각이며, 정해은은 이빙허각이 저술한 『규합총서』를 다루면서 여성 저술이 지니는 의미를 구체화함.
- 2001년과 2002년에 경기도 여성 인물을 표방하면서 경기도 여성 인물사가 출간됨. ‘경기여성인물을 찾아서’가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시리즈 두 권으로 출간됨.
 - 이 책에 실린 여성 인물은 제1책이 허난설헌, 해평 윤씨, 안정 나씨, 여흥 민씨, 전주 이씨, 혜경궁 홍씨, 이사주당, 서영수합, 이빙허각, 강정일당, 바우덕이, 명성황후, 나혜석, 이선경, 최용신 등임.
 - 제2책에는 염경애,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성들, 공주 이씨, 유한당 권씨, 유점혜와 윤운혜 자매, 안성 장터동 부인들, 삼일만세운동에 나선 수원기생들, 차미리사, 이현경, 박자혜, 오희영, 강덕경 등이 실림.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성들’, ‘안성 장터동 부인들의 국채보상운동’, ‘3·1만세운동에 나선 수원 기생들’ 등 기록에 없는 이름 없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임.
- 경기도 여성 인물 중 연구가 활발한 인물은 이사주당, 강정일당, 나혜석, 최용신, 차미리사 등이며,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여성 지식인들의 학문성취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2007)에서 이사주당, 이빙허각, 강정일당이 연구되었음.

- 이사주당은 태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미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음. 이사주당 개인보다는 조선시대 태교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태교신기』(1801)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한 편임. 강정일당은 2002년에 문집 『정일당유고』가 번역되어 『강정일당』(2002)으로 출간되면서 연구 자료의 밀바탕이 마련되어 연구가 활발한 편임.
-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2012년 ‘나혜석학회’가 발족되어 학술지 『나혜석연구』가 창간됨.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자유여성 또는 신여성으로서의 행보(김경일, 2012), 화가(윤범모, 2012), 생애와 스캔들에 대한 연구(김형목, 2015; 박정애, 2013; 황용건, 2015)로 대별할 수 있음.
- 최용신은 안산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생애와 사상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방면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농촌운동가로서의 삶(김형목, 2007), 1920~30년대 ‘개량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항일 민족 운동가(이덕주, 2003), 여성 운동 관점(김성은, 2011)에서 최용신의 삶과 사상이 연구되고 있음.
- 차미리사에 대한 연구로는 『차미리사전집 1, 2』(2009), 『차미리사 평전 :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2008)도 있어서 차미리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3) 강원지역 여성사

- 지난 10여 년간 공공연구기관의 공백을 메운 것은 2005년 강원도민일보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된 강원여성연구소와 강원도민일보임.
- 강원여성연구소는 강원여성사 관련 자료 수집, 정리 활동을 지속하면서 거의 매년 저작물을 내놓았음. 다른 시대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근현대 시기의 강원여성사 단행본을 발간하고, 학술행사 개최 및 관련 구술사진신문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기초 자료도 미흡하지만 축적해왔음.
- 강원여성연구소는 주로 근대 강원여성생활사를 정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아 단행본으로 발행함. 2006년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강원여성의 삶』, 2007년 『신문기사에 비친 일제강점기 강원여성1(1938~1942년 매일신보)』, 2010년 『역사 문헌에 기록된 강원여성-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2007년 『신문기사에 비친 일제강점기 강원여성2(1920~1929년 시대일보 중외일보 신한민보)』, 2014년 『직업세계에 도전한 초창기 강원도 여성들 자료집』을 펴냄.

- 강원도는 1997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 일환으로 1998년 『조선시대 강원여성 시문집』을 발간하였음. 신사임당, 허난설헌, 김금원, 박죽서, 윤희순 등 조선시대 강원여성이 남긴 한시문이나 한글가사를 엮어 원문과 국역문을 실은 자료집 성격을 띠고 있음(박미현, 2008).
- 2004년 강원도에서 발행된 『강원여성역사인물집-조선시대』는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조선시대 미술, 문학, 학문, 의병사 분야에서 선각자적 활동을 성취한 신사임당, 허난설헌, 임윤지당, 윤희순 네 명에 대한 생애와 활동상, 유묵과 유적을 비롯해 재해석을 가하여 현대적 의의를 추출한 점이 특징임(박미현, 2008).
- 강원도민일보는 2005년 강원여성연구소 설치를 계기로 ‘강원여성 문화유산 지도’ 제작에 이어 단행본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을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여성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연구정리와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 2007년엔 강원도민일보의 박미현이 『테마로 읽는 강원여성문화사』를 여성인물, 유적, 민요, 지명유래, 전설 등을 통하여 여성생활사 이해를 돕는 대중서의 형태로 발간함.
- 강원도민일보에서 2002년 윤희순의 중국내 유적 현장을 심층보도한 ‘독립운동가 윤희순’ 연재, 2013~2014년에 걸쳐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법조 등 각 분야에서 사회 진출을 개척해온 강원여성 1호를 추적한 취재 ‘시대를 연 강원여성’ 15회 기획연재, 2015년 10회에 걸쳐 보도한 ‘항일운동과 강원선각여성’, 2017년 8회에 걸친 ‘동해안 해녀가 사라진다’는 지역여성사 연구 촉진에 자극제가 되었음.
- 학계에서는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발간하였는데 강원여성사와 관련되어 주류를 이루는 것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연구성과임. 신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임윤지당, 김금원, 박죽서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임.
 - 강릉 태생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당대부터 주목받은 여성으로 명망이 높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만큼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연구물이 발표되어 논문 수량은 월등하게 많음.
 - 신사임당 연구는 생애와 일화, 전칭작 규명을 시작으로 교육관과 예술관, 모성성, 콘텐츠 활용, 담론의 변화 등 폭넓음. 허난설헌 연구는 작품내용 분석과 미의식, 작가의식, 사상과 정신, 여성주체성, 비교연구, 공간분석 등 세밀하게 근접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음.
 - 춘천서 한말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한 윤희순은 1980년대 들어 ‘안사람의 병가’ 등 친

필 가사와 회고록 등이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여성예림회 강원도지부, 애국지사유훈순기념사업회, 의암학회에서 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논문이 빠르게 축적되는데 기여함.

- 원주에서 일생을 보내며, 성리학을 연구하여 『윤지당유고』를 남긴 임윤지당 관련 연구는 이영춘의 『윤지당유고』(1998) 국역본 발간 이후 원주시와 원주문화원의 재 국역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가 촉진되었음.
- 강원여성사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시대, 특정 인물 위주의 연구축적은 개별적 이해에 기여했지만 전체 강원여성사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됨. 한문을 주로 쓰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두각을 나타낸, 역사적 여성인물에 집중된 강원여성사 연구 경향은 상층부 문화 정립이나 지식인 여성층에 대한 규명에는 요긴하나 강원여성사회상을 통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강원여성사의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근현대시기 지역 여성생활사 연구
 - 둘째, 당대 발간된 신문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근현대 강원여성의 삶의 모습이나 활동상, 여성 인명 연구
 - 셋째, 근대 이전 강원여성의 삶 추적 연구
 - 넷째, 설화와 지명, 민요와 놀이, 신앙과 풍속 등 민속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재해석하고 젠더 관점에서 분석

4) 충청지역 여성사

- 충청지역 여성사 연구는 비교적 뒤늦은 편임. 여성사 연구의 집대성 작업은 200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한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로 평가할 만함. 이 연구는 고고자료와 유물 유적을 통해 선사시대의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였고, 웅진-사비 시기의 백제여성,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살펴 본 충청지역 최초의 작업임.
- 이 책은 여성 관련 문헌자료, 출신 여성인물, 기존 연구사 등의 참고문헌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여성인물에 대한 조망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충청지역과 관련이 있는 50여 명의 여성들은 왕족 여성, 사대부가 여성, 문학가, 가정 경

영가, 종교가, 독립운동가, 근대 여성교육가 등으로 분류됨.

- 한편, 충청북도의 경우에 2012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여성사: 충북여성의 발자취』를 발간하여, 충북여성정책의 형성과 변화, 충북여성단체의 활동, 충북 여성의 교육·문화예술·정치·경제 분야별 활동과 발전, 언론에 비친 충북여성의 기록을 다루고 있음.
- 또한 2015년 여성발전센터에서 발간한 『충북여성인물사 I: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의 시대 구분 속에서 이사주당, 강정일당과 같은 조선시대의 문인들, 개성3·1 운동의 주역 어윤희, 여성광복군 신순호, 독립운동의 동지이자 아내들이었던 임수명과 박자혜 등을 새롭게 발굴조명함.
- 충청북도의 여성사 연구는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충북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에서 수행되어 옴. 이 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충북의 역사 문화 인물을 집중 탐구하는 포럼과 책자 『충북의 역사문화인물』을 발간해 오고 있음.
 - 충북의 역사 속 인물 중 충북을 발관으로 활동하였던 남성 인물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조선후기 여성실학자 이사주당과 여성성리학자 강정일당을 비롯해, 그동안 근현대 역사 속에 묻혀있던 고명자, 김테레사, 김명숙 등 30여 명의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음.
- 충청지역을 총괄하는 여성사 발간작업은 이처럼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전라지역 여성사

- 전라지역 여성사 연구는 여성문인, 예술인, 가정경영의 생활인, 독립운동가, 교육인, 종교인, 복지봉사, 고전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속 여성인물 연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음.
- 주요하게 연구된 여성문인들로는 순창의 설씨부인, 부안의 이매창, 진안의 김삼의당, 담양의 덕봉 송종개, 해남 녹우당의 광주이씨 등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서서평과 윤학자와 같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연구도 지적해야 함. 독립운동가로는 광주 수피아 여고를 중심으로 조아라, 박애순, 강화선, 이나열, 최경애, 양태원, 고연홍, 김필호, 최수향, 이봉금, 윤형숙 등이 발굴 조명되고 있음.

- 전남은 『광주 전남여성 100년사』 (2012), 전북은 『전북여성 100년사』 (2013)를 각각 발간했음. 전남과 전북 여성 100년사에서는 근현대 여성사 연구가 잘 드러남. 그러나 여성사 발간작업에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통사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임.

6) 대구경북지역 여성사

-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여성에 대한 통사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서 지역여성사 출간이 활기를 맞게 됨(김정숙, 2008).
-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00년 무렵부터 『대구, 경북 근대 문인연구』 (1999)와 『근대 대구와 사람들』 (2013) 등과 같이 일부 저서에 여성들이 포함되는 연구를 시작으로, 조범환의 『우리역사의 여왕들』 (2000), 최흥기 외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2004) 등이 출간됨. 그리고 이 무렵 최미화는 『여성 100년』 을 출간했음.
-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적인 통사 출간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발주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계와 공동 작업으로 『경북여성사』 가 출간됨. 이 책에서는 서구의 자본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전통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미 여성들의 세계가 성장하고 있었던, 실학이 발흥하고 천주교가 도입되던 조선후기 사회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파악하여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함(김정숙, 2008).
-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역여성사의 편찬에 도움이 되는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연구업적이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자료집의 발간도 지속되고 있음(김정숙, 2008).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사』 를 출간할 때 쓰인 자료를 보충하여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 (2005) 세 권을 잇달아 출간함. 또한 『근현대 대구, 경북지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1~3』 (2005) 등 여성 관련 자료집이 잇달아 출간됨.
 - 그 외의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하는 백서들을 주목할 수 있음.
- 한편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논문들 가운데 혼인제도나 친족제도, 가족제도와 같이 여성 관련 일반생활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음. 선행연구 가운데 고대를 다룬 논문이 단연 많았는데, 이는 논문 전체 비율로 보아서도 고대가 월등하지만 타 지역의 연구업적과 비교하면 그 특색은 더욱 두드러짐.

즉 대구경북 지역은 고대의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영향을 논하는 경향이 짙은 곳이라는 점이 부각됨.

7) 부산경남지역 여성사

- 우리나라의 본격적 여성연구는 1970년대 이화여대, 숙명여대에 연구소가 설립되고 1977년 이화여대에 여성학 강좌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음.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후반 부산에도 전해지게 되었음(이송희, 2010).
 - 신라대학(구 부산여자대학교)과 부산대학의 여성학 강좌 개설(1988), 그리고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1989) 부산대학 여성연구소의 창립, 신라대학 대학원 여성학과 설립, 부산대학의 지역여성연구회(1990)의 발족 등으로 이어짐.
- 그리고 이는 부산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로 이어졌고, 부산 지역여성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음.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는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부산지역 여성들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함.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는 부산지역 여성들의 삶을 추적해 보고자 그 기초 작업으로 먼저 일제시기 여성들의 삶을 다룬 『일제하의 영남지역 여성관련 자료집(상)-조선일보 편』 (1997), 『일제하의 영남지역 여성관련 자료집(하)-동아일보·시대(중외)일보 편』 (1999)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음. 그리고 『1990년대 부산지역 여성관련 신문기사 자료집 상』 (2002), 『1990년대 부산지역 여성관련 신문기사 자료집 하』 (2003)등 자료집을 계속 발간하였음.
- 한편, 1990년대 초부터 개인 연구자들의 지역 여성연구와 여성사 연구도 계속 되어 왔음. 개인 연구는 주로 근대 일제강점기로 집중되어 있으며, 근대의 경우 여성교육과 국채보상운동 여성단체 연구가 이루어졌음. 일제강점기는 여성교육, 여성운동, 여성노동운동, 여성인물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신여학교,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여성야학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교육의 전개과정이 조명됨.
-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 부산지역의 여성운동을 여자청년회, 부녀회, 근우회 활동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성노동운동은 조선방직투쟁, 고무공장 여성노동자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여성인물은 박차정, 양한나, 박순천, 권은해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¹⁴⁾

- 여성사와 관련한 자료로는 『부산여성사Ⅰ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2009), 『부산여성사Ⅱ : 역사속의 부산 여성-고대에서 근대』 (2010), 『부산여성사Ⅲ : 역사속의 부산 여성-현대편』 (2011),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2015) 등이 있음.
-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2004)에서도 몇몇의 부산 여성들이 조명되었는데, 박차정, 양한나, 부산진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 등이 그것임. 부경역사연구소는 『시민을 위한 부산 인물사 -근현대편-』 (2004)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권은해, 박순천, 박차정 등이 소개되었음.
-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산광복 60년』 (2006)에서도 해방 이후 부산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정리된 바가 있음(이송희, 2010).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 여성교육기관인 동래여자고등학교와 경남여고가 각각 교지를 계속 발간하여 일제 강점기 여성교육을 알리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교사는 『동래학원 100년사』 (1995)와 『경남여고 90년사』 (2016) 등이 있음.
- 경남 지역에서는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여성사 발간에 착수함. 우선 2011년에 「경남 여성 100년의 삶과 역사」라는 주제로, 경남여성사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 이혜숙, 강인순 등이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1945~2015』를 발간함.

다. 국내 여성연구의 시사점

- 지역여성사 연구는 한국여성사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성사 서술의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분야임. 따라서 지역여성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한국여성사 내지 한국사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음.
- 지역여성사 연구는 각 지역의 개별적 특성 못지않게 공통점을 확인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밝히되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준 일반 조건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예컨대, 조정에서 군역의 증가, 공물이나 특산품 진상의 압박을 강하게 할수록 밭과

14) 근대 일제강점기 여성에 관한 연구는 강대민, 김선미, 이송희, 이종봉, 최경숙, 박선애, 황영주, 정영자, 박재화 등에 의해 이루어짐.

바다로 들어가 노동해야 했던 제주지역 여성들의 경우,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는 예청으로 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되기도 했으나, 효열의 윤리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음.

- 서울의 경우, 모든 부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역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서울여성사의 주요 흐름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실 여성들, 그리고 식민강점기에 전 지역에서 몰려들어 항일투쟁이나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난 신여성들, 즉 엘리트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1996년 지역여성사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로 연결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이 지역에서는 대학이나 정부교육기관의 공백을 한동안 '강원도민일보'라는 신문사와 강원여성연구소가 메꾸었음.
 - 강원도는 1997년 강원도의 열 선양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신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엘리트여성들의 조명작업에 집중되었으며 전체 강원여성의 일반적 삶과 유리되는 경향이 있었음. 최근에 근현대 강원여성의 역사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지는 중임.
- 충청지역의 경우, 연구자들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현실과 맞닥뜨린 여성의 삶에 주목해왔는데, 조선시대의 여류문장가 이사주당, 강정일당, 김호연재를 비롯해, 유관순, 신순호, 박자혜 등 항일투쟁에 참가한 영웅적 여성들을 조명함.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산세가 험하고 타지에 둘러싸인 지형적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전통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비교적 풍부하게 보존되었음. 고대사 연구가 월등히 많아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 연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임.
 - 대구·경북지역 여성인물의 경우, 신문자료, 심화 인터뷰에 기초하는 구술 생애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전통과 현대의 격차 또는 지속성을 해명하기 위해 종부의 삶 그리고 종가문화 연구와 종가포럼을 개최하기도 함.
 - 아울러 여성인물 선양작업의 일환으로 매년 인물이 선정되고 선덕왕, 장계향, 최송설당, 남자현 등을 새롭게 이해하는 작업도 진행 중임.
- 부산·경남의 경우, 고중세사 연구자는 매우 드물고 주로 근현대 연구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부산·경남지역의 여성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개 속에서 시작되었음. 부산지역은 섬유, 피혁, 신발산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임.

- 1987년 6.10항쟁은 지역 여성 노동운동에도 전환의 계기였던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는 다양한 여성인물의 발굴을 이끌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임.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 여성연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인물 연구에 치우친다는 점이 지적됨. 경기지역의 경우, 자신의 저서를 남긴 이사주당, 이빙허각, 서영수합, 강정일당, 권유한당 등을 중심으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강원여성의 경우에도, 신사임당을 위시한 등 조선시대 여성인물 위주의 연구에 집중하여 왔음.
- 지역여성사가 여성인물사에 집중되면서 여성인물의 지역 연고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전근대와 근대, 나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단위가 매우 상이하고 빠르게 변화를 겪었기 때문임. 따라서 해당지역 연구자들은 타지역 연구자들과 공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또한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인물의 발굴에서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큼.
- 또한 지역여성사 연구는 지방자치제 확대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관심은 곧이어 지역 여성의 존재성을 질문하도록 만들었고, 지역여성사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지역여성사는 지역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젠더사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관계성을 드러내는 연구가 거의 없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즉,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여성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여성 관련 연구를 학문 통섭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인물연구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내 여성연구자들의 네트워킹, 나아가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주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크로스 체크하여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여성연구를 더욱 확대강화 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여성사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여성들의 역사 복원 작업을 통해 거대담론에 묻힌 작은 사람들, 즉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해줌으로써 역사의 공백을 메꿈(보충사).
 - 둘째,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이 남아있는 소수 엘리트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역사적 공헌을 드러내줌(공헌사).
 - 셋째, 여성과 여성 간 차이, 지방과 중앙의 차이, 지역과 지역 간 차이에도 시선을 집중하면서, 생활문화사, 구술사, 생애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여성사

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

- 넷째, 지역 여성사 연구에서도 연구방법론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섯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심화연구의 축적을 보여줌. 생존권투쟁으로 시작했으나 식민지 항일투쟁의 큰 획을 그은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이나 여성의 공적 부문 참여 경험과 근대성 획득의 문제 등이 그것임.

제주 여성연구 현황

1.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개요
2. 제주 여성연구 시대별 현황 분석
3. 제주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4.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와 과제

1.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개요

-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제주 여성 관련 연구는 인류학적, 민속학적 관점에서 제주도 연구의 한 분야로 접근했는데, 1960년대 말이 되면서 19세기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 차원의 여성권리를 넘어선 여성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사 연구가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1980년대 들어 연구 범위가 확산되기 시작함.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가 처음 개설되면서 젠더 및 페미니즘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실천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제주지역은 혼인연구를 통한 여성 문제 및 근대화와 연결된 새로운 여성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됨.
-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주에서도 제주 여성들의 생활문화 및 해녀 관련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됨.
- 1980년대 말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등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제주대학교에 대학원이 설치되고 여성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일련의 연구 분야들을 형성함.
- 제주 여성연구는 태동기인 1970년대, 성장기인 19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로 넘어 오면 가히 전성기라 할 수 있음.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이론이 발전하면서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등 여성을 주체적으로 인지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루는 논의가 부각되었음.
- 이와 같은 여성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제주 여성연구의 시대별 현황과 공공 영역에서 수행된 제주 여성정책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시대별 제주 여성연구 현황은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해녀, 제주4·3, 다문화, 문학, 민간영역에서 연구된 여성정책 등을 분석 범위로 하여 시대와 주제에 따라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자 함. 다만 그 연구 분야가 형성되기 이전인 1990년대 이전 연구는 주제별로 분류하지 않고, 시대별로 제시하였음.
 - 해방 후-1960년대 4편, 1970년대 7편, 1980년대 11편, 1990년대 45편, 2000년대 99편, 2010년대 154편 등 총 320편의 여성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부록 1> 참조).¹⁵⁾

- 공공 영역에서 수행된 여성정책 연구 현황은 제주도 직속 기구이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여성정책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였음(<부록 2> 참조).

2. 제주 여성연구 시대별 현황 분석

가. 해방 후 ~ 1960년대

- 해방 후 ~ 1960년대 여성연구는 4편으로 학술논문 3편, 단행본 1권이 있음.
-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경험은 조선의 남녀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었음.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가부장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 일제의 개입 속에서 식민지 여성들의 삶은 새로운 모순 구조 속으로 빠져 들었음(한국여성연구소, 2006).
- 또한 해방 후 이러한 모순 구조를 걷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가치 속에서 한국여성의 삶은 전쟁과 근대화 속에서 총후 부인¹⁶⁾의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모순 구조에 침착하게 됨. 따라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반영한 여성연구가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제주 여성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가 거의 없거나 별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성연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해방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본 학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 인류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일본 학자들이 제주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성연구를 다룬 연구들이 있음.
- 이즈미 세이치(泉晴一)는 제주도를 1935년과 1965년 두 차례 방문하여 조사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濟州島)』(1966)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여 가족, 여성노동력, 부인회 등에 대하여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였음. 이즈미 세이치의 연구는 이후 1970년대 한일 공동학술조사에 영향을 주었음(강경희, 2018).

15)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 대상 목록은 부록으로 처리하였으며, 참고문헌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3장 본문에서 내각주로 처리된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해야 함.

16) 일제 말기 총동원 체제하에서 후방 관리와 총력전, 장기전에 대비한 주체로 가정을 단위로 상정하고, 신여성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구시대적 여성의 정체성을 총동원 체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새롭게 조직화한 개념임. 식민지 한국여성들을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 동원하기 위한 한국여성의 전사화(戰士化)가 주 목적임(Daum 백과사전 인용).

- 제주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도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둔 민속학 분야 등에서 처음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었음. 해녀와 전통혼례와 같은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나타남.
- 1964년 민경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이대사원』 5권에 “한국 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제주 여자는 11~12세만 되면 물질을 하였고, 여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소득을 얻어 남편 등 남성과 사회적 지위에서 있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조사 잠녀 55%가 문맹이며 고무 옷이 보급되기 전인만큼 해녀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음.
- 전통 혼례와 제주도의 처첩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을 볼 수 있음. 김영돈(1968)은 제주 섬사람들의 통과례 중 혼례를 분석하여 『제주도』 33호에 “제주의 통과례-혼례”를 게재하였음. 그의 혼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까지도 이어짐.
- 1960년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근대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근대화 과정과 연결되어 설명됨.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가정경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으며, 가정경영의 주체로 여성이 상정됨. 근대화 가정을 위한 가정경영은 근대 여성이 취해야할 중요 자질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음.
- 이 시기 이차숙(1968: 1023-1037)은 대한가정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권에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적 견지에서 본 제주도의 축첩의 관행”을 분석하여 실었음. 이 연구는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제주여성을 단독 대상으로 한 첫 논문으로 파악되며,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한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남녀 불평등한 법적 문제 제기와 제주도의 축첩 관행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양성 평등한 시각을 반영하려고 한 시도로 보임.

나. 1970년대

- 1970년대 여성연구는 7편으로 학술논문 6편, 학위논문 1편이 있음.
- 1960년대 말에 19세기 여성운동의 전통을 받아들여 다시 시작된 여성운동은 여성사와 여성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음. 고창석(2009)에 의하면 참정권 운동으로 제

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는 신장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전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는 전문 역사가들에 의한 여성사 연구가 시작되었음. 1980년대 본격화된 한국의 여성연구는 제주지역까지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림.

- 1977년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여성학이란 강좌가 처음 개설되었고, 여성학과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여성운동이라는 실천적 움직임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짐. 여성학과 페미니즘이라는 학문과 사상적 경향, 문화풍조는 저항과 진보의 상징에서 자연스러운 사회구조와 제도, 생활양식이 되어가기 시작함(한국여성연구소, 2006).
- 1970년대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들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임. 이 시기 인류학자 및 민속학자들에 의한 제주 여성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이후 인문사회연구 영역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것이 페미니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이 시기 제주 여성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60년대 분위기가 연장된 혼인 연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는데, 김영돈(1973)은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에 혼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실었으며, 강영종(1974)도 제주대학교 『국문학보』 6호에 “제주도의 혼인풍속”에 대하여 게재하였음. 이광규(1974)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에 제주의 혼인의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재석은 제주 여성들의 전통적인 혼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첩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제주 사회 여성들의 혼인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음. 1977년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마을의 혼인의례를 분석한 “제주도의 혼인의례와 그 사회적 의미”를 『아시아 여성연구』 16권에 실었음. 1978년에는 “제주도의 첩 제도”에 대한 연구를 『아시아 여성연구』 17권에 게재함.
- 최재석은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를 비롯하여 가족연구 등에서 수많은 연구를 남긴 사회학자로 제주도의 친족조직 등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관련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학술적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해녀 연구에서 1세대라고 불리는 강대원은 언론인으로서 1960년대부터 해녀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해녀연구(한진문화사)』(1970)를 발간하였고¹⁷⁾ 1973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였음.

17) 강대원(2001) 『제주잠수권익투쟁사』도 있음.

- 한편 1970년대는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되었던 시기로, 여성들의 신체와 출산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던 시기임. 따라서 이 시기 가족계획의 관점에서 미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가 하나의 연구 유행이 되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오익성(1976)이 제주도내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혼여성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미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 제주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음.
- 이듬해인 1977년에는 현선이가 제주시내 일부 지역 기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기혼여성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를 발표하였음. 또한 고금자(1979)는 제주지역 직업여성들의 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하여 “일부 직업여성들의 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조사”를 발표하였음. 전국적으로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연구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제주지역의 여성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음.
- 이 시기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의복생활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되어, 양남순(1976)은 주부와 여교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제주도 여성의 의생활의식에 관한 연구”를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4권 4호에 발표함.
- 강병찬(1977)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종교계, 교육계, 경제계 등 제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였는지 살펴보고 있음. 이 논문에는 출가해녀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 해녀는 수산업의 구성원이자, 관광자원으로 대상화되기 시작함. 바깥물질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활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제주 해녀에 대한 견제와 고의적인 폄하가 공공연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조혜정의 잠녀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작으로 학문분야에서 ‘잠녀학’, ‘해녀학’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함. 이후 김영돈을 비롯하여 한림화, 고창훈 등의 연구가 있음.

다. 1980년대

- 1980년대 제주 여성연구는 1970년대 보다 분야가 확장되어 여성문화사 연구를 비롯하여 해녀 연구, 문학 등의 분야 구분이 가능해짐.
- 1980년대 여성사 연구는 11편으로 학술논문 7편, 학위논문 4편이 있음. 주제별로는 여성문화사 연구 4편, 해녀 3편, 문학 4편임.

1) 여성문화사 연구

- 1980년대 연구물 중 제주 여성문화사는 의복과 여성규범을 논의 범위로 포함하였음.
- 197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들의 신체와 출산,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의복과 여성의 역할 및 규범에 대한 연구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이 시기 조진숙(1986)은 “제주도 성인 여성의 의복 구매형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5권에 발표하였음. 고부자(1986)는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를 『제주도연구』 3집에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는 제주도 여성들의 하의(下衣)에 대하여 민속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조사 정리하였음.
- 최희순(1988)은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분석한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 의 관계”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한정운(1986)은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음.

2) 해녀 연구

- 1980년대 들어 해녀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 전통을 잇는 한편 학제적 연구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임. 민속학적 측면에서 김영돈(1986)은 『제주도연구』 3집에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연구”를 통해 해녀 연구에 대한 민속학적 측면을 조명하였지만, 실상 해녀 연구가 민속학적, 인류학적 측면만이 아닌 경제학적, 문학적, 음악적, 법사회학적,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 등이 결합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이러한 입장은 이후 연구들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함.
- 융복합적 입장에서 해녀를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1986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

는데,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1986) 등은 “해녀조사연구”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5권에 발표하였음. 이 연구는 해녀의 경제적 측면과 법사회적 측면, 민속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공동어장에 입어할 수 있는 권리나 공동작업 효율을 위한 해녀회 조직, 입어권 분쟁 등에도 주목하였음.

- 박양생(1985)은 “한국해녀의 생리학적 특성: 잠수 양상 및 에너지 대사에 관하여”를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2집에 발표하면서, 해녀의 생리적 특징을 조명함.
- 사회학적 측면에서 1988년 조혜정은 해녀와 근대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를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 지성사)』에 발표함. 이 논문은 1982년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실렸던 “제주도 해녀사회연구”를 다시 조사하여 추가해 보완한 것임.

3) 문학 연구

- 제주 여성연구에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1980년대 들어서서 여성과 관련한 민요, 무속과 같은 분야들에서 여성연구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오출세(1981)는 제주도 부요를 중심으로 민요에 나타난 여성을 분석하여 “민요에 나타난 여성”을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33권에 발표하였음.
- 김영돈(1982)은 제주도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민요 연구”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같은 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 논문집』 12권에 “제주도 여성노동요에 드러난 도민(島民) 의식”을 다시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제주의 대표 민요인 ‘뗏돌·방아노래’, ‘해녀노래’, ‘오돌또기’에 대한 분석을 실었으며, 민요 속에서 제주문화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음.

라. 1990년대

- 제주지역에서 여성연구가 뚜렷하게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임. 이 시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제주대학교 내의 대학원 설치, 제주대학교 등에서 여성과 관련된 교과목들의 설치 등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여성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시기에는 여성사를 비롯하여 여성문화사 연구, 해녀 연구, 제주4·3, 문학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여성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함.
- 1990년대 여성연구는 45편으로 학술논문 29편, 학위논문 12편, 단행본 4권이 있음. 주제별로는 여성사 3편, 여성문화사 22편, 해녀 6편, 제주4·3 3편, 문학 9편, 여성정책 2편임.

1) 여성사 연구

- 여성주의 입장에서 과거의 여성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 연구에서 배제된 여성문제를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이며 역사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이 이 시기에 대두됨. 김은실(2009)에 의하면 이 문제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며, 기존의 기록된 역사적 자료에 기반 하여 수행되는 역사연구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주제로 등장하지 못하였던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됨.
- 이러한 문제 제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요 주제로 부상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우선 기록된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여성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1990년대 말에 접어들어, 여성사 분야에서 제주의 역사적 사건들이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김인덕(1999)은 일제 강점기 제주 출신 제일 여성 활동가들의 투쟁을 연구하여 “일제시대 제주 출신 제일 여성 활동가들의 투쟁”을 『제주도사연구』 제8집에 게재함. 양철호(1999)는 “천주교의 전래가 제주 근대 여성교육에 미친 영향”을 통해 제주 여성 교육의 근거를 보여주었음.
- 이창기(1997)는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분석하여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을 『제주도연구』 14집에 실었는데, 이 연구에서 오늘날 제주도 가족제도

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제주도에 자리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음. 즉, 19세기 말 제주도의 여성들은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며, 조혼이 많지 않고, 축첩이 이미 19세기 말에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양반문화와 달리 여성노동력이 중시되는 제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분석하였음.

2) 여성문화사 연구

- 1990년대 연구물 중 제주 여성문화사는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가족, 출산, 건강, 복지, 직업, 여성노인, 의식 및 정체성 문제 등을 논의 범위로 포함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 여성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제주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서 김혜연(1996)은 『제주리뷰』 1호에 여성단체 네트워크 운동에 의한 여성들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를 게재하였음. 이전 시기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 네트워크 및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제도의 영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 강성의(1994a; 1994b)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이 연구를 발전시켜 같은 해 『여성학논집(1994b)』 11권에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음. 이듬해인 1995년에는 “제주도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연구하여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12집에 발표하였음. 이 연구들은 당시 관광중심의 제주개발이 제주여성생활문화의 변화에 일으킨 사회경제적 환경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 논점을 제시함. 그 외 김혜연이 『제주리뷰』 2호에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여성의 경제활동” 글을 발표하였음.
- 제주의 가족 안에서 여성들을 살펴보는 논문들이 이 시기 나타나는데, 김효심(1992)

은 제주지역에서 “조모의 역할 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연구”를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1권에 게재하였으며, 김혜숙(1992)은 제주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를 제주대학교 『논문집』 34권에 게재하였음. 이후 김혜숙(1999)은 제주대학교 출판부를 통하여 『제주도 가족과 켄당』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제주도 가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제주 여성들의 출산, 건강과 관련하여 강문정(1993)은 여성건강간호학회 『모자간호학회지』 3권에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고양숙(1993)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체지방과 비만 등에 관심을 두고 “제주지역 성인 여성들의 연령별 체지방율의 차이와 열량 섭취 및 소비량에 관한 조사 연구”를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6권 4호에 발표함. 같은 해 “신체 계측값을 이용한 제주지역 여성들의 비만실태 조사 연구”를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권 1호에 발표하였음. 1998년에는 이경희와 신혜숙이 제주지역 여성들의 “산육기 여성 경험”을 여성건강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권 2호에 발표하였고, 김효실(1999)은 제주지역 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제주 여성의 부인 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장순, 고정순, 김효선(1999)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권 5호에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여성의 영양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음.
- 제주도 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변화가 있는 만큼 제주 여성들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구남철(1998)은 제주지역 “산업계 여고생들의 진로지도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양옥진(1999)은 공무원과 금융직에 종사하는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제주 기혼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음.
- 199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여성 노후 및 노인문제에도 관심이 발생하면서 홍숙자(1995)는 제주지역의 “중년기 여성의 노후계획에 관한 연구”를 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임소현(1998)은 제주지역 “여성노인의 자활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을 발표하였음.
- 변화하는 시기 제주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변화는 의식 및 정체성 연구로 이어지는데, 김

미량(1996)은 제주지역의 “여성과 TV매체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음. 이 시기 전문가 그룹인 최병길, 권귀숙, 강상덕, 김현돈, 한석지, 박찬석(1998) 등은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면서 제주 지역 여성 정체성 변화 연구를 시도하였음. 이는 『제주도연구』 15집에 발표되었음.

- 이 외에도 고애란과 홍희숙(1995)은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품에 대한 혜택 세분화와 정보원 사용 및 상점선택 행동연구” 등을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에 실었으며, 고의숙(1998)은 “제주지역 남·여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을 발표하였음.

3) 해녀 연구

- 1986년에 이루어졌던 김영돈 외(1986)의 해녀조사연구 이후 1996년 김영돈·고광민·한림화는 공저로 『제주의 해녀(제주도)』를 출간함. 또한 김영돈(1999)은 『한국의 해녀』에서 문화인류학적, 민속학적, 경제적, 생리학적, 의학적, 해양과학적, 구비문학적, 법사회학적, 어학적, 여성학적 관점 등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권귀숙(1996)은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논문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0권에 게재함. 이 연구는 해녀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보여준 첫 연구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해녀 연구를 하는 후학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유철인은 구술사를 통하여 해녀생애사에 접근하였는데, 1998년 『한국문화인류학』 31-1호에 “물질하는 것도 머리 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를 발표하였음.
- 여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서 해녀 이미지에 대한 첫 연구가 나타났는데, 안미정(1998)의 『제주도연구』 15집에 실린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연구가 바로 그것임. 이 연구는 안미정(1997)의 석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한 것으로, 그는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해녀 자신들은 재현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음.
- 이 시기 이러한 연구들은 해녀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양숙연(1994)은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음.

4) 제주4·3 연구

- 1980년대 말 한국사회의 민주화 분위기는 학문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제껏 소외되었던 분야와 연구방법에서 민중사를 연구할 수 있는 구술사 영역이 부상하였음.
-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어, 김성례(1998)는 제주4·3을 중심으로 한 “국가폭력과 여성의 체험”을 연구하여 『창작과 비평』 26권에 실었음. 이는 이제껏 전쟁사가 남성중심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가폭력의 경험을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중요 논문이 되었음.
- 제주4·3은 지난 40여 년간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탓에 이 시기에 연구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과 여성 관련 첫 학위논문이 배출됨. 이정주(1999)는 4·3을 경험한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하고, 이 논문을 더 발전시켜 『여성학논집』 16권에 게재하였음.
- 이 시기 구술사는 기록이 전무한 제주 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중요 방법으로 부상하였으며, 여성주의 글쓰기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었음. 제주4·3이라는 국가폭력과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으로서, 남성중심적 분석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5) 문학 연구

- 1900년대 제주 여성과 관련된 문학 연구는 두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속이고 다른 하나는 해녀임.
- 무속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서경림(1998), 이경하(1999), 좌혜경(1998), 한창훈(1998), 허춘(1996; 1999) 등이 있으며, 해녀와 관련하여서는 한창훈(1999a ; 1999b) 등이 있음. 이들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혹은 국문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학자들로, 주로 제주의 무속에서 여성의 위상이나 서사양상, 이미지 등을 분석하였음.
- 서경림(1998)은 특이하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의 『법과 정책』 4권에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 신화와 여성의 위상”에 대하여 분석한 글을 실었으며, 이경하(1999)는 한국구비문학회에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에 대하여 『구비문학』 9권에 실었음. 좌혜경(1998)은 제주설화의 자청비를 분석하여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13권 1호에 실었으며, 허춘(1996; 1999)은 제주 설화에 나타난 여성연구에 관심을 두고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고(女性考)”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지 『탐라문화』 16권에 게재하였음. 이후 제주학회 학술지 『제주도연구』 16집에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를 게재함.

- 한창훈(1998)은 『제주도연구』 15집에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을 분석하여 게재하였으며, 1999년에는 제주해녀들의 생활과 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잠수의 생활과 관련하여” 논문을 『여성문학연구 (1999a)』 창간호에 발표하였음. 같은 해 “제주도 잠수들의 생활과 민요”를 『탐라문화(1999b)』 20권에 발표하였음.
- 민속학적인 주제 외에 현대 소설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물들이 나왔는데, 김동윤(1999)은 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 여성”을 분석하여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1권에 게재하였음.

6) 여성정책 연구

- 1990년대 제주 여성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임. 중앙 및 지방 정부, 농어업관련 공공기관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는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 1997년에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주관으로 『21세기 제주 여성 발전을 위한 제주 여성 의식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은희(1998)는 “제주도 여성정책 기 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을 발표하였음.
- 1990년대의 제주 여성정책에 대한 이러한 토대는 2000년대 정책 연구의 토대가 됨.

7) 1990년대 여성연구 현황 분석 결과

- 1990년대 제주 여성연구는 이전에 비해 연구성과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연구의

가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1990년대 초반에는 제주 여성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제주4·3, 해녀, 무속 등으로 이동하면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여성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생활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이전과 달리 여성의 정치 및 경제 활동을 비롯하여 제주 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해녀 연구에서 융복합 연구가 제안되고 있으며, 젠더적 관점이 연구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제주4·3과 관련하여 전쟁의 경험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 동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음.
- 전체적으로 1990년대는 제주 여성연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시작되어, 젠더적 관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러 주제들로 확산되는 시발점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였음. 대표적으로 구술생애사적 접근들이 이 시기 여성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모색되기 시작함.

마. 2000년대¹⁸⁾

○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는 99편으로 학술논문 71편, 학위논문 8편, 단행본 20권이 있음. 주제별로는 여성사 14편, 여성문화 8편, 여성문화사 23편, 해녀 15편, 제주4·3 4편, 다문화 5편, 문학 27편, 여성정책 3편임(<표 3-1> 참조).

<표 3-1>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

(단위:편/권)

주제별		학위논문 수	학술논문 수	단행본 수	합계	
여성사 연구			4	10	14	
여성문화 연구		1	2	5	8	
여성문화사 연구	정치	1	1		2	
	경제/직업		6		6	
	교육		1	1	2	
	가족제도		1		1	
	성방언		3		3	
	생활사	1	7	1	9	
해녀 연구		3	11	1	15	
제주4·3연구			4		4	
다문화연구			5		5	
문학연구	현대문학			3	3	
	구비 문학	설화	1	10	1	12
		민요	1	11		12
여성정책연구			2	1	3	
합계		8	71	20	99	

18)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 분석은 문순덕(2009/2018)을 참조하였음.

1) 여성사 연구

- 2000년대 여성사 연구는 14편으로 학술논문 4편, 단행본 10권이 있음.
- 제주의 전근대시기와 근대시기 여성사 정립을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했으며, 그 일환으로 『제주여성사료집 I』(2007)과 『제주여성사료집 II』(2008a)가 발간되었음. 이 사료는 제주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2권의 『제주여성사』 편찬에 활용되었음.
 - 『제주여성사료집 I』은 관찬사료인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읍지·문집류인 <충암집, 남사록, 규창집, 탐라지, 남사일록, 남천록, 지영록, 탐라계록초, 남환박물, 북헌집, 정헌영해처감록, 대정현아중일기, 속음청사, 김만덕 사료>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 관련 있는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제주여성사료집 II』는 개화기(1876년) 이후 발간된 국역 사료 중에 <조선비망록, 조선기행, 켄테의 제주도 기행기, 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제주도의 옛 기록, 제주도의 경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20세기 전반기 제주도, 조선총독부관보 중 제주록, 한라산기행, 제주도실기, 해녀항일투쟁 관련 신문기사, 천주교구사 서간집, 수신영약, 탄원서와 경력> 등 제주 여성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여성사의 주제로 열녀도 부각되었는데, 한국사에서 열녀라는 가족제도는 여성사의 주요 주제로 논의되어 왔음. 이에 제주 열녀들의 삶을 통해서 여성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문순덕, 2007), 열녀들의 이야기는 사료, 읍지류, 비문은 물론 구비문학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음.
- 『제주여성사 I』(2009)는 선사시대부터 1910년까지 주제별로 엮었으며, 제주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주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 제주 여성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생애사 연구도 중요한데, 2000년대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편의 단행본이 발간됨.
- 근·현대 제주 여성의 생활문화사를 알 수 있는 생애사 자료는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 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2004)가 있음.
 - 제주의 근·현대사를 경험한 여성들의 일상생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생애의 굴곡, 제주 사회의 다양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주 19명, 서울 4명, 부

산 16명, 일본(오사카) 13명 등 52명의 이야기가 수록됨.

- 또한 근·현대 제주 여성 인물을 직업군별로 정리한 『제주 여성 1호 찾기 : 시대를 앞서간 제주 여성』(2005)가 있음.
 - 44개 직업군을 선정하여 '교육·종교, 정치·행정·법조, 언론·문화·체육, 의료·보건·복지, 경제' 등 5개 분야에서 41명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의 생애사를 정리하였음.
- 『제주 여성의 생애, 살았지만 살았주』(2006)에서는 16명의 생애사를 통해 근·현대 제주도의 사회제도, 가족제도, 산업구조, 경제활동, 여성의 역할 등을 보여주며, 이외에도 10명의 여성 무형문화재¹⁹⁾ 장인들의 생애사를 기록한(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b) 연구가 있음.
- 실존 인물인 김만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의 가치를 알려주는 연구로는 『김만덕 자료집』이 있음. 또한 김만덕을 문화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음(손달래, 2008 ; 정창권, 2007).
- 이 외에도 여성호주를 다룬 경우(김경란, 2007), 전근대시기 외부세력의 침입과 제주 여성의 관계(김일우, 2008) 등을 다룬 연구가 있음.

〈표 3-2〉 『제주여성사 I』의 목차

목 차	내 용
제1편 제주여성사의 관점과 방향	· 제주여성사의 이해, 여성사란 무엇인가, 역사 속의 제주 여성
제2편 제주 여성의 역사적 지위	· 제주의 창조여신들, 성리학과 제주 여성, 제주해녀사, ·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전근대 제주진입의 외부세력과 제주 여성, 유배의 땅과 제주 여성, 출륙금지와 제주 여성, 제주의 관방시설과 제주 여성, 봉건적 굴레를 넘은 여성 김만덕, 제주기녀 또 하나의 제주 여성] · 고문서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위치 [고문서를 통해서 본 제주 여성, 조선후기 호적중초에 나타난 제주 여성]

19)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는 김인(제4호 갓일), 장순자(제4호 갓일), 이수여(제66호 망건장), 김혜정(제67호 탕건장 조교) 등 4명이 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송옥수(제12호 고분양태), 김을정(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제11호 고소리술), 강등자(제1호 해녀노래), 김경성(제10호 멀치후리는노래), 이명숙(제16호 제주농요), 진선희(제17호 진사테소리) 등 6명이 있음.

제3편 분야별 제주여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농업활동과 제주 여성, 상공업활동과 제주 여성] · 문화 [제주 여성의 음식살이, 제주 여성의 주거공간, 복식문화를 통해 본 제주 여성] · 종교 [민간신앙과 제주 여성, 불교와 제주 여성, 크리스티교(천주교·개신교)와 제주 여성] · 통과의례와 제주 여성 [출생의례, 혼인의례, 상례, 제례]
------------------	---

2) 여성문화 연구

- 이 시기 제주 여성문화 연구물은 8편으로 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2편, 단행본 5권이 있음.
- 여성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여성문화활동(예술 중심)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었음.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바라보고, 여성의 일상적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주의문화관이 형성되었음.
- 제주 여성문화 영역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연구물은 거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이 주를 이룸.²⁰⁾
- 2001년에 발간된 『제주여성문화』는 여성의 시각으로 ‘민요, 신화, 가족제도, 혼례, 여성어, 의생활, 식생활’등을 분석하여 제주 여성의 위상, 제주의 사회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유익함.
- 또한 『제주여성전승문화』(2004)에서는 제주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치열한 생활상을 고찰하여 ‘세시풍속, 통과의례, 제주의 여성신들, 재일제주 여성, 제주 해녀’등 신화 시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생활문화의 논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음.
- 『제주여성문화-개념정립보고서』(2006)²¹⁾에서는 본격적인 제주 여성문화 연구를 위해서 여성문화의 개념 정립, 연구 범위와 대상 선정, 연구 방향 제시 등 기초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음.
- 문화유적이라 하면 역사성을 기본으로 하고, 주로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20) 문순덕(2009) 참조.

21) 이는 행정기관에서 제주 여성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연구물임. 이 연구물을 기초로 해서 2007년~2009년 제주 여성문화사업이 정책에 반영되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0년 1월 13일 개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전신임) 내에 있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는 여성사와 생활문화사가 반영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음.

여성들이 조력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생산된 유적지를 여성 문화유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음.

- 『제주여성문화유적』(2008b)에서는 제주도와 부속섬(우도, 추자도,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을 대상으로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여성문화유적을 조사하고 기록함.
- 또한 『여성문화유적100』(2009a)는 『제주여성문화유적』에 기초하여 선정기준을 정한 후에 100곳을 세밀하게 조사·기록하였음.
 - 최종 선정된 유적은 물통(20개), 신당(34개), 불터(5개), 인물(9개), 소금밭(4개), 제주 4·3유적지(4개), 역사유적지(5개), 원담(1개), 방사탑(1개), 도대불(1개), 말방아(1개), 신화·전설지(4개), 기타(6개), 도서지역(5개) 등임.
- 제주 여성문화연구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단행본이 주를 이루며, 개인 연구물은 드문 편임.

3) 여성문화사 연구

- 제주 여성문화사는 정치, 경제/직업, 교육, 가족제도, 제주방언(성방언), 사회제도, 생활문화 등을 논의 범위로 포함하였음.
- 2000년대 여성문화사 연구 실적을 보면 총 23편이며 학위논문 2편, 학술논문 19편, 단행본 2권이 있음. 영역별로는 정치 2편, 경제/직업 6편, 교육 2편, 가족제도 1편, 제주방언(성방언) 3편, 생활문화 9편임.
- 정치와 가정의 양립 유지에 노력하는 여성정치인(김명실, 2004), 여성의 사회교육참여 기회 확대(고보선, 2000) 등이 연구 핵심어로 나타남.
- 또한 제주 여성의 직업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고재문, 강순민, 2008 ; 김진영, 남진열, 2006), 일·가정 양립에 처한 상황(임진형, 2007)을 알 수 있음. 또한 경제활동 참여(허정옥, 2002)와 일제강점기 경제활동으로 해녀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진관훈, 2004), 여성농민의 복지 향상이 중요하다는(김진영, 2001) 관점이 있음.
- 제주도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음(김건태, 2009).
- 여성과 관련이 있는 성방언을 다룬 연구는 주로 여성 화자의 호칭어(김미진, 2006), 신문광고에 쓰인 여성대상어(문순덕, 2005)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다루었음.

-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 여성들의 사회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제주 여성교육문화센터 35년』(2004)가 있음. 이 연구는 제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여성회관> 설립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²²⁾ 운영까지 35년간 추진된 교육과 활동 실적이 기록되어 있음.
- 제주 여성문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주 사회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되어 여성문화사 연구에 일정부분 기여한 편임.
- 2000년대 여성문화사의 주요 주제는 생활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학술논문, 사진자료집 등 단행본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제주 여성의 문화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한정적이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사진과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사진자료집』(2001)에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제주 여성의 ‘생활(53건), 경제(47건), 교육(47건), 문화(55권)’ 등 4가지 주제에 총 202건의 사진자료가 수록됨. 이 연구의 후속편인 『사진자료집 2』(2003)에서는 20년간(1980~2000) 제주 여성의 주도적 역할과 조력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사회 격변기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 제주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읽을 수 있음.
 - 이 자료집에는 사회(22건), 생활(49건), 경제(42건), 교육(24건), 문화(21건), 복지(19건), 부록(98건 : 만화-18, 광고-47, 신문기사-33) 등 7가지 주제에 총 275건이 수록됨.
- 제주 여성문화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물 이 외에도 『군제 60주년 남제주화보집』(2006)²³⁾,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2』(2009)²⁴⁾ 등이 있음.
- 『신문기사자료집 :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2002)는 제주도에서 신문이 발행된 1945년~1970년대 기사를 자료화해서 ‘사회·생활, 경제, 교육, 문화, 광고’ 분야에서 여성문화사를 읽을 수 있는 기사를 발췌해서 편집되었음.
-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2007a)에서는 주거공간, 노동공간, 의례공간, 신앙공간 등을 통시적 관점에서 다루었는데 이는 근·현대에 초점을 두고 제주 여성들의 가정과

22) 제주도의 여성 기관인 여성회관이 개관되었고(1969년 10월),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교육문화센터(1997년 3월~2006년 6월 30일)로 개칭되었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개편되었고(2006년 7월 1일), 2010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룸.

23) 이 화보집은 일제강점기부터 2006년까지 남제주군의 발자취와 시대상을 반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이는 2006년 7월 1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편입됨으로써 남제주군 시절의 역사를 기록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24) 이 자료집은 1900~2006년(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7월 1일 직전까지)에 걸쳐 제주지역의 ‘정치·행정, 산업·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체육’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진자료를 수록하였음.

사회에 대한 태도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기여도, 여성들과 관련이 있는 사회제도 등을 확인하게 해 줌.

- 이 외에도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와 조력자의 역할, 위상 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음(문순덕, 2002).

4) 해녀 연구

- 2000년대 발표된 15편의 해녀 연구에는 학위논문 3편, 학술논문 11편, 단행본 1권 등이 있음.
- 주요 주제는 해녀의 경제활동, 출가해녀의 다양한 활동, 해녀투쟁의 역사, 해녀들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해녀들의 생활사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현대 제주 출가해녀의 활동(좌혜경, 2005 ; 권미선, 2008), 어장 분쟁 양상(안미정, 2006), 일제강점기 해녀항쟁의 주체와 의미(박찬식, 2007 ; 허호준, 2007), 해녀업의 실상(정광중, 2002), 일본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좌혜경, 2002), 해녀 어장 관리와 자원 보존 방안(안미정, 2007 ; 변진희, 2008), 해녀업의 지속가능성(김영돈, 2000), 해녀들의 의례 지속성(강소진, 2005), 해녀들의 생애사와 노동의 가치(이성훈, 2005)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 전반적으로 해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양상을 통해 여성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해녀문화의 기초를 다루고 있음.

5) 제주43연구

- 제주4·3과 여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물은 4편의 학술논문이 있음. 제주4·3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증언자의 구술자료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기억이 기록되어 있음.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지 않았음.
- 여성의 시각으로 제주4·3을 기억하고, 험난하게 살아온 여정이 드러나는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경우(권귀숙, 2004), 국가 폭력과 성정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김성례, 2001), 여성 생애사를 통해 제주4·3의 경험을 다룬 경우(박경열, 2009 ; 유철인, 2004) 등이 있음.

6) 다문화 연구

- 제주 여성연구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다문화 관련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을 주제로 한 것과 제주 여성이 국외로 이주한 것이며, 모두 5편의 학술논문이 있음.
- 김수연(2009)에서는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또한 유소영(2009)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를 조사한 후,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염미경·김규리(2008)에서는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들의 적응 과정과 가족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제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점검하였음.
- 안미정(2008)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 사회를 떠나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고 정착한 제주 여성들(조선시장 중심 조사)의 생활사를 다루었음.
 - 이 연구를 통해 재일제주인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 제주라는 고향과 유대관계 정도, 고향에 대한 기대와 회한 등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민족성 확인 방법을 짐작할 수 있음.

7) 문학 연구

- 2000년대 여성 문학 연구물은 27편으로 학위논문 2편, 학술논문 24편, 단행본 1권 등이 있음. 현대문학 3편에 비해 구비문학은 24편으로 아주 많은 편임. 구비문학에 속하는 설화(신화, 전설) 12편, 민요 12편이 있음.
- 현대문학인 경우 장안순(2008)에서는 『이카이노이야기(猪飼野物語)』에 나타난 제주 여성을 다루었고,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제주해녀(김동윤, 2002), 자청비 설화가 현대소설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루었음(김동윤, 2009). 구비문학 분야에서 여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에는 설화(신화, 전설), 민요(노동요-해녀노래) 등이 있음.
- 무속신화의 주인공은 여신들이 많은 관계로 제주 여신들의 위상, 역할 등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은 편임.
 - 세경본풀이 주인공(자청비)의 역할(김정숙, 2002 ; 강진옥, 2005 ; 송태현, 2009), 문전본풀이의 악인형 캐릭터(길태숙, 2009 ; 이지영, 2006), 감은장아기의 기질(이인경, 2008), 제주 신화의 여성성(조현설, 2003 ; 김현선, 2004 ; 최진원, 2007) 등이 논의됨.

- 제주도 노동요 중에 여성 노동요가 많은데, 이는 제주 여성들이 밭일과 바닷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고, 노동요 중에서도 해녀노래가 주를 이룸.
- 김수정(2008)에서는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대상으로 제주 여성의 의식과 생활상을 분석하였음. 이 노동요에는 제주 여성들의 자립, 근면, 시집살이, 가사노동 참여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 ‘해녀노래’는 주로 사설 분석, 가창 방식, 전승과정 등 문학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를 보여줌(이성훈, 변성구, 조규익 등이 대표적임).

8) 여성정책 연구

- 2000년대 여성정책을 다룬 연구물은 3편이며, 학술논문 2편과 단행본 1권이 있음.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분석한 연구(염미경, 김수연, 2007), 지역성의 관점에서 제주 여성정책을 다룬 연구(장화경, 2004) 외에도 제주도 보육정책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임진형, 2007)가 있음.

9) 2000년대 여성연구 현황 분석 결과

-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물 총 99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문학(구비문학 중심) 등의 연구 실적은 많은 편임. 이 외에도 제주해녀문화를 대표하는 해녀 연구, 제주현대사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 제주4·3 연구, 외국인의 이주가 빈번해지면서 형성된 다문화 분야 등이 연구되었음.
- 200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제별 편중이 나타났음. 이는 연구자의 관심도와 관련 분야 연구자의 수로 볼 수 있음. 또한 연구 주제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음. 그 외 주제들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더디게 연구되는 한계가 있음.
- 2000년대 여성사와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관련 연구물이 집중된 것은 전담기구, 전문 인력과 예산, 행정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제주 여성연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양성은 물론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2010년대

- 2010년대 여성연구는 154편으로 학술논문 108편, 학위논문 21편, 단행본 25권이 있음. 주제별로는 여성사 15편, 여성문화사 29편, 해녀 30편, 제주4·3 5편, 다문화 30편, 문학 41편, 여성정책 4편임(<표 3-3> 참조).

〈표 3-3〉 2010년대 제주 여성연구 현황

(단위: 편/권)

주제별		학위논문 수	학술논문 수	단행본 수	합계
여성사 연구		3	9	3	15
여성문화사 연구	정치	2		2	4
	경제/직업	1	4		5
	사회(복지)제도	1	4	1	6
	성방언	1	2		3
	생활사		4	7	11
해녀 연구		3	18	9	30
제주4·3연구			5		5
다문화연구		8	20	2	30
문학연구	현대문학			3	3
	구비문학	설화	1	32	33
		민요	1	3	1
여성정책연구			4		4
합계		21	108	25	154

1) 여성사 연구

-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로 넘어오면 여성사 연구는 인물 중심의 연구가 확대되는데, 이 시기 연구 실적은 학위논문 3편, 학술논문 9편, 단행본 3권 등 총 15편이 있음.
- 『제주여성사Ⅱ : 일제강점기』(2011)는 『제주여성사Ⅰ』의 연장선에서 발간되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음.

〈표 3-4〉 『제주여성사Ⅱ : 일제강점기』의 목차

목 차	내 용
제1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 여성의 의식 변화, 인구변동과 제주 여성의 삶, 근대법(민법)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2편 근대민족교육과 여성	· 신식 여성교육기관의 등장, 야학과 개량서당, 여성교육 확산과 유학생의 등장
제3편 항일과 자각	· 민족자각과 독립운동, 해녀항일운동, 강제동원과 공출, 항일 인물
제4편 출가해녀	· 국내 출가해녀, 국외 출가해녀
제5편 노동과 시장	· 농업과 여성노동, 상공업과 교역활동, 제일 방적 여공의 노동과 생활, 임노동자의 삶
제6편 신앙	· 무속신앙, 기독교, 불교, 신종교
제7편 풍속의 변화	· 통과의례, 혼인문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범죄 유형과 통제

- 여성 인물로는 김만덕 관련 연구물이 많은 편이고, 또한 김만덕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드라마, 뮤지컬 등이 있음. 특히 김만덕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김만덕기념관>이 개관(2015. 05. 29.)됨으로써 제주 여성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
- 김만덕을 재조명한 연구(문순덕, 박찬식, 2012), 김만덕의 정신을 집약한 연구(이정화, 2015), 김만덕의 기업가 정신 연구(양성국, 김봉현, 2012), 김만덕의 경제활동 재조명 연구(양정필, 2017), 김만덕의 콘텐츠화 연구(안숙현, 2011 ; 양진영, 2017) 등이 있음.

- 또한 최정숙의 항일운동 참여(한금순, 2015)와 콘텐츠화(이재섭, 2016) 연구가 있으며, 2010년대 여성사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구술생애사 연구(유철인, 2011/2017)와 재일조선인 여성의 생애사를 다룬 연구(송연옥, 2015) 등이 있음.

2) 여성문화사 연구

- 여성문화사의 범주로는 정치, 경제 및 직업, 사회(복지)제도, 제주방언(성방언), 생활사 등이 속하여 총 29편을 분석하고자 함. 29편에는 학위논문 5편, 학술논문 14편, 단행본 10권 등이 있음. 영역별로는 정치 4편, 경제/직업 5편, 사회(복지)제도 6편, 제주방언(성방언) 3편, 생활사 11편 등이 있음.
- 제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문순덕, 김진호, 201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현정화, 2014), 제주 여성 리더십의 가치 조명(김미혜, 20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양성평등 의정역량 강화 방안(고지영 외, 2018) 등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등 4편이 있음.
- 제주 여성의 경제 활동을 다룬 연구는 일제강점기 재일본 공장 노동자로 취업(서지영, 2010), 오사카 재일조선인 집성촌 거주 여성들의 이야기(변화영, 2011) 등 국외 이주 여성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을 다루었음.
- 여성 직업 교육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고은주, 김혜연, 2010)와 여성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다루었음(김영희, 2010 ; 윤원수 외, 2013).
- 여성을 구별하는 언어인 성방언 연구를 보면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호칭어의 쓰임을 통해서 제주 사회의 성별 인식을 다루었음(문순덕, 2010a). 또한 여성 화자가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 연구(김미진, 2010),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발화 상황 조건(음운, 형태, 통사 등)을 남성 발화와 비교연구(김미진, 2015) 등이 있음.
- 제주 여성들의 사회참여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제주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2014)는 여성들이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시기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 다음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측면을 알 수 있는 연구로 여성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측정(강기은, 2014), 여성 독거노인 실태(고보선, 2014), 여성장애인의

자긍심과 위상 강화(김경미 외, 2010), 성인 여성의 건강 요인(박영례 외, 2010) 등이 있음.

- 제주 여성의 생활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에는 생활풍속과 사진자료 등이 있음. 제주 여성들로 전승되는 음식문화의 특징과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의 가치를 다룬 연구(문순덕 2010), 일생의례(출산의례, 혼인의례, 상장례, 제례)와 여성의 관계성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문순덕, 2012/2013),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통시적 변모를 보여주는 연구(문순덕, 2018) 등 다양한 편입.
- 한편 강경숙(2015)에서는 제주 여성의 현대적 삶을 재해석하여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성장기, 결혼생활, 경제활동, 육아와 교육, 공동체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생애주기별 생활문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음.
- 김은석(2011, 2014, 2015)은 제주 여성의 근대성을 추출할 수 있는 사진을 분석하여, 노동 공간의 이동과 여성교육, 개인에 대한 자각, 패션의 변화 등을 통해 제주 사회의 근대화 양상은 물론 20세기 제주 여성의 일상적인 모습과 생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음.
- 제주 여성문화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에는 『제주도 접접계契문화 조사보고서』(2010), 『제주생활문화 100년』(2014) 등이 있음.
 - 『제주도 접접계契문화 조사보고서』(2010)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조직된 접계의 실태를 조사·기록하여 제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경제 협력, 공동체 문화 등을 집약하여 보여줌.
 - 『제주생활문화 100년』(2014)에서는 마을, 길, 의생활, 식생활, 주거문화, 관혼상제, 민간신앙, 여가문화, 기록과 여성문화, 시장,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사라지는 장인 분야 등을 통시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음.
- 제주 여성문화사에 초점을 두고 발간된 신문기사 자료집 외에도 근대 제주사회를 살필 수 있는 2권의 신문기사 자료집으로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²⁵⁾(2016a),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일본어 신문』²⁶⁾(2016b) 등이 있음.

25) 이 자료집은 동아일보에 수록된 일제강점기 제주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원문과 기사내용을 수록하였음. 즉 1920년 4월 22일자부터 1940년 8월까지 총 738건의 자료가 수록됨.

26)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신문스크랩 자료이며(서울대 도서관 소장), 1928년 4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일본어로 게재된 신문에서 제주 관련 기사 292건을 발췌하여 수록함.

3) 해녀 연구

- 2010년대 해녀 연구는 총 30편으로 학위논문 3편, 학술논문 18편, 단행본 9권 등을 분석하였음.
- 이 시기 해녀 연구의 주요 주제는 국내 출가해녀들의 물질 방식과 작업 환경, 고령 해녀의 질병, 제주 해녀들의 독도와 일본 출가의 역사, 해녀들과 관련 있는 어휘, 해녀들의 공동체문화, 제주해녀문화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해녀들의 노동공간의 축소 및 훼손 현상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제주 해녀연구물을 집적한 『해녀 연구총서 전 5권』(이성훈 엮음, 2015)이 발간됨으로써 해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해녀 연구총서 1권에는 문학 14편이, 2권에는 민속학 14편이, 3권에는 역사학 14편이, 4권에는 경제학·관광학·법학·사회학·인류학 등 11편이, 5권에는 음악학·복식학·서평·자료 등 20편이 수록됨.
- 국내·외 지역으로 출가한 해녀들의 작업 환경 및 실태(민운숙, 2018 ; 박중오, 2015 ; 강성복, 2012 ; 김선기, 2010 ; 김수희, 2012 ; 안미정, 2010), 해녀들의 직업어를 분석한 연구(양희주, 2015 ; 신우봉, 2017), 해녀문화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김미경, 2015 ; 이선화, 2015)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2013, 2014, 2017)에서는 해녀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필요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제안하였음. ‘제주해녀문화유산’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2016년 12월)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연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제주4·3 연구

- 제주4·3과 여성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는 학술논문 5편이 있음.
- 주요 내용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내기(권귀숙, 2011), 가족을 잃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인생 역정기(정원옥, 권귀숙, 2016), 여성의 인권과 평화로 접근하기(염미경, 2017), 언어의 침묵을 요구한 사회(문순덕, 2012) 등 전쟁과 여성의 피해 정도를 다양하게 해부하였음.

5) 다문화 연구

- 다문화 연구 분석대상은 30편으로 학위논문 8편, 학술논문 20편, 단행본 2권 등임.
- 주요 주제는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인식 태도,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정책 실태,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방지 방안, 학생들의 다문화이해 교육 추진 필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방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제주지역의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오고운, 김성봉, 2011 ; 김민호, 2010/2012),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정체성, 지역문화 적응 정도(현미경, 황경수, 2010) 등이 제기됨.
- 염미경(2011)에서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적응 과정, 가족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문순덕(2012)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용어가 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다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다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 등을 제안하였음.

6) 문학 연구

- 제주 여성의 제특성을 살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문학은 주로 현대소설이 해당되고, 구비문학은 설화(신화, 전설), 민요 등이 해당됨. 2010년대 문학 연구물은 학술논문 3편이 있고, 설화는 33편, 민요는 5편이 있음.
 - 설화(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2편), 민요(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 단행본 1권)
- 현대 서사 문화 속에서 해녀를 다룬 경우(노대원, 2017), 영화화된 해녀(김동현, 2015), 이영지의 해녀 연구(이한창, 2015) 등은 창작된 해녀들을 다루었음. 구비문학에서 설화는 주로 무속신화의 주인공인 여신들의 기질과 활약상, 위대성 등을 보여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무속신화의 주요 인물은 ‘감은장아기’, ‘자청비’와 제주 창조여신인 ‘설문대’, 「칠성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됨. 여기에는 권복순(2012), 권태효(2011), 류정월(2013), 박종성(2016), 양영수(2011), 장영주(2012), 전영준(2015), 정진희(2017), 하경숙(2016), 허남춘(2013) 등이 있음.
- 2010년대 민요(노동요) 연구는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해녀노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여기에는 신임순(2017), 이성훈(2010/2015/2017), 양영자(2012) 등이 있음.

7) 여성정책 연구

- 여성정책 연구는 4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삼았음.
- 주요 주제는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변화 및 정책기구의 특성(문순덕, 2011 ; 오신정, 2012), 양성평등정책(조은희, 2011),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정책(주삼차, 2015) 등 여성의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해당됨.

8) 2010년대 여성연구 현황 분석 결과

-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도 특정 주제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집중한 결과로 보임.
- 이 시기의 성과라고 한다면 제주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이 개관된 것임(2010. 01. 13.). 이 전시관은 제주 여신, 근·현대 여성 인물 등 제주 여성들의 활약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지난 1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등 제주도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연구가 추진되었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에서 제주도의 연구 성과, 연구지원 체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
- 그러나 여성연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여성연구는 침체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제주 여성이라는 거대 담론을 연구하려면 연구 전담 조직, 전문 인력, 연구비 지원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여성연구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자료구축 등 기초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여성들의 역사 참여 방법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은 기록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연구에서 해석할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임.
- 또한 어떤 형태의 산물이건 이를 시대상과 접목해서 잘 읽어내는 안목을 지닌 연구자가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목적성을 띠고 발간되는 자료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결국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연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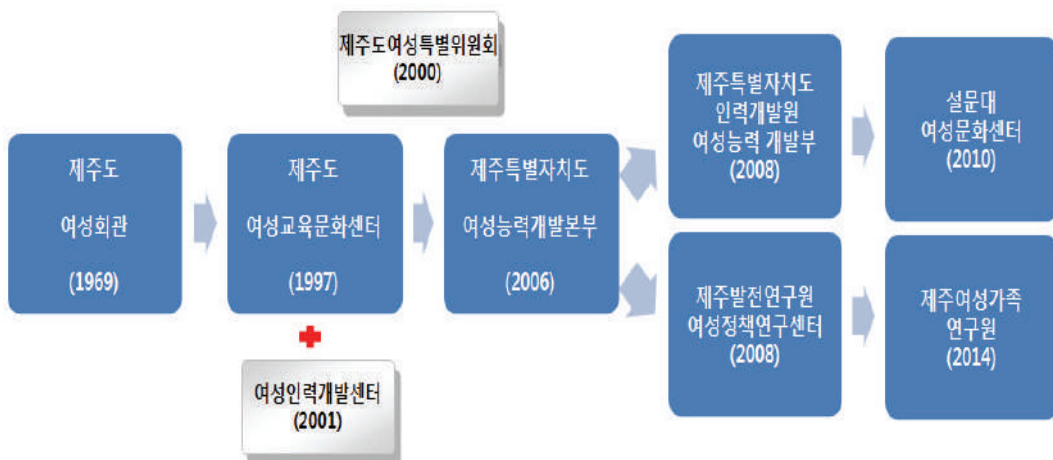
3. 제주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가. 공공 영역 여성정책 관련기관의 변천

-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 공기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 <제주도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여성문제 상담과 함께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1997년에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되면서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여성의 평생교육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신행철, 2004).
- 2000년에는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기관인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발족됨. 이 기구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조정 기구로서, 임기 2년제로 제 1기(2000~2011년)부터 제 8기(2014~2016년)까지 구성·운영되었음. 연간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권씩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자료 총서 8권을 발간하여 여성사와 여성문화사 연구의 동력을 제공함.
 - 2016년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모든 기능이 이관됨과 동시에 폐지되기에 이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 2001년에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읍·면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격상되어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지니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재편되면서 제주도 여성들의 교육 및 정책 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설치됨.
- 2005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직속으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위탁받은 주요 업무는 제주지역 여성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연구 개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단체의 여성 관련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양성평등지표 개발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제주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 연구, 여성 관련 연구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임.
- 특히 2007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공무원 대상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지원 등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을 지원함(정영태, 강창민, 강경숙, 2010).
 - 제주지역 관련 기관들 간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중복성이 제거되면서, 2008년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로 흡수되고 연구기능은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이관됨.
 - 201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의 교육기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이관되어, 종전의 여성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역사문화전시관’과 ‘공연장’을 보유하는 등 문화기능을 추가하였음.
 - 2014년에 제주지역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는 폐소되었음.

<그림 3-1>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기관 변천 과정



나. 여성정책 연구 현황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관련 기관 중, 연구의 기능이 중심이면서 연구물을 발간한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정책연구센터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세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 및 연구물을 살펴보겠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제주지역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정책 제안들이 제기되면서 연구기관의 역할이 부각됨.
- 2006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내 기획조사부에는 여성문화조사연구팀, 여성권익증진정책팀, 출산장려정책팀, 고령사회대책팀 등이 있었으며, 연구 기능이 종료된 2009년 2월까지 25건의 여성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기획조사부장 및 팀장은 공무원으로 배정되었고, 27) 팀원은 없었음.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영역은 2건, 노동·일자리 영역은 9건, 돌봄·가족·복지·아동청소년은 14건으로 추진되었으나, 안전·폭력 영역에서는 연구가 되지 않음.
 - 각 연도별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직 내 전문 연구자가 없었던 관계로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하였음.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비율
총 계	4	6	9	6	25	100%
성주류화	1		1		2	8%
노동, 일자리	1	2	4	2	9	36%
돌봄/가족/복지/아동청소년	2	4	4	4	14	56%
안전/폭력					0	0%

27) 이 조직은 2006년 10월 각 팀장급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고자 했으나 여성문화조사연구팀장 1명만 채용되고, 그 외 팀장은 공무원이 담당함.

- 성주류화 분야는 『2006 제주여성통계(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2006)』와 『2008 제주여성통계(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2008)』가 격년으로 발간됨.
 - 2008년 통계집에는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시도별 비교, 국제비교 등 11개 분야 248개 항목에 걸친 정보를 수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노동·일자리 분야는 9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조사(강경희, 200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강경희, 강영미, 류상부, 현문규, 강미영, 2009)』, 『노인의 취업 실태와 욕구 조사(강세현, 2007)』 등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노인 등 대상에 따른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정승훈, 김태운, 고승한, 강창민, 최영근, 2007)』, 『제주 여성관광종사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태조사(강경희, 강영미, 류상부, 강상준, 강미영, 2008)』,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실태조사(김대호, 류상부, 강상준, 강미영, 2008)』,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임애덕, 류상부, 현문규, 강미영, 2009)』 등 여성의 근무환경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욕구조사와 취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4과제 진행됨.
 - 그 외는 『제주지역 고학력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현인숙, 이선화, 류상부, 고정자, 강미영, 2008)』 및 『제주특별자치도 CEO 경영활동 조사 연구(임애덕, 류상부, 고정자, 강미영, 2008)』 등이 있음.
- 돌봄·가족·복지·아동청소년 분야는 14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이 중 노인에 관한 연구가 6건으로 가장 많은데, 『노인치매에 대한 인식 및 부양가족의 복지욕구 조사연구(현인숙, 2007)』,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조사(손영주, 최은영, 송영아, 류상부, 고정자, 강미영, 2008)』, 『만성질환 노인의 장기요양 및 간호욕구조사(현인숙, 류상부, 강상준, 강미영, 2009)』 등 노인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3과제 추진됨.
 - 또한 『제주지역노인의 노후생활 실태와 정책과제(고승한, 2006)』,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진영, 김남진, 류상부, 강상준, 강미영, 2008)』, 『제주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정광중, 황석규, 류상부, 현문규, 강미영, 2009)』 등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후준비, 여가활동,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연

구가 3과제 추진됨.

- 돌봄·가족·복지·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출산, 결혼, 불임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 또한 추진됨.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제고되면서, 『제주지역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정민, 류상부, 현문규, 강미영, 2009)』, 『제주여성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 및 정책선호도 조사(정민, 2006)』,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김대호, 강대옥, 김상명, 임애덕, 정민, 2007)』, 『제주특별자치도민 출산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임애덕, 홍봉기, 강미영, 2007)』, 『불임부부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정민, 강희경, 류상부, 강미영, 2008)』 등 5건이 추진됨.
- 그 외에는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강경희, 홍봉기, 김영보, 2007)』,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 조사(강대옥, 류상부, 고정자, 강미영, 2008)』, 『청소년의 성인지, 결혼 및 출산, 자녀에 관한 연구(김대호, 류상부, 현문규, 강미영, 2009)』 등이 추진됨.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발간 연도	연구 과 제 명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제주여성통계 •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조사 • 제주여성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 및 정책선호도 조사 • 제주지역노인의 노후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취업 실태와 욕구 조사 • 노인치매에 대한 인식 및 부양가족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민 출산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제주여성통계 • 불임부부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 조사 • 제주 여성관광중사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 제주지역 고학력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조사 •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CEO 경영활동 조사 연구 •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실태 조사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노인의 장기요양 및 간호욕구조사 • 제주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 • 제주지역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 • 청소년의 성인지, 결혼 및 출산, 자녀에 관한 연구

* : 2008~2009년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에서 발간됨.

2) 제주발전연구원²⁸⁾ 여성정책연구센터

-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 5월,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원됨.
- 제주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주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내 설치되었음.
- 제주지역 여성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기능을 하였으며, 개소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0권의 여성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인력은 제주발전연구원 내 연구직 2명으로, 센터장 1명과 연구원 1명임.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영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여성의 지위·대표성 영역이 9건, 가족·복지·다문화 영역이 7건으로 나타남.
 -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성주류화 영역 연구 및 사업이 제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28) 2017년 5월 1일부터 제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표 3-7>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비율
총 계	2	2	8	4	5	7	3	4	2	3	40	100%
성주류화	1	1	2	2	1	2	1	1		1	12	30%
여성의 지위, 대표성	1	1	1			1	2	2		1	9	22.5%
노동, 일자리			2		1				1		4	10%
돌봄/일가정 양립이동청소년				1	1	1					3	7.5%
가족/복지/다문화			1	1	1	1		1	1	1	7	17.5%
안전/폭력			2			1					3	7.5%
지역 여성 역사문화					1	1					2	5%

- 성주류화 분야에서는 총 13건의 연구가 추진됨.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정영태, 2006)』,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정영태, 2007)』, 『200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정영태,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정영태, 2008)』,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정영태, 강창민, 강경숙, 2010)』 등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분석과 통계지표 개발, 성과와 과제 등 5건이 추진됨. 또한 여가부 수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로 『2009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정영태, 2009)』,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정영태, 2010)』 2건이 추진됨.
-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정영태, 2012)』가 발간됨. 여성통계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의 성별분리 통계 자료 개발(정영태, 2007)』,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정영태, 정혜숙, 2011)』,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정영태, 이갑숙, 2014)』 등 4건이 발간됨. 그 외에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정영태, 김진영, 2005)』 연구가 추진됨.

- 여성의 지위·대표성 분야는 9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문순덕, 김혜숙, 고승한, 강대옥, 김효선, 진관훈, 황석규, 2010)』 과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문순덕, 현혜경, 2012)』 2건이 발간됨.
 -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정영태, 이영찬, 2007)』 와 『201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정영태, 2014)』 2개 과제가 추진됨.
 -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정영태, 이갑숙, 2012)』 과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정영태, 정진주, 2011)』 2개 과제가 추진됨.
 - 그 외에는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정영태, 임소진, 2006)』 과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문순덕, 김진호, 2011)』 2개 과제가 추진되었고,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정영태, 김혜연, 2005)』 연구가 추진됨.
- 노동·일자리 분야는 4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령 여성 경제 활동 욕구 조사(정영태, 박정환, 2007)』 연구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따른 경제활동 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정승훈, 김태윤, 고승한, 강창민, 최영근, 2007)』 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정영태, 조영희, 2013)』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근무 환경 및 일명 경단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욕구조사와 취업지원 방안을 제시함.
 - 그 외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정영태, 2009)』 등이 있음.
- 돌봄, 일·가정 양립, 아동·청소년 분야는 3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정영태, 김혜연, 2008)』, 『2009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고서(정영태, 강경숙, 2009)』 및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보고서(정영태, 강경숙, 2010)』 에 관한 연구임.
- 가족, 복지, 다문화 분야는 7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다문화 영역은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정영태, 김석준, 200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정영태, 성윤애, 고인종, 2010)』,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정영태, 201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

원기본계획(2015~2018)(정영태, 2014)』 등 4개 과제가 발간되었음.

-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정영태, 김혜숙, 강경숙, 200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정영태, 강창민, 고태호, 엄상근, 임정현, 이술, 2012)』,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따른 진료 행태 분석(정영태, 홍성철, 2008)』 이 발간됨.
- 안전·폭력 분야는 3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정영태, 김효선, 2007)』, 『성매매예방 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정영태, 김정희, 성운애, 2007)』,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정영태, 2010)』 연구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성매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짐.
- 지역 여성 역사·문화 분야는 2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문순덕, 강대옥, 김오순, 2009)』 연구를 통해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문순덕, 박찬식, 2010)』 을 통해 김만덕에 대한 역사적 자료 검토와 도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현양사업의 방향을 제안함.

〈표 3-8〉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발행 연도	연구 과 제 명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 ●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 성매매예방 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욕구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의 성별분리 통계 자료 개발 ●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여성능력개발본부와 공동)

<p>200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200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따른 진료 행태 분석
<p>200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 2009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고서 • 2009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p>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보고서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p>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p>201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p>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
<p>201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2015-2018) •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 • 201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

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 조직 및 인력

-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13. 9)를 근거로 2014년에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됨.
- 정책연구실, 성인지정책센터, 경영지원실의 2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지정책센터 내에 여성가족부 수탁기관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5~현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현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인력은 현재 총 13명으로(2018.10월 기준), 박사급 연구직은 8명이며 행정직은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하여 4명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전담연구원 1명과 연구원 연구직 겸직 센터장 1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팀장 및 팀원 총 3명과 연구원 연구직 겸직 센터장 1명임.
- 조직의 미션은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사회 실현’이며, 개원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성주류화 정책 기반 강화, 제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일·가정 양립, 노동·일 자리, 안전·폭력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사업 외에도, 연구와 현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 포럼’,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도



나) 연구 현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성주류화, 여성의 지위·대표성, 노동·일자리, 가족/복지, 돌봄, 안전·폭력, 지역 여성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²⁹⁾는 2014년 8건에서 2018년 현재 16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음(<표 3-9> 참고).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주류화 연구가 전체의 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안전·폭력분야와 지역 여성 역사 분야는 각각 6.5%와 4.8%로 낮은 편임(<표 3-10> 참고).

〈표 3-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비율
총 계	8	11	12	15	16	62	100%
성주류화	0	3	4	3	5	15	24.2%
여성의 지위, 대표성	3	3	2	3	3	14	22.6%
노동, 일자리	0	0	2	2	1	5	8.1%
돌봄/일가정 양립/아동·청소년	2	0	2	5	1	10	16.1%
가족/복지/다문화	1	3	2	1	4	11	17.7%
안전/폭력	2	1	0	1	0	4	6.5%
지역 여성 역사 재조명	0	1	0	0	2	3	4.8%

29) 연구과제는 기본, 정책, 수사, 수탁, 공동연구를 의미하며, 제주지역 여성가족현황 및 현안 등 정책활용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수행하는 이슈브리프는 총 과제수에서 제외하였음.

(1) 성주류화 분야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처음 실시된 것은 2004년으로 10개 과제가 시범평가 되었음(강경숙, 김민선, 2016).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106개 과제로 비약적으로 도약하였으며, 2016년에는 180개 과제에 이룸(고지영, 2017).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강경숙, 김민선, 201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방안(손태주, 이해웅, 2017)』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단체의 예산 운동 일환으로 출발하여 2006년 법제화되면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함. 성인지예산은 제도적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정부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각각 국회와 지방정부 의회에 제출함(강경숙, 이해웅,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과제수는 회계연도 2013년 155개, 2014년 205개, 2015년 212개, 2016년 219개, 2017년 240개 과제에 이룸(고지영, 2017).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강경숙, 김민선, 2015)』 연구에서 2013~2015년 3개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과정 및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해 심층분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강경숙, 이해웅, 2017)』 연구를 통해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주요 성인지 예산 실행 주체들의 정책 이해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부터 『제주여성통계연보』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여성통계를 발간하여 왔음.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시도별 비교, 국제비교 등 11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중앙정부 및 국가통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생산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4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통계집은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와 사회참여, 문화, 안전과 환경의 10개 주요 영역과 시도 비교분야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됨.

- 그 외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화진, 최은하, 2015)』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의 예방교육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함.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강사지원용-(강경숙, 2016)』 연구에서는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매뉴얼을 개발함.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방안(손태주, 2016)』 연구에서는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 조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도시기반 시설 조성방안을 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 연구(이연화, 김태일, 2016)』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정책방안을 제안함.

(2) 여성의 지위·대표성 분야

- 「여성발전기본법」(1995)은 「양성평등기본법」(2014)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문순덕, 김혜숙, 고승한, 강대옥, 김효선, 진관훈, 황석규, 2010), 『제1차 여성정책 중기계획(1999~2002)』은 5개 분야, 8개 정책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성평등, 아동과 모자의 복지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주력함.
- 『제2차 제주여성정책 4개년 계획(2003~2006)』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증진 강화,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등 9개 분야 59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정책과 더불어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하려는 인권 정책이 새롭게 대두됨.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3차까지 지속됨.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되는 한편 여성복지에 활용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이 조성됨.

-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2007~2010)』에서는 8개 분야 정책과제 37개, 세부과제 138개 등으로 점진적으로 여성정책 계획이 다양해짐.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시점이어서 여성정책 수립에도 변화가 일어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가 높아지면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주력하기 시작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과제로 수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여성가족·복지의 질적 개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직업의식 함양’, ‘여성 인권의 존중과 보장체계 구축’이라는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의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각각 여성 가족, 여성 경제, 여성 인력개발, 여성 사회·문화, 여성 인권, 여성 건강·복지,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여성친화도시 부문이며, 41개 정책과제, 127개 세부과제가 선정됨(고지영, 2014).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수립 연구(고지영, 강대옥, 문순덕, 2014)』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 계획은 4년마다 수립되었으나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함. 양성평등정책 기반정비와 촉진,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사회 구축,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와 건강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6개의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과제 및 50개 소과제와 151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함.
-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고지영, 2015)』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돌봄 지원, 지역 사회 안전 등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정여진, 강경숙, 고지영, 손태주, 김영순, 김이승현, 정이은숙, 2017)』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 제안을 위하여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3개 영역, 12개 정책과제, 2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법적 근거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조성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평가를 수탁받아 5개 과제를 추진함.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손태주, 강경숙, 2014)』,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손태주, 2015)』,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분석(이화진, 이연화, 2016)』,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이화진, 이연화, 이해웅, 2017)』 연구를 통해 여성발전기금 사업 수행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금사업의 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집행기준 수립 연구(강경숙, 손태주, 2015)』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및 집행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손태주, 2015)』에서는 2011년 중장기 계획에 이어 4개 정책영역, 9개 정책과제, 55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이연화, 2016)』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함.

(3) 노동일자리 분야

-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고용률은 가장 높지만 구인난이 가장 심각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 특히 25~44세 청·중년 여성의 실업률이 높음. 이에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수요 조사(고지영, 2016)』 연구에서는 향후 제주지역 산업 내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또한 『제주지역 청년여성 일자리 욕구와 취업지원 방안(이화진, 2016)』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안함.

- 『제주지역 여성 창업 실태 및 지원 활성화 방안(고지영, 2017)』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자의 창업 경험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주지역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제주지역 간호인력 근로실태와 정책지원 방안(이해웅, 2017)』 연구에서는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간호 인력의 근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통하여 정책지원방안을 제안함.

(4) 돌봄, 일·가정 양립, 아동·청소년 분야

- 돌봄 영역에는 5개의 연구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24시 어린이집 확충방안 연구(손태주, 2014)』 및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이연화, 2017)』를 통해서 24시간 어린이집 확충방안과 영·유아·초등저학년을 돌보는 부모들의 정책욕구를 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아동돌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연구(고지영, 김은정, 2016)』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과 과제 수립을 지원하였음. 또한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강경숙, 김선필, 2017)』 연구에서 3040 세대 기혼 남성의 돌봄경험을 통해 돌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을 받아 『2018~2022 제주아이사랑플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이연화, 고지영, 김은정, 오명녀, 2017)』 연구를 수행함.
-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손태주, 2014)』과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손태주, 2017)』 2개의 연구가 추진됨.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경력유지정책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가족친화제도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대응과제(정여진, 고승한, 2016)』 연구 및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김홍석, 2017)』 2개의 연구가 추진됨. 인터넷 중독 연구는 제주연구원과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음. 아동학대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5) 가족, 복지, 다문화 분야

- 가족 영역에서는 2개의 연구가 수행됨.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권희정, 염미경, 2014)』는 제주도민과 가구의 유형별 특성, 혼인상태, 결혼의사, 출산계획, 보육현황, 가족생활, 가족가치관, 정책 욕구 등을 조사함.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손태주, 2016)』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가족친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실천모델을 제안함.
- 복지 영역에서는 2개의 연구가 수행됨.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이연화, 2015)』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욕구를 반영한 제주형 지원정책을 제안함.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 방안(이연화, 2015)』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 및 음주문화 개선과제를 제안함.
- 다문화 영역에서는 3개의 연구가 수행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정여진, 2015)』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자체 사업의 예산과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이화진, 2016)』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화진, 김홍석, 고승한, 이길주, 조항웅, 2017)』은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과제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와 시책을 발굴·제안함.

(6) 안전·폭력 및 지역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분야

- 안전·폭력 영역에서는 4개의 연구가 수행됨.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가정폭력실태조사(이연화, 홍연숙, 2014)』와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성폭력실태조사(이화진, 홍연숙, 2014)』는 가정폭력경험, 피해의 영향, 폭력 대응방식, 정책욕구 및 성 인식,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성폭력 유형별 경험실태, 성폭력 피해의 영향, 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조사함.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이화진, 2015)』에서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여성폭력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 교육에 이르는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함.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이화진, 신영호, 윤명희, 조은희, 최은하, 2017)』에서는 제주지역 안전 사각지대 현황 파악, 안전 인식 조사, 취약지역 현황 점검을 통해 지역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함.
- 지역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강경숙, 안미정, 2015)』은 3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출신의 제주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 여성의 삶과 세대간·지역별 차이를 살펴 제주 여성의 삶을 재해석·재조명 함.

〈표 3-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분야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분 야	여성정책 연구
성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방안 -공공시설 이용 연계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수탁) •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강사지원용-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 연구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방안 •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성과 분석(2015-2017)*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집(2015-2017)* •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
여성의 지위,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수탁)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집행기준 수립 연구(수탁)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수립 연구 •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수탁)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 •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분석(수탁) • 제주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수탁)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수탁)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 • 지방의회의 양성평등 의정 역량 강화 방안-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지역 여성단체의 성평등 역량강화 방안* • 제주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관리(수탁)*

<p>노동, 일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수요 조사 • 제주지역 청년여성 일자리 욕구와 취업지원 방안 • 제주지역 여성 창업 실태 및 지원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간호인력 근로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 제주지역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 연구*
<p>돌봄/일가정 양립/아동·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수탁) • 제주특별자치도 24시 어린이집 확충방안 연구 •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대응과제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연구 •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30~40대 기혼 남성의 가사·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 2018-2022 제주아이사랑플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수탁) •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p>가족/복지/다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수탁) •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탁)* • 제주지역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p>안전/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수탁)
<p>지역 여성 역사, 문화 재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 제례 문화 연구*

* : 2018년 연구임.

4.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와 과제

가.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1)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재인식 기회 제공

- 제주 여성연구 70년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주제별,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 집약된 시기 등을 확인하게 되었음.
- 여성연구는 해방 이후 1990년대 전반기 전까지는 특정 주제에 대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이후 여성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여 세부 주제별로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형성됨.
- 여성연구의 주요 주제는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정치, 경제/직업, 교육, 가족 제도, 성방언, 생활사 등), 해녀, 제주4·3, 다문화, 문학, 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나 시기에 따라 특정 주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연구 결과물이 많은 주제를 보면 연구자들 입장에서 자료 이용이 쉽고, 경험자들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음.
- 여성사 연구인 경우 전근대 시기의 사료와 자료의 빈약함 때문에 폭넓은 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편임. 여성문화사 연구인 경우 근대 시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번역작업(한자어, 일본어 등)이 부족하여 근대 제주 여성들의 문화사를 정확히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여성연구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 여성연구의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향후 연구 범위를 알려주는 등 연구 결과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2) 여성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확대

-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사는 남성 중심의 역사를 해석하는 보조 자료로 선택되거나 당대 사회현상을 읽어내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이론이 도입되고 대학에 여성학 강

좌가 개설되면서 여성의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의 역사 서술이 진행되어 한국 여성사, 지방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짐.

- 19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은 여성 권리와 관련된 시민단체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제주사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쳐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활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함. 그러나 제주대학교 등에는 여전히 여성학과 관련된 학과 및 강의의 부재로 학문적 영역에서는 연구의 진전이 미비하였음.
-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지역 여성들의 활동도 증가하였고, 제주대학교 내 여성학 강좌의 개설 등으로 '제주 여성'에 대한 젠더적 관점들이 등장하였으며 관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또한 이 시기 새로운 관점의 연구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2000년을 분기점으로 여성연구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본 연구를 통해 여성연구 전성기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이 기간이 지속되지 못하고 쇠퇴기로 접어든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는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 미흡, 다양한 연구자 부족 및 연구 기회 제공 미흡, 연구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임.

3) 연구자의 역할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확인

- 여성연구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이전과 이후 연구 환경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정기구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자의 열정, 연구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등 조직, 인력, 예산의 안정성과 연관이 있음.
- 여성정책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출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음. 이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가능함을 시사함.
- 현재 제주 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내 여성학 관련 학과의 부재, 연구진 및 연구 집단의 부재, 연구를 위한 물적 토대의 빈약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제주 여성에 대한 기초 연구보다는 산업화를 위한 콘텐츠화 및 상품화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구와 활용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그 결과 제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향후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이는 제주 사회에서 여성연구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뜻임.

나. 제주 여성연구의 향후 과제

1)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접근방법 수립

- 전근대시기 여성연구는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남성중심의 기록물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여성 자신의 주체적 관점이나 행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근대시기 여성연구 자료 또한 문헌, 저서, 신문기사 등 자료 선택 폭이 전근대에 비해 넓어지기는 했지만 이 역시 남성의 시각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고, 일부 주제(사회활동, 항일운동 등)는 여성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음.
- 지금까지 제주 여성 연구물들은 제주 여성의 가시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해석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김은석, 2017). 따라서 기존 여성연구물에 대해서는 젠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수행할 여성연구들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에 기대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 여성 연구의 시작이면서 사실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무가나 신화, 본풀이, 그리고 설화 등으로 불리는 제주여신 신화에 대한 연구임(김치완, 2017). 그러므로 여성사 분야에서는 탈신화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상 정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엘리트 중심의 서술에서 탈피하여 다수 여성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삶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제주 여성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젠더적 시각을 반영한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을 정립해야 함. 그런 점에서 기초연구부터 중장기연구까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여성연구 및 지방의 여성연구와 연동하여 통합적·종합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게는 아시아 여성연구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 여성연구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2) 제주 여성연구 분야의 확장

- 제주 여성연구는 주로 여성사 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여성의 문화와 삶을 살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예컨대 제주 정치와 여성, 제주 사회참여와 여성, 제주 교육과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사를 구성하는 제요소를 발굴하고, 영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함.
- 제주 여성, 국내·외 이주 여성, 제주 이주 여성 등 국적과 인종을 포용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국가와 지역 간 공통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기회 제공 그리고 제주섬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세계 섬 지역 여성에 관한 연구물 소개·비교 등이 가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3) 여성연구 자료 구축 및 활용 방안 기회 제공

- 어제의 역사를 확인하고 읽어내야 오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내일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음. 제주 여성의 역사는 불완전한 기록,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등이 응축되어 과거와 현재의 교량 구실을 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는 기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모아 구술사 및 구술생애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근대 사회가 형성되는 동안 제주 여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였음. 그러나 제주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밝혀줄 70-80세 여성 모집단은 현재 4만 여명에 불과함. 이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근대 사회 형성기 제주 여성의 경험은 역사 속에서 묻히게 됨.
-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자료 구축의 가치를 인식하고, 분야별로 아카이빙화 하고 있음. 이는 제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함.

- 향후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 구축 계획을 단기,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 자료의 콘텐츠화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홍보 전략이 필요함.
- 김만덕, 최정숙, 해녀, 제주4·3 등은 제주 여성을 주요로 활용하여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 또한 구축된 제주 여성 관련 자료들을 전문가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향유 및 활용방안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4)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허브 역할 강화

- 제주 여성연구 자료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하고 종합적·체계적 연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 예산과 제도 등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최근 들어 제주 여성의 삶과 역사적 의미에 가치를 찾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였음.
-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 요소이므로, 공공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는 행정과 공공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지속가능성이 있음. 즉 다양한 연구자들이 시간적·재정적 제한을 덜 받으면서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는 뜻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제주 여성 관련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 양성과 예산 마련 등 진정한 의미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정책화해야 함.
- 아울러 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정책연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 단체, 개인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국내의 여성정책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제주의 여성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내 및 아시아 여성연대 활성화 체계 구축 등도 가능할 것임.

5) 연구자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 기회 확대 필요

- 행정기관에 발간하는 자료·사료는 참여 연구진과 예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추진 주체가 되면 발간 목적에 따라 연구진을 구성할 때 인적 구성에 진정성이 수반되어야 함. 결국 지역 여성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은 연구자들의 몫이므로, 연구자의 안목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제주 여성연구가 폭넓게 지속적으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 환경이 튼튼해야 함. 다시 말하면 여성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신진 연구자 및 중견 연구자의 저변 확대가 중요함. 신진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연구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중견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함. 여성연구는 전공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건강한 학문풍토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문순덕, 2018).
- 제주 여성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교류활동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여성 관련 행사 및 활동들이 가부장적 시각에서 제도되는 경우들이 많음. 젠더 시각으로 제주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연구자 소모임 운영 및 제주여성학회 발족을 통한 정기적인 포럼 운영 등이 필요함.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1. 전문가 면접조사 개요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3. 소 결

1. 전문가 면접조사 개요

○ 전문가 집단 면접 목적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내·외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 면접의 구체적 목적은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연구 방향 및 접근 방법, 연구 주제,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면접 방법 및 기간

- 면접 방법 : 제주도내·외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효율적인 면접을 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진행함. 각 그룹은 4~8명으로 구성하였고, 구성 기준은 특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참석 선호 날짜를 배려하여 조정하였으며 각 면접은 별도의 회의 공간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하였음. 회의 목적과 논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FGI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질문을 하고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면접 당일 참석이 어려워진 세 명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문을 구함.
- 면접 기간 : 2018년 7월 25일, 8월 3일, 8월 8일, 3일에 걸쳐 이루어짐.
- 면접 개요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음.

<표 4-1> 전문가 면접조사(FGI) 개요

개최 차수	일자	소요 시간	참석 전문가 수	비고
1차	2018.7.25	약 2시간	6명	
2차	2018.8.3	약 2시간	4명	
3차	2018.8.8	약 2시간	9명	3명은 서면 자문

○ 면접 대상자 특성

- 성별 구성 : 면접 대상자 19명 중 여성 14명, 남성 5명임.
- 소속 : 소속 또는 직업 배경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 영역, 행정, 언론, 활동가 등 다양함.

- 전문 분야 : 여성, 역사, 문화, 예술, 인권,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하게 구성됨.
-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4-2>와 같음.

〈표 4-2〉 전문가 면접조사(FGI) 참석 대상자 특성

FGI 차수	사례	성별	소속/직업배경	전문 분야	비고
1차 (7.25)	1	여성	연구 기관	역사	
	2	여성	활동가	문화예술	
	3	여성	활동가	인권	
	4	여성	작가	여성	
	5	여성	연구 기관	문화	
	6	여성	활동가	인권	
2차 (8.3)	7	여성	인론	문화	
	8	여성	연구 기관	여성	
	9	여성	대학	교육	
	10	여성	인론	문화	
3차 (8.8)	11	여성	대학	역사	
	12	남성	연구 기관	역사	
	13	여성	공공 영역	문화	
	14	남성	대학	교육	
	15	남성	연구 기관	경제	
	16	여성	행정	여성	
	17	여성	대학	여성	서면 자문
	18	남성	대학	역사	서면 자문
	19	남성	대학	사회	서면 자문

○ 면접 내용

- 주요 면접 내용 :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여성연구 접근 및 연구 방법, 향후 연구가 필요한 여성연구 주제,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방법,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또는 추진체계 조성 등에 관하여서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FGI에서 대면으로 면접, 또는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함.

- 아래에서는 전문가 FGI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축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
 -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과제
 -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가.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 세 차례의 전문가 FGI에서 제주 여성연구가 왜 필요한지,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여성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대체로 이견이 없이 동의하기 때문이고, 논의의 주 내용은 여성연구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할애되었음.
-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짚는 것은 여성연구의 방향이나 접근 방법, 연구 주제들을 선정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초석임. 이에 제주 여성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FGI에서 논의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재구성하고자 함.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음.
 - 제주 여성 역사 기록 부재
 - 제주지역 여성연구의 성과 분석과 재해석
 - 제주 여성의 가시화 및 제주 역사문화 가치 제고의 의의

1) 제주 여성의 역사 기록 부재

- 제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많지만 기록물은 부재
 - 여성연구가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제주 여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다는 데에 있음. 제주가 여성의 섬이라고 불리고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성하지만 정작 여성에 관한 기록된 자료는 극히 적음. 특히 제주의 경제,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그 실체가 기록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연구를 통한 제주 역사의 재조명 작업은 매우 중요함.

제주 여성에 대한 선입관이나 이미지, 소문 등이 있지만, 제주민이나 방문객들 모두 제주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역사화된 설명, 해석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례 17】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여성이] 경제사의 메인이 된 게 제주밖에 없다. 제주경제사 이퀄 제주여성경제사라 해도 될 만큼...[여성 노동이] 지역에 미친 영향...그런 식으로 묶어 낼 수 있는 게 아주 많다...그걸 녹아내는 방법이...연구가..[필요하다]. 【사례 15】

[문화유산] 여성의 역할...건축이든 뭐든 그 전에 여성사나 여성생활사 할 때 언급은 되었었다....무엇 무엇에 여성은 있었다 라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젠더적 시각 그런 부분(은) 모자랐다고 할 수 있는...문화유산 중에 무형 문화재라는 그 부분만 해도 전수하는 분도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잘 부각되지 않는다. 【사례 10】

○ 남성중심의 역사 기록, 여성의 주변화

- 여성에 대한 기록의 부재는 그동안 역사의 기록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 문화는 주변화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은 제주의 역사문화 연구, 특히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이 무엇보다도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귀결됨.

어떠한 맥락에서 남성들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여성들은 주변부에 한정하는가?에 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사례 18】 (서면 의견)

○ 절반의 역사 한계를 논하는 기초로서 여성연구

- 여성연구는 절반의 인간에 대한 역사 기록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자, 민주화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단초임. 그동안 여성 인권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 지원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인 과제는 젠더 관점의 여성사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해 온 면이 있음.

왜 여성사 연구가 필요해요? ...일방의 가부장(적) 민주.. 인간을 포괄하지 못했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실은 여성사 연구 도와줘야 되는 게 결국은 민주를 완성하는 단초를 현장에서 하겠다는 것...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여성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논하고...실은 이 한계를 논하는 기초로서의 여성연구, 여성사 연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점을 놓쳐왔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례 6】

2) 제주지역 여성연구의 성과 분석과 재해석

- 앞의 선행 연구(2장, 3장)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여성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된 90년대 이후 지역 여성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2000년대부터 지역 여성사 서술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특히 여성정책 전문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강원도 여성사』(1996)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지역 여성사 발간 작업이 이루어짐.
- 제주지역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인물, 구술, 사진 등의 사료 수집 작업을 필두로 여성사 통사, 여성 문화사 등 제주 여성사 서술 작업이 행정 지원을 기반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음.
- 제주 여성사 서술 작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연구방향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없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기존 연구들이 ‘여성’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젠더 관점’에서 그 성과들을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작업 등의 후속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기존 제주지역 여성연구의 성과를 조명하고, 그 성과물들을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제주 여성연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의의가 됨을 전문가들은 피력하였음.
- 젠더 관점에서 기존 여성연구 재해석 필요

젠더 관점에서의 역사 재조명이 필요한 건...있는 자료를...꼭 보다보면 시각이 “여기서 도대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뭐지”, 여성신화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가부장스럽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꼭 언급이 되고, 심지어 출산과 관련된 장려가 많고 기원, 기도, 주문과 관련된 것- 애기 낳게 해달라 라던가, 지아비의 건강과 지아비의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계속적으로 기원·기도하는 것으로... 결국 기도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가부장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문 이런 걸로... 꼭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불편함...여성주체가 빠져버린- 신화를 이렇게 해석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도 저는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재정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6】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연구는 다 되어 있지만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어디에 이렇게 좀 분석해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황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필진으로 참가도 했었고 그 때마다 고민이 된 게 내가 ‘재해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항상 했었

어요.. ‘젠더 입장에서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걸 해주는 거죠...시대별로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재해석 하고... 【사례 5】

2000년에 여성특별위원회 생기고, 한 5~6년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했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기간으로)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 ...연구의 지속성이 이어져야 하는데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나름 1차적으로 자료로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그 안의 분석이라든지 나열 방식, 기술 형식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사 부분도 보시면 선각자 중심이고, 보편적인 여성들의 삶 보다는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하는) 선각자 중심의 근대 인물 정도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기존의 문헌에 대한 해석 내지 비판을 짚고 이후의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방향을)... 【사례 3】

3) 제주 여성의 가시화 및 제주 역사문화 가치 제고의 의의

○ 제주 여성의 가시화

- 여성연구 활성화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제주 여성을 가시화하는 작업임...구체적인 자료나 역사화된 설명, 해석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여성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주 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가능해질 수 있음.. 【사례 17】 (서면 의견)

○ 제주의 역사 문화 가치 제고

-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역사와 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제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제주 관광이 이제까지는 자연중심이고...제주의 자연을 빌리는 형식인데...함께 해 줄 콘텐츠가 부족하다. 여성문화, 여성사, 여성의 생계활동과 종교 등이 제주 여행의 문화적 전환의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음...많은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를 발굴하여 제주를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곳으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음. 【사례 17】 (서면 의견)

나.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주제

- 제주 여성연구의 방향과 연구 영역 및 주제에 대한 논의는 세 차례의 전문가 FGI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고, 논의의 내용을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 여성연구의 활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함.

1) 제주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

- 제주 여성연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여성연구를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 즉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에 대한 문제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함.
- 젠더 관점의 접근
 -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은 무엇보다도 ‘젠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음. FGI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젠더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내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의 발언이나 서면으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두 축으로 요약하고자 함.
 - 여성의 삶을 남성과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 시대적 ‘젠더 구조’로 재해석
 - 새로운 지식이론으로서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 정립

가) 여성의 삶을 젠더 구조로 재해석

- ‘여성’을 보여 주는 연구를 넘어 여성의 삶을 젠더 구조로 해석
 - 여성연구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기록이나 ‘여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그 안에 있었던 여성의 삶을 남성과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 젠더 구조로 분석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함.

지금까지 역사 연구는 가부장적인 시각, 즉 남성적 시각에서 서술되어 왔는데, 젠더적 관점에서 재조명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사 연구라 할지라도 젠더적 관점에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재정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6】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이 중요. 남성과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삶, 지위 등을 다룰 필요. 【사례 8】³⁰⁾

제주 여성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기존 연구물들은 젠더 시각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 사용했던(참여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앞으로 여성연구는 지금까지 제주 여성연구가 해왔던 '여성이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젠더 구조를 살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함. 【사례 18】 (서면 의견)

나) 새로운 지식이론으로서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 정립

- 젠더 관점의 역사 재조명과 재해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이론으로서의 여성주의적 지식 이론의 정립과, 나아가 기존의 근대적 지식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실천적 페미니스트 지식이론의 정립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여성주의적 지식이론과 연구 방법의 정립
 - 여성연구는 기존 자료의 수집·분류·재해석, 향후 연구의 방향과 주제 등 모든 연구 과정이 선택의 과정이며, 이러한 선택은 정교한 이론과 방법론적 틀을 필요로 함. 이에 여성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이론이나 개념, 방법론 등의 정립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자료 혹은 연구된 여성에 대한 의미를 만들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여성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과 함께 여성중심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 또한...함께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사례 17】 (서면 의견)

- 기존 사회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지역적, 실천적 페미니스트 지식이론 제시
 -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연구자는 젠더 관점의 여성연구는 단순히 남성중심의 기존 체계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근대적 사회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의 출발점으로서 그 정체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여기서 근대적 사회체계란 일상적 삶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가부장적 위계적 관계, 맹목적 성장주의가 지배하는 생태 파괴적 사회·경제체계를 말하며, 여성연구는 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회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변화시키는 정치 개입 전략의 지식이론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피력함.

30) 사례 8은 전문가 FGI에 참석하였지만, 별도의 서면 자문 의견을 제출하였음. 여기에서는 사례 8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내용을 인용함.

여성연구는 단순히 남성중심의 기존 사회체계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지식체계, 사회체계, 경제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연구는 ‘반대’가 아닌 ‘비판’이어야 하며, 비판은 미시적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패러다임의 관행(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계적 관계와 사적 연줄망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관행, 맹목적 성장주의가 지배하는 근대성의 부정적인 측면,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소비주의 문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함. 이러한 여성연구의 과제는 비판의 근거를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평범한 시민들(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까지)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 페미니즘의 정치 개입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미시적 상황에서 왜곡된 인간의 탈구의 계기들을 여성주의적 정치(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회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변화시키는 정치)의 토대로 삼아야 함. 【사례 19】 (서면 의견)

- 한편, 미시적 생활 세계의 구조를 읽어 내고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 개입 전략의 지식이론으로서 여성연구의 접근 방법은 지역적, 실천적, 암묵적 지식의 의미를 복원하는 의의가 큼.

페미니즘의 지식이론은 지역적(local), 실천적(practical), 또는 암묵적(tacit) 지식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어야 함. 즉 전문가들만의 과학적(scientific) 지식, 즉 지역적, 실천적, 암묵적 지식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함. 【사례 19】 (서면 의견)

2)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

-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 FGI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주제임. FGI에서는 구조화된 질문 없이 오픈 토론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석 전문가의 배경과 관심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 본 절에서는 FGI에서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제기된 향후 제주 여성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 영역과 주제들을 공통된 영역 또는 주제로 재구성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함.³¹⁾

31) 서술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 기술함.

〈표 4-3〉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역	주제	비고
기존 여성연구의 종합적 정리 및 재해석	• 선행 여성연구 자료 정리, 성과 분석 및 젠더 관점의 재조명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3, 사례 17, 사례 18
제주 여성 역사 시기 구분	• 여성연구 관점에서 제주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 (제주 여성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	사례 4, 사례 8, 사례 9
제주 여성문화유산 발굴	•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조사	사례 3, 사례 4,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3, 사례 14
	• 여성 인물 발굴과 생애사 및 구술사 축적	
	• 제주 여성 인명사전 발간	사례 14
제주지역사에서 여성 재조명	• 제주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3, 사례 18
	• 국기폭력, 제주4·3과 여성	사례 1, 사례 4, 사례 8, 사례 9, 사례 18
	• 제주 경제와 여성의 일	사례 8, 사례 9, 사례 15, 사례 18
	• 제주의 사회운동사에서 여성 운동사	사례 8, 사례 9
	• 전통 문화의 지속과 변화-가족, 종교 등과 여성	사례 8, 사례 18
제주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주 여성	• 제주 바깥으로 나간 제주 여성	사례 8, 사례 9, 사례 18
	• 제주사회로 이주해 온 여성	사례 8, 사례 9
제주 정책에서의 여성	• 정책의 ‘대상’ 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	사례 6, 사례 7, 사례 19
	• 제주의 성평등 문화 지표 개발 연구	사례 9

주 : 전문가 FGI에서 향후 제주 여성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 연구 영역 및 주제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하여 분류한 것이며, 사례는 관련 내용을 제외한 전문가를 말함.

가) 기존 여성연구의 종합적 정리 및 재해석

○ 선행 여성연구 자료 정리와 성과 분석 및 젠더 관점의 재조명³²⁾

- 지난 10년 가까이 여성연구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선행 연구의 기초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되지 않은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연구의 새로운 영역과 주제 발굴 연구 이전에 기존에 진행된 여성연구 자료를 분류, 색인, 정리하고 그 성과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나) 제주 여성 역사의 시기 구분

○ 여성연구 또는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

- 지역 역사의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역사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주제임. 시기 구분 자체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역사 재구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임.
- 기존 역사 연구의 시기 구분이 특정한 시대, 연대, 사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면, 제주 여성사 등 여성연구의 시기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필요함.

다)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연구는 전문가 FGI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연구 영역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조사

- 문화유산 연구의 의의 : 문화유산은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복합적인 역사 문화적 산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연구 결과로 집적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모든 역사를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음.
-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구전, 음악, 기술, 규범, 민속, 습관, 생활양식 등에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 여성 인물(문화유산) 발굴과 생애사 및 구술사

- 건축문화유산 등 유형의 복합문화유산의 성인지적 해석과 여성 문화의 특성 및 여성 인물 발굴

32) 이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선행 여성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첫 시도라 볼 수 있음.

- 여성 문화재 및 문화예술인 발굴 : 문학, 미술, 예능, 공예, 전문기술(조리, 주조, 직조 등), 놀이, 전례 등에서 여성 인물 발굴
- 유적, 경승지, 생활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 발굴
 - 유적 : 가옥, 공공 공간, 묘소 등 일상생활에서의 여성 공간, 여성 운동 및 여성 교육 유적지,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여성 노동과 일의 작업장 등
 - 경승지 : 공원, 정원 등과 같은 기념적 공간과 여성
 - 생활사 : 의식주, 생업, 신앙, 관혼상제와 같은 전례와 여성의 역할 및 인물 발굴
- 생애사 및 구술사 추적
 -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로 대표성 있는 여성을 선정하여 생애사, 구술사 기록
 - 소수의 선각자적 인물을 넘어 평범한 제주 여성에 대한 생애사 기록
 - 과거의 역사 속의 특정 인물만이 아닌 현대 제주 여성의 생애사 기록
 - 인물 중심에 치우치기보다 분야나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여성 인물 발굴
 - 동일 집단(cohort)의 생애사 추적 연구 : 기존에 구술 채록이 있는 생존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하여 여성 삶의 변화 기록
 - 여성 생애사와 구술사의 체계적 아카이빙
- 제주 여성 인명사전 발간
 - 발굴된 여성 인물, 여성 위인에 대한 사전 발간
 - 제주 여성연구자 사전 또는 목록 발간

라) 제주지역사에서 여성 재조명

- 제주의 지역 역사에서 특수한 역사적 사건이나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에서의 여성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함.
- 제주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
 -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제주 해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지만, 학문적 연구 및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 구축은 부족한 실정임.
 - 제주 해녀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제주 해녀 위상 제고 및 제주 해녀학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국가폭력, 제주4·3과 여성

- 기존의 4·3 연구는 남성, 여성의 구분 없이 사건의 팩트 및 진상조사, 피해자 보상이나 정명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제는 4·3에 대한 젠더, 인권, 생활사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3의 과정과 4·3 이후 제주 재건 과정에서 가족과 생계, 여성의 노동, 가부장제의 복원과 성별 분업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4·3 여성 생존자를 후세대 평화, 인권 교육의 명예교사, 사람 책으로 위촉하여 도내 학생들과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음.

○ 제주 경제와 여성의 일

- 학문적 연구로서의 제주경제사로 불릴 수 있는 구한말 이후의 제주 경제사는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경제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사례 15). 그러나 제주 경제사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조명은 미비함.
- 제주 경제 구조의 변천 과정에서의 여성의 일 : 1965년 감귤산업의 붐 이후 현재까지 농업 여성의 일과 삶, 제주 관광산업에서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연구 등
-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과 일에 대한 연구 : 노동요 연구 등

○ 제주의 사회 운동사에서 여성 운동사 정립

-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제주4·3, 현대의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에서 사회 운동사 연구들이 있으나 여성의 사회 운동사에 대한 조명은 부족함.
- 제주지역 사회 운동사에서 여성의 역할 재조명 연구 필요 : 세화 해녀투쟁, 탑동 개발 반대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 교육 연구, 전쟁과 여성 동원의 문제 등

○ 전통 문화의 지속과 변화 - 가족, 종교 등과 여성

- 제주의 가족, 종교는 여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변화하는 가족, 종교 관습과 의례 등의 문화 지형 속에서 여성의 역할, 공간, 의식, 지위, 성역할 분업 등에 대한 젠더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

마) 제주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 제주 여성

- 여성연구를 공간적으로 제주지역 내에 국한하기보다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제주 여성의 삶 비교, 문화 전승 및 변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제주 바깥으로 나간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와 제주로 들어 온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함.
- 제주 바깥으로 나간 제주 여성
 - 도일 제주 여성, 출가 해녀 등 제주 밖으로 나간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 필요
 - 재외 제주민 가족과 여성의 역사와 그 후손들에 대한 연구 필요
- 제주사회로 이주해 온 여성
 - 제주로 이주해 온 여성들과 이들의 제주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삶,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 필요

바) 제주 정책에서 여성

-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 연구
 - 제주의 여성연구는 행정 등 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크고, 이는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정책의 대상으로서 여성은 어떻게 규정되어 왔고, 시대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정책 담론이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성' 또는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거시적 구조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음.
 - 예) 제주 해녀에 대한 조례의 변천사 : 해녀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나 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해녀에 대한 관점은 해녀 관련 조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음.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제주 해녀에 대한 관점이나 정책의 변화가 고려화 된 해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해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제주의 성평등 문화 지표 개발 연구
 - 여성 정책 차원에서 제주 여성의 지위와 제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작업이 필요함. 여성 역사문화 연구와 정책 연구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는 여성연구와 정책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음.

다.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

-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여성연구의 활용에 대한 것임. 이 주제에 대해서도 FGI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하고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음.
- 본 절에서는 FGI에서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제기된 여성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 가지 주제로 재구성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함.

〈표 4-4〉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역	주제	비고
제주 여성연구 DB 구축	• 여성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례 2, 사례 4, 사례 5, 사례 8, 사례 9,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사례 17
	• 여성연구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 연구 자료를 활용한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 9, 사례 18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지역 문화자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관광 자원 개발 및 인력 양성	사례 9, 사례 18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9, 사례 17, 사례 18

주 : 전문가 FGI에서 제기된 여성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재구성하여 분류한 것이며, 사례는 관련 내용을 제기한 전문가를 말함.

1) 제주 여성연구 DB 구축

- 여성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여성연구 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여성연구의 지속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문헌 자료,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고, 전자 파일로 전산화하고, 각 자료의 메타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함.
- 여성연구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구축된 여성연구 자료 DB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아카이브 인프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음.
- 특히 온라인 시대에 IT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구글, 네이버 등에서 제주 여성연구 자료를 검색 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전문화된 아카이브는 여성연구의 홍보와 활용에 매우 유용할 것임.
- 여성연구 성과물들을 번역하여 세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함.

2)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 연구 자료를 활용한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 제주의 관광, 여행의 테마는 주로 자연환경에 기반해 왔음.
- 제주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 인물, 여성의 일, 생활사 등의 연구 자료는 제주 여행과 관광의 문화적 전환의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는 앞 절에서 기술한 여성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도 직결됨.
- 여성연구 자료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구가 필요하고, 학계, 연구기관, 행정, 박물관, 문화 관련 단체, 문화 콘텐츠 관련 단체와 기업 등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3) 여성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문화 자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문화 자원 개발 및 인력 양성

- 여성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여성 문화콘텐츠는 지역 문화를 알리는 학습, 여행, 관광 등의 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 해설사, 학예사 등의 전문 인력 양성도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위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연구 영역과 연구 자료 활용의 범위가 무궁무진함.

○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문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 젠더 관점이 있는 여성 문화 콘텐츠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역사문화 교육 교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인문학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할 수 있음.

- 대학 여성학 강의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주도내 대학에서 여성학 학과가 부재한 현실에서 여성 역사문화 연구와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대학 내 여성학 관련 교육 교재의 개발과 강의안 개설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또한 여성학 관련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연구결과 활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여성연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 앞 절에서는 여성연구의 접근 방법,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 여성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기술하였음.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여성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임.
- 전문가 FGI에서는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전문가들에게 간단히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FGI에서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를 위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에 대해 사전에 질의하고, FGI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본 절에서는 FGI에서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제기된 여성연구 추진 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주제로 재구성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함.
 - 주요 논의 내용 : 여성연구 인력 양성,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여성연구 예산 지원

〈표 4-5〉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역	주제	비고
여성연구 인력 양성	• 여성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례 8, 사례 9, 사례 12, 사례 13, 사례 15, 사례 17
	• 대학 여성연구(여성학) 과정 운영	사례 17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 여성연구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례 1,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9, 사례 14, 사례 15, 사례 18
	• 여성연구 허브로서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례 5, 사례 8, 사례 9, 사례 11, 사례 12, 사례 15, 사례 18
여성연구 예산 지원	• 여성연구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사례 9, 사례 16, 사례 18

주 : 전문가 FGI에서 제기된 제주 여성연구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을 재구성하여 분류한 것이며, 사례는 관련 내용을 제기한 전문가를 말함.

1) 여성연구 인력 양성

○ 여성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연구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가 배출 및 인력풀의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제주 여성연구 주제에 대한 석·박사 논문 지원 : 전국 대학원 대상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제주 여성 관련일 때 지원
- 신진 연구자 논문 공모 지원 :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신진 연구자 대상으로 제주 여성을 주제로 논문 공모 지원
- 제주 여성연구 관련 도서 출판, 번역, 문화예술 작품 지원 : 제주 여성을 주제로 하는 학술 연구의 출판이나 번역, 음악·연극·미술·건축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 및 전시 활동, 여성 역사 문화 자료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 대학 여성연구(여성학) 과정 운영

- 지역의 특성상 여성학을 가르칠 수 있는 연구자가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대학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고 축적된 여성연구 결과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도내 대학에서 여성학 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서는 상호학습의 과정일 수 있음. 도내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학과에 여성학에 대해 관심이 높은 대학원 학생들이 많지만 관련 학과들이 이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 연구자를 길러내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 도내 대학에서 여성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여성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협동 과정’ 설치와 운영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에서 연구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 여성연구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교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고, 이를 거버넌스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의견들도 제기됨.

- 위원회 조직 : 도 내·외 여성학자 및 지역 연구자,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조직
 - 학회 조직 및 학술지 사업 : 제주 여성 학회 등의 학회 조직과 대표적인 여성연구 학술지 편찬 사업은 여성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기반이 됨.
 - 분야별 연구 협력체계 구축·활성화 : 연구 분야별 또는 특정 주제별로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연구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여성연구 허브로서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이하 여성연구센터로 지칭)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기반으로서 제시한 여성 공약임. 전문가 FGI에서는 여성연구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조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
 - 여성연구센터의 필요성 :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연구·개발하고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연구센터가 필요함.
 - 여성연구센터의 역할 : 제주 여성의 특화된 연구 수행, 여성 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여성연구 지원 사업 등
 - 여성연구센터 조직화
 - 제주 여성 정책 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직속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립 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되, 민선 7기 기간 동안에 설치하여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한편 센터의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의 문제보다 이러한 센터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센터 관점의 여성연구의 허브 역할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기관을 통한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데에 상당수가 동의함.
 - 또한 여성연구센터를 조직할 때, 기존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과의 역할 차별성 등 연구센터의 정체성과 설립 의의를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제주 역사 연구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연구 기능보다는 자료의 수집과 전시 및 아카이빙 기능에 특화되므로 여성연구센터와의 중복 문제는 없으나 아카이빙 기능에 대한 역할 논의, 그리고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준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도내·외 여성연구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의 준비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3) 여성연구 예산 지원

○ 여성연구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조직, 인력, 예산 지원의 약속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실행이 중요함.

3. 소 결

- 본 소결에서는 전문가 FGI의 주요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1)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의

- 제주지역 여성연구가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제주 여성 역사 기록의 부재에 있음. 이는 그동안의 역사 기록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 문화는 주변화 되어 왔기 때문임. 이에 여성연구는 절반의 인간에 대한 역사 기록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임. 그동안 여성 인권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 지원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인 과제는 젠더 관점의 여성사 연구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제주 여성의 역사 기록 부재로 여성의 삶 재조명 작업이 필요함.
- 제주 여성사 서술 작업이 2000년대에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연구방향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없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젠더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그 성과를 재조명하는 후속 작업이 부족함. 이에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를 조명하고, 그 성과물들을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제주 여성연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의의가 될 것임.
- 여성연구 활성화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역사와 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제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제주 여성연구의 접근 방향

- 여성연구의 접근은 무엇보다도 '젠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 젠더 관점의 접근이란 단순히 '여성'에 대한 기록이나 '여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그 안에 있던 여성의 삶을 남성과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 젠더 구조로 분석하고, 의미들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말함. 이에 여성의 삶을 젠더 구조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임.
- 새로운 지식이론으로서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함. 젠더 관점의 역사 재조명과 재해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이론으로서의 여성주의적 지식 이론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나아가 여성주의적 지식 패러다임은 단순히 남성중심의 기존 체계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근대적 사회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의 출발점으로서 그 이론적 정체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제주 여성연구의 영역과 주제

- 기존의 여성연구 자료를 분류, 색인, 정리하고 그 성과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선행 여성연구 자료 정리와 성과 분석 및 젠더 관점의 재조명 필요함.
- 여성연구 또는 젠더 관점에서 제주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 여성 역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에 대한 이론적 정립, 여성 역사의 시기에 따른 연구 주제 발굴, 연표 작성 작업 등 제주 여성 역사의 시기 구분 작업 필요함.
- 문화의 생산자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여성 인물(문화유산) 발굴, 생애사 및 구술사 연구, 제주 여성 인명사전 발간 등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사업 필요함.
- 제주지역사에서 여성 재조명을 위하여 제주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 젠더 관점의 제주4:3 연구, 제주 경제와 여성의 일, 제주의 사회 운동사에서 여성 운동사 정립, 제주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주 여성, 해외로 이주한 제주 여성, 제주의 신여성 등 육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주의 여성 역사화, 제주로 이주한 외부의 여성들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제주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 연구 및 제주의 성평등 문화 지표 개발 연구 등이 제안됨.

4) 제주 여성연구의 활용

- 제주 여성연구 DB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여성연구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여성연구 성과물의 번역을 통한 세계화 작업, 제주 여성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자료를 활용한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제안됨.
- 여성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문화 자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문화 자원 개발, 여성 문화자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력 양성, 여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됨.

5)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 여성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여성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대학 여성연구(여성학) 과정 운영이 필요함.
-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연구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및 여성연구 허브로서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이 제안됨.
-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예산 확보가 담보되어야 함.

결론

1. 연구의 의의
2. 향후 과제

1.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공백기를 겪고 있는 제주 여성연구를 다시 활성화하고,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지난 70년간 연구되어진 제주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물을 시대별·영역별로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제주지역 여성연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제주 여성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제주 여성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다 19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이때부터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등 삶의 변화로도 연구범위가 확장되었음.
- 제주 여성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연구의 주제는 폭넓게 다루어졌지만 시기에 따라 특정 주제로 쏠리는 현상이 발견됨. 이는 연구자의 관심도와 관련 분야 연구자의 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또한 전담기구, 예산, 행정의 지원이 있었던 여성사, 여성문화, 여성문화사 관련 연구물이 집중 발간된 것이 확인됨.
- 2010년대에 들어서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개소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여성정책연구가 집중적으로 추진됨. 여성사 분야에서는 타시도의 지역 여성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으로 인한 연구의 침체기가 나타남.
-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 여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서술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임.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타시도 지역여성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서구의 경우에 젠더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수의 영역과 무수히 교차할 수 있는 분석틀로 자리를 잡았고, 이를 발판으로 여성연구는 초기 역사학, 문학, 사회학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으로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인정받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제주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에 관한 환기가 필요함을 확인함.

- 본 연구는 제주 여성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연구접근과 더불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함.
- 여성이 역사에서 소외되어 그 실상이 왜곡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역사도 오랜 동안의 중앙 중심의 역사발전 속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는 중앙-지방, 남성-여성이라는 이중의 배제와 소외의 어려움을 넘어 서야 하는 작업임. 게다가 여성연구는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긴급하고 가시적인 연구들에게 우선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 여성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 자료들을 총망라함으로써 지역과 여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여성연구자들이 제주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활동상을 연구, 분석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여성연구는 새로운 사료발굴과 더불어 기존 사료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시대구분이나 이론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근거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음. 이는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임. 즉 제주지역 사회 변동에 따른 여성의 삶의 변화를 포착해 내고 이것이 연구 성과와도 연동이 되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성연구 현황 분석의 대상을 문헌 연구로만 한정하였으며, 특히 연구물이 가장 많은 여성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또한 제주지역의 여성운동, 여성 콘텐츠, 여성 관련 유물 등을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여 여성연구 전반을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사업, 활동, 콘텐츠, 유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여성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성의 사회적 권리, 사회·정치참여,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인권 등의 분야에서는 개선이 더딘 점에 대한 성찰적 논의들을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마지막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2. 향후 과제

가. 제주 여성연구 영역 확대

1)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 확립

- 제주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젠더라는 시각을 통한 해석이 없이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연구는 그저 물화된 과거에 대한 호기심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음(하정화, 2012). 따라서 그간의 여성연구 성과를 젠더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여성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여성에 대한 기록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제주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여성연구에 대한 의미 있는 시기 구분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역사적 자료들을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현재의 젠더관점에서만 재단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오히려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박스에 넣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사적 과정을 만들어 가는 젠더 수행성과 구조의 문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이론적, 방법론적 훈련이 매우 중요함(김은실, 2018).
- 축적된 구체적인 사료를 가지고 새로운 성과물을 내는 경우에는(예 :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 사진으로 보는 전남여성 100년 등), 그 시대의 이슈를 현재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는 매우 신중한 작업이어야 함(하정화, 2012). 이 경우에도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문화적 코드를 양분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이나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포착하게 하는 유용한 분석틀이 될 것임.
- 향후 여성연구의 새로운 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젠더적 관점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임. 단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가족, 혼인관계, 정치·경제적 지위, 남성 지배자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임.

- 특히 가족은 여성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전통문화인 각종 풍속, 의례, 제례 등은 성역할 및 마을 공동체 성권력관계 등과 연관됨. 켄당, 마을 공동체, 각종 의례와 풍속 등에 관한 연구 추진 시 반드시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젠더 관점의 제주지역 역사 재조명 연구

- 제주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에서 젠더 관점으로 여성의 경험과 삶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함. 제주4·3이나 해녀문화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재해석 작업이 필요하며, 제주 여성이 농업, 관광, 마을, 교육 발전 및 사회공헌, 자원봉사, 사회적 자본축적 등 분야에 헌신한 발전의 주체이자 남성과 동등하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제주4·3과 여성

- 여성의 역할과 기억에 관한 연구 : 기존의 팩트 중심의 4·3 연구에서 발전시켜 4·3 과정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역할과 기억에 대하여 구술채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4·3 이후 제주 재건 과정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가족의 생계 역할인 여성의 노동 부분에 대한 생활사 연구도 필요함.
- 4·3 증언채록 및 구술 자료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 : 4·3연구소의 1,000인 증언 채록(2008) 등 현존하는 생존자의 증언 채록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증언에 특징과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이나 이론화 등의 작업은 부재함. 여성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4·3 연구자들과 함께 4·3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4·3 역사자료 인권교육에의 활용 : 1994년 설립된 쇼아 재단(Shoah Foundation)은 전세계 56개국에 퍼져 살고 있는 5만 2천명의 독일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찾아가, 3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색인 목록을 만들어 인권 교육 자료를 완성하였음. 제주에서도 4·3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생존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한다면, 도내 학생들과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살아있는 사람 책(human book)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제주 해녀

- 제주 해녀에 관해서는 2010년도 이후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지금까지 사진집, 노래집, 옷 이야기, 생업과 문화, 생애사 조사보고서 등의 연구 및 유물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결과는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해녀문화 전승보존의 과제와 전망(2010), 여성과 해양문화(2015) 등 다양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해녀문화의 학술적 가치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임.
- 제주 여성의 상징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해녀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탄탄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제주해녀의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여성공동체로서 사회적 기능 등 여성사 연구 및 출향 해녀의 생애별·지역별 연구 확대 등이 필요함.
- 더불어 일제 강점기 경제 수탈에 항거한 국내 최대의 여성 항일 투쟁인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경우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등이 대표적 인물로 발굴되어 있음. 그러나 당시 판결문과 수형기록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향후 조사에 난항이 예상됨. 개인문집, 향토사료, 일제 자료 등을 분석하여 더욱 많은 여성인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밝혀 의미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기계형, 김정숙, 문희순, 박미현, 이송희, 정해은, 2017).

○ 제주 지역발전과 여성

- 제주 여성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 왔으나 지역 경제사에서 이러한 여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이 현실임.
- 제주 경제 구조의 변천 과정에서 여성의 일과 삶을 사람이나 사건, 지역에 미친 영향 등에 초점을 둔 미시사 또는 생활사 관점에서 녹여내는 연구가 필요함.
- 시대별로 여성의 노동 혹은 경제활동을 기록할 때, 남성의 경우와 적절히 비교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임. 또한 당대 제주 여성들의 역할과 위상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제주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문순덕, 2018). 나아가 제주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와 성별분업, 노동구조, 직업의 다양화, 여성교육 기회의 확장 등에 대해서도 파악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연구 주제로는 아래의 분야를 제안함.
 - 제주지역 노동요 분석 연구, 19세기 말 이후 여성 수공업 연구
 - 도일 제주 여성과 그 이후 삶 등 제주 여성의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
 - 감귤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등 20세기 후반 제주 경제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근로자의 삶 연구
 - 제주 여성 기업가 정신, 제주 여성 CEO 리더십 분석, 제주 여성기업사 연구 등

3) 제주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 여성들의 생활에서 파생되는 문화요소들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 여성생활문화사라고 할 때, 그 범위는 문학, 구전문학, 민속, 신앙, 복식, 음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생활사 형성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인 관여에 의해 파생된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발굴과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함(문순덕, 2018).
- 제주 여성들의 삶을 재현한 다양한 사진자료들의 수집·발간 작업을 동반한 생활문화사 연구들은 제주 여성들의 근대화 경험과 생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줌. 그러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흔히 유형 문화재를 떠올리게 되며, 여성의 문화유산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도 않음. 이는 남성중심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산물인 문화제가 남성의 시각으로 형상화 되어 있기 때문임(김은석, 문순덕, 2006).
- 제주여성문화유산은 유형적인 유물과 유적은 물론 정신문화나 생활문화, 민속을 아우르는 것임. 기계형 등(2017)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정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 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여성문화유적』 세 연구의 기준을 결합하여 제주 여성 무형문화유산 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표 5-1〉 제주 여성 무형문화유산 분류표

유형 분류	내 용
구전전통 설화, 신화 등	가문장아기, 조왕할망, 설문대할망, 자청비, 삼승할망, 고팡할망(안칠성), 놀굽할망(밭칠성)
공연예술 (전통음악, 무용, 연극)	제주 민요
사회적 관행 의례, 축제(놀이)	칠머리당굿 해녀노래, 제주농요, 멀치후리는 소리, 진사대소리 노래
공예기술	갓질, 망건, 탕진, 고분양태
자연에 관한 지식과 관습	해녀문화

- 제주 여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가운데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을 이어나가는 작업에 대한 의미 부여와 새로운 역사적 콘텐츠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여성무형문화유산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 그 외에도, 문화의 생산자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문학, 토속신앙, 복식, 음식 등 문화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현재 젠더 관점에서 계승·보존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함.
- 제주 여성 유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성문화 유적지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콘텐츠화(물통, 불턱, 신당, 소곰밭, 연자매, 신화·전설지, 4·3유적지 등)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유적, 경승지, 생활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가족, 공공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의 여성공간 및 여성노동의 작업장, 공원 등과 같은 기념적 공간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인물발굴을 통한 생애사 연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여성역사 연구의 의미 있는 시기 구분에 따른 여성역사 콘텐츠를 연구하여 이를 연표로 작성하는 작업과 더불어, 해외 여성문화유산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벤치마킹도 필요함.

4) 다양한 여성인물 발굴 및 생애사 연구

- 제주 여성들은 의병운동, 3·1운동에서부터 애국계몽운동, 항일운동, 광복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여 왔음(기계형 등, 2017). 또한 제주 여성연구 현황을 보면 교육, 단체활동, 정치·경제 활동 등 여성의 다양한 공적 영역에의 참여 성과들이 나타남.
- 그러나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운동가 중 2%에 불과한 296명이고, 이 가운데 제주 여성들은 10여명에 불과함(심옥주, 2017). 근현대 격동의 시기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제주지역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인물을 추적하여 생애와 활동상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들을 지역 여성들의 생생한 모델로 확장하여야 함.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인물과 이들에 관한 개인 소장 사료가 매우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구술채록을 통한 생애사 연구와 사료 아카이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부산여성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기별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기록하되, 이미 제주 여성인물에 관한 저서들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해방 이후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등 엘리트 여성, 2000년대 여성 국회의원 등이 이에 해당됨.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여성조직과 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 즉 여성운동의 활성화 및 4·3진상규명 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재조명 연구 등을 통해 제주 지역 양성평등과 민주화를 위한 여정 속에서의 여성인물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제주 여성연구의 성과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제주 근현대사의 거친 역사적 질곡을 공유하고 구성해 왔다는 것임.
-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로 대표성 있는 여성을 선정하여 구술을 채록하되, 소수의 엘리트 여성뿐만 아니라 평범한 제주 여성에 대한 작업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한국전쟁 피난민, 호남 이주민, 감귤초기 재배자, 동문시장 상인, 종합개발 참가자, 신제주 아파트 주민, 신제주 관광업자, 관광단지 근무자 등이 있음.

- 또한 문학, 미술, 예능, 공예, 전문기술(조리, 주조, 직조 등), 놀이, 전례 등에서도 여성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발굴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인명사전이나 단행본 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제주여성사Ⅲ』 편찬 추진

- 제주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여성사Ⅰ』 과 『제주여성사Ⅱ』 가 2009년과 2011년에 연이어 발간되면서 지역 여성사 연구에 탄력을 얻었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7년 동안 연구의 공백기를 맞음. 이에 『제주여성사Ⅲ』 편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래하였다고 봄.
- 기존의 지역 여성사의 편찬 목표를 보면 지역특징을 살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 부산은 인물·집단, 광주는 민주화, 전남은 활동중심으로 여성의 역사를 기록함.
 - 인천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사적 현재를 기록함.
 -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여성사Ⅱ』 에서 일제강점기 제주 여성들이 어떻게 각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처했는지, 제주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집약하면서 출가해녀 등 제주만의 활동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여성사Ⅲ』 의 경우, 『제주여성사Ⅱ』 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방 이후의 여성사를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일정기간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언론자료집이나 통계자료집과 같이 별책으로 관련 자료집도 발간할 수 있을 것임.
- 시기별로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 4·3 혼란기 또는 1950년대 편찬 작업이 필요함. 이 시기 내용으로는 미군정기, 4·3과 여성, 생존여성의 노동과 가족/친족제도 변동, 한국전쟁, 민간신앙과 종교, 근대교육과 여성, 성별 분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60-70년대에 대한 편찬 작업도 필요함. 지역개발과 여성 삶의 변화가 시작된 1966년에서 1981년까지 시기 즉 제주에서는 이 시기에 감귤산업이 본격화되고 산업구조가 관광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 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일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성별분업이 시작되었음. 또한 소득향상으로 교육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됨.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여성의 삶과 어떻게 조응했는지를 내용으

로 답을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지역여성사는 여성의 일상적 삶, 여성의 사회활동 등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남성과의 권력관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따라서 『제주여성사Ⅲ』에서는 남성과의 권력관계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6) 제주 여성정책 연구 범위 확대 및 고도화

- 1990년대 초까지 여성정책은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비중이 낮은 주변 정책으로 취급되었고,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과 여성의 능력이 빠르게 신장되면서 행정에 양성평등의 가치가 도입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질적 수준도 높아지게 됨(김경례, 오창민, 장다정, 2017).
-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지역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설립에 따라 2000년대부터 각 지자체에서 여성정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에 설립되고 현재 제주지역 여성정책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성주류화, 여성의 대표성, 노동·일자리, 가족·복지, 돌봄, 안전·폭력, 여성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기록작업은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여성정책 연구분야에서도 제주여성의 지위와 제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작업이 필요함. 또한 여성사 연구와 여성정책 연구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 제주지역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 등과 관련하여 성평등 문화활동 지표 개발, 성평등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향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사분야 연구성과 진작을 통한 여성연구의 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고도화를 통하여 제주지역 성평등 향상을 위한 지역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임.

7) 변화의 주체로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 연구

- 제주 밖으로 나간 여성과 제주로 이주한 여성 양쪽 모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및 제주 여성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도일 제주여성, 출가해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하여 육지로 나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전승 및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등을 역사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이들의 후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외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이주민의 제주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삶, 이주민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전쟁 피난민 여성, 60-70년대 호남 여성 이주민, 2000년대 국내 여성 이주민, 2000년대 결혼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나. 제주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제고

1) 제주 여성연구 자료화 및 서비스 제공

- 여성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자료 구축은 절대적으로 중요함.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시적 연구는 물론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폭넓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연구자의 역량으로는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여성연구는 분야에 따라 문헌자료가 빈약해서 기억과 경험에 의한 현장기록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음. 최근 10년 간 제주 여성 역사 문화 연구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기존 자료의 아카이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
- 어떤 연구이든 자료구축 정도에 따라 연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빈약함은 특정 주제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제주 여성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은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진행되어야 하며, 풍부한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기간,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향후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탐라시대부터 현대까지 여성들의 역할과 위상,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는 도서·논문 등의 문헌 자료, 구술 녹취·사진 등의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됨. 이들을 전자 파일로 전산화하여 각 자료의

메타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DB화 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사료와 다양한 기록물에서 여성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추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구축된 여성연구 DB 자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아카이브는 온라인 구축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제주 여성사 도서관 등의 인프라로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여성 관련 문헌과 각종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지방 분권 프로젝트와도 맞물리는 전략임(하정화 외, 2011).
- 발굴된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을 통해 제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국외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근대 신문기사 자료는 물론 탐라시대, 전근대까지 전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료와 개인문집을 발굴하고 번역하여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전문화된 아카이브는 여성연구 홍보와 활용에 매우 유용할 것임. 온라인 활성화를 통해 제주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사이트, 블로그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함.

2) 제주 여성연구 대중화를 위한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최근 들어 역사와 문화에 스토리가 결합된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역공동체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임.
- 이러한 점에서 제주 여성연구 자료의 문화 콘텐츠화는 여성연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심화연구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여성연구 자료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행정, 박물관, 문화 관련 단체,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와 기업 등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아울러 심화연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야 함.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축제는 60여건에 이룸. 그러나 여성과 관련한 축제와 현장 사업³³⁾들이 지역과 지역문화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여성

33) 제주해녀축제, 만덕축제,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작품전, 만덕제 봉행 추모제, 여성영화제, 최정숙 추모행사 및 기념 사업단 발족, 김만덕 나눔 큰잔치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주체들과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응용을 시도하면서 재해석 작업을 하고, 의의를 추출해 내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기계형 등, 2017).

- 한편 이러한 여성문화 콘텐츠를 테마로 한 거리 조성, 여성 문화유산(인물, 유적지 등)에 대한 책자 발간 IT 기반 관광 가이드 시스템 개발 등이 문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문화 해설사 등 인력양성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 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늘 새로워야 하며, 다양한 세대와의 폭넓은 교감과 세련된 표현방식이 필요함. SNS를 적극 활용하고 어플이나 웹툰과 같은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주 여성연구 추진 기반 강화

1) 여성연구 인력 양성

-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연구 인력임. 따라서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전국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는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제주 여성 관련일 때 논문 공모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음.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의 경우에는 제주 여성을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도내 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내에 여성학 대학원을 개설하여 전문 연구 인력을 배출해야 함. 다만 대학의 여건이 어렵다면, 협동과정 설치 또는 대학내 젠더사회학 연구 기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고려해 보아야 함. 또한 여성학연구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는 소장파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여성연구자³⁴⁾ 네트워크 구축강화

- 제주지역 내 여성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함. 여성연구는

34) '여성연구자'는 연구자의 성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여성을 사고와 분석의 중심에 두고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므로, 연구의 영역과 범위가 매우 광대하여 연구자들간에 지식의 베이스나 학문 영역이 다를 수 있음.

- 지역 내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연구를 통섭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센터, 제주4.3연구소 등 연구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관광학회 등 연구기관과 학회와도 젠더를 바탕으로 둔 지속적 교류 및 정기적 세미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연구 분야별 또는 특정 주제별로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연구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제주 여성 문화유산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연구 기관, 관련 학회, 여성사 전시관, 박물관, 문화재청, 여성 문화 단체, 지방자치단체 정책 부서 등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젠더 관점의 연구 협력 및 지원.
 - 제주 해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해녀 관련 연구자 및 연구 기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일본 해녀(아마)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는 토바시 바다 박물관, 가네자키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의 자매결연 등.
- 제주지역에 여성연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칭)제주여성학회를 창립하여 다양한 사업 즉 학술지 발간, 심포지움 및 세미나, 여성인권증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제주의 소장파 연구자들의 활발한 활동 및 여성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 여성연구 전문가가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적으로는 기존 학회와의 공동주관을 통해 제주 여성연구물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임. 향후 학회가 구성된다면 제주포럼의 한 섹션으로 젠더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연구 조직 기반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는 지역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를 위해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였음.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센터의 설치는 특히 제주 여성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의 제주를 생존시키고 돌봐왔던 제주 여성들의 힘과 기여를 제주사회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음. 이는 21세기 성평등한 제주사회의 방향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을 역사화하고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새롭게 발굴·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지식 관광의 길을 열 수 있음(김은실 2018).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고 젠더관점의 여성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을 통한 조직화가 중요할 것임.
- 제주지역에 새로운 여성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생산의 중심이 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연구·개발하고,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임. 센터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김은실(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함.
 -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제주여성에 관한 자료의 수집·기록 및 이에 근거한 자료 제공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주여성 자료 아카이빙을 통해 개별 연구자나 타연구기관에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제주여성에 대한 역사문화적 이해 증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여성 역사연구 아카데미 운영, 여성연구 성과물에 근거한 탐방로 개발 및 운영, 제주지역 방문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와 지식산업으로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변환이 가능할 것임.
 - 한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등 제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여성 관련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및 자료구축을 추진하고, 연구 자료를 도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교양을 함양시키는 도민교육이나 전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경희(2018).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 연구』 50집. 제주학회.
-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1998). 『조선시대 강원여성 시문집』. 강원도.
- 강원도(1996). 『강원도여성사』. 강원도.
- 강원여성연구소 편(2014). 『신문기사에 비친 일제강점기 강원여성(1920~1929년 시대일보 중 외일보 신한민보)』. 강원여성연구소.
- 경기도(2001).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1』. 서울:경기도.
- 경기도(2002).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2』. 서울:경기도.
- 경남여고(2016). 『경남여고 90년사』. 경남여고.
- 경북대학교 대형과제연구단(2005). 『근현대 대구, 경북지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1~3』. 정림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4). 『경북여성사 : 경북여성의 삶의 원형을 찾아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고창석(2009). “제1장 제주여성사의 이해”.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기계형 · 김성숙 · 문희순 · 박미현 · 이송희 · 정해은(2017). 『여성사 자료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가족부.
- 김경례 · 오창민 · 장다정(2017). 『광주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광주여성재단.
- 김경일(2012).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혜석연구』 제1집. 나혜석학회.
- 김명화·정일선(2005).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 1~3』.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미란(1992). 『총명이 무던 붓끝만 못하니』. 평민사.
- 김미란(1994).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성은(2011). 「1930년대 황애덕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양자·박미현·이영춘(2004). 『강원여성역사인물집-조선시대』. 강원도.
- 김은석(2017). “제주여성사를 위한 회고와 전망”. 『제주 여성사 연구의 회고와 미래 전망』. 제주대학교박물관 · 탐라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김은석 · 문순덕(2006). 『제주여성문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김은실(2009). “제2장 여성사란 무엇인가? : 제주여성사 어떻게 쓸 것인가?”.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김은실(2018).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 연구 활성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김정숙(2008). 「한국 지역여성사 연구의 특성과 과제」. 『대구사학』 (90). 대구사학회.
- 김지영(2010).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 역사인류학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치완(2017). “제주 여성 연구의 시선에 대한 철학적 접근”. 『제주 여성사 연구의 회고와 미래 전망』. 제주대학교박물관·탐라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김형목(2007). 「최용신 현실인식과 농촌계몽운동」. 『사학연구』 제88호. 한국사학회.
- 김형목(2015). 「나혜석 스캔들 진상과 언론통제」. 『나혜석연구』 제6집. 나혜석학회.
- 김혜순·정혜숙(2004). 「젠더기획과 지방기획으로의 지역여성사 연구: <경북여성사>와 <전남여성 100년>을 통한 지역사회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 한국사회학회.
- 동래학원(1995). 『동래학원 100년사』. 동래학원.
- 문순덕(2009). 「제주 여성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32권, 제주학회.
- 문순덕(2009).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 문순덕(2018).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 박미현(2006).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강원여성의 삶』. 강원여성연구소.
- 박미현(2007). 『신문기사에 비친 일제강점기 강원여성 1 (1938~1942년 매일신보)』. 강원여성연구소.
- 박미현(2007). 『테마로 읽는 강원여성문화사』. 강원도민일보사.
- 박미현(2008). 「강원여성사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현(2010). 『역사문헌에 기록된 강원여성-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여성연구소.
- 박미현(2014). 『직업세계에 도전한 초창기 강원도 여성들 자료집』. 강원여성연구소.
- 박상진(2013). 『궁녀의 하루-여인들이 쓴 숨겨진 실록』. 김영사.
- 박정애(2013). 「소문과 진실 : 나혜석과 이광수」. 『나혜석연구』 제2집. 나혜석학회.
- 박효근(2014). 「프랑스 여성사 연구 과제와 동향 : 중세에서 근대 초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1권 21호. 한국여성사학회.
- 변원림(2012).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 일지사.
- 부경역사연구소(2004).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근현대편』. 선인.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2004).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1』.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2006).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9). 『부산여성사 I: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10). 『부산여성사 II: 역사 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11). 『부산여성사 III: 역사 속의 부산 여성(현대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여자대학교(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7). 『일제하의 영남지역 여성관련 자료집(상)-조선일보 편』. 부산여자대학교(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부산여자대학교(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일제하의 영남지역 여성관련 자료집(하)-동아일보·시대(중외)일보 편』. 부산여자대학교(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2002). 『1990년대 부산지역 여성관련 신문기사 자료집(상)-부산일보 편』. 부산신라대학교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2003). 『1990년대 부산지역 여성관련 신문기사 자료집(하)-국제신문 편』. 부산신라대학교
- 신명호(2007). 『조선왕비실록-숨겨진 절반의 역사』. 역사의아침.
- 신명호(2009). 『조선공주실록』. 역사의아침.
- 신명호·심재우·임민혁·이순구·한형주·박용만·이왕무(2012).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 심옥주(2017).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제주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특성과 의미”. 『제51차 한국보훈학회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한국여성사학회·(사)한국여학사협회(2008). 『여성문화유산-서울·경기·인천지역』.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
- 윤범모(2012).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쟁점과 과제」. 『나혜석연구』 제1집. 나혜석학회.
- 윤정란(2009). 『조선 왕비 독살 사건』. 다산초당.
- 이강언·조두섭(1999). 『대구, 경북 근대문인연구』. 태학사.
- 이덕주(2003). 「기독교 여성 민족운동 맥락에서 본 최용신의 농촌운동」. 『신학과 세계』 제47호. 감리교신학대학교
- 이문교·김은석·김동전·이은주·한림화·양덕순·정승훈(2003).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 정립사업』. 제주발전연구원
- 이송희(2007).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역사』 제6권 6호. 한국여성사학회.
- 이송희(2010). “지역여성사의 의의와 가치, 역사속 위대한 여성을 만나다”. 『제6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 자료집』.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이영춘(1998). 『임윤지당 : 국역 윤지당유고』. 혜안.
- 이영춘(2002). 『강정일당』. 가람기획.

- 이진옥(2014). 「선거권투쟁에서 ‘여성들의 역사로 - 영국 여성사 연구 동향(2013-2104)」. 『여성과 역사』 제21권 21호. 한국여성사학회.
- 이혜숙·강인순(2015).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지앤유.
- 이혜순(2007).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호(2013). 『근대 대구와 대구사람들』. 김앤시.
- 이화여대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 임혜련(2008).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재단법인 서울여성(2005).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 재단법인 서울여성.
- 전남여성플라자(2012). 『광주·전남여성 100년사』. 전남여성플라자.
- 전북발전연구원 편(2013). 『전북여성 100년사』. 전북발전연구원.
- 정해은(2013).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과 전망, 2007-2013」. 『여성과 역사』 제19권. 한국여성사학회.
- 정현백(2014). 「독일여성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제21권 21호. 한국여성사학회.
- 제주도(2003). 『제2차 제주여성정책 4개년 계획(2003~2006)』. 제주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2018). “제주지역 성주류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제4회 성인지정책 발전포럼 및 제3차 여성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2007).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조범환(2000).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 최미화(2000). 『여성 100년』. 흥익포럼.
- 최재인(2014). 「지난 10년 미국여성사 연구 동향 - 하나의 시각」. 『여성과 역사』 제21권 21호. 한국여성사학회.
- 최향미(2011). 『조선공주의 사생활-조선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 북성재.
- 최흥기(2004).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09).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12). 『충북여성사: 충북여성의 발자취』.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15). 『충북여성인물사 I :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하정화(2012). 「새로운 역사 쓰기로서의 지역여성사 : 부산여성사를 중심으로」. 『여성우리』 제47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하정화 · 이훈상 · 박금식 · 김정란 · 장지용 · 손숙경 · 박지현 · 서송연 · 이송희 · 이혜주(2011). 『부산여성사 III : 역사 속의 부산여성 (현대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 한국여성연구소(2006). 『새 여성학 강의』. 동녘.
- 한국여성연구회(1992). 『한국여성사 : 근대편』. 서울:폴빛.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9). 『숙빈최씨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9). 『숙빈최씨자료집 2』.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9). 『숙빈최씨자료집 4』.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0). 『숙빈최씨자료집 3』.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0). 『숙빈최씨자료집 5』.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1). 『영조비빈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1). 『영조비빈자료집 2』.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상권(2008). 『차미리사 평전 :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 푸른역사.
- 한상권(2009). 『차미리사 전집 1』.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
- 한상권(2009). 『차미리사 전집 2』.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
- 한희숙(2003).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1991년 이후~)」. 『인문과학연구』 (8).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황용건(2015). 「나혜석과 황옥사건」. 『나혜석연구』 제6집. 나혜석학회.
- Anne Enke(2007). *Finding the Movement: Sexuality, Contested Space, and Feminist Activism* (Durham, NC).
- Anne Firor Scott(1970). *The Southern Lady: From Pedestal to Politics* (Chicago).
- Cornelia H. Dayton(2012). "The Big Tent of US Women's and Gender History: A State of the Field".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ume 99 Issue 3.
- Elsa Barkley Brown(1989). "Womanist Consciousness: Maggie Lena Walker and the Independent Order of Saint Luke". *Signs :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4.
- Elsa Barkley Brown(1992). "'What Has Happened Here':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Women's History and Feminist Politics," *Feminist Studies*. 18.
- Evelyn Nakano Glenn(1992). "From Servitude to Service Work: Historical Continuities in the Racial Division of Paid Reproductive Labor". *Signs :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8.
- Georges Duby · Michelle Perrot · Nathalie Zemon Davis · Arlette Farge(1992). *Histoire des femmes en Occident*. 5 vols. Paris.
- Gerda Lerner(1972). *Black Women in White America: A Documentary History* (New York).

- Jacquelyn Dowd Hall(1979). *Revolt against Chivalry: Jessie Daniel Ames and the Women's Campaign against Lynching* (New York).
- Jacquelyn Dowd Hall(1998). "You must remember this': Autobiography as social critiqu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 Jennifer C. Nash(2008). "Re-thinking Intersectionality". *Feminist Review*. 89.
- Joan W. Scott(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 Joan W. Scott(2008). "Revisiting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3.
- Joan Wallach Scott(199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 Linda Gordon(1976). *Woman's Body, Woman's Right: A Social History of Birth Control in America* (New York).
- Peggy Pascoe(1993). *Relations of Rescue: The Search for Female Moral Authority in the American West*. (New York).
- Sharon Harley and Rosalyn Terborg-Penn(1978). *The Afro-American Woman: Struggles and Images* (Port Washington).
- Thomas Dublin(1979). *Women at Work: The Transformation of Work and Community in Lowell, Massachusetts* (New York).
- White, Deborah G(1985). *Ar'n't I a Woman? Female Slaves in the Plantation South*. New York : Norton.

부록 1. 제주 여성연구 논저 목록

- 강경숙(2010). 「지역적 맥락에서 본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관한 연구-지역개발 과정에서 피리 마을 주민과 다방중사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3권. 제주학회.
- 강경숙·안미정(2015). 『제주여성의 삶 : 일·가족 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기은(2014).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대원(1970).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 강명혜(2005). 「〈해녀 노 짓는 소리〉의 통시적, 공시적 고찰 1-서부 경남 지역의 본토 출가 해녀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12권. 온지학회.
- 강문정(1993).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권. 여성건강간호학회.
- 강미란(2016). 「제주지역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찬(1977).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강성복(2012). 「서해 도서지역의 해녀[潛女] 기원과 어로 활동 - 보령 외연도 해녀의 나잠업을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9권.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강성의(1994).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강성의(1994).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강성의(1995). 「제주도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 『제주도연구』 12집. 제주학회.
- 강소전(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강영중(1974). 「제주도의 혼속」. 『국문학보』 제6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강정은(2018). 「음악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지도 방안 연구 - 제주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준혁·남진열(201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1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강진욱(2005).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고금자(1979). 「일부 직업여성들의 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조사 : 제주도 중심으로」. 『논문집』. 제주한라대학교.
- 고민정(201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보선(2000).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권. 대한가정학회.
- 고보선(2014). 「제주여성독거노인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63권. 한국노인복지학회.
- 고부자(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집. 제주학회.
- 고수선(2014).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 구성에 관한 실행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순생(2014). 『제주 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 고에란·홍희숙(1995). 「의류제품에 대한 혜택세분화와 정보원사용 및 상점선택행동 연구 :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한국의류학회.
- 고양숙(1993). 「신체계측값을 이용한 제주지역 여성들의 비만실태 조사 연구」.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8권 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고양숙(1993). 「제주지역 성인 여성들의 연령별 체지방율의 차이와 열량 섭취 및 소비량에 관한 조사 연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6권 4호. 한국영양학회.
- 고은솔·정상철(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45권. 한국예술경영학회.
- 고은숙(2017). 「해녀 노인의 통증,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고은주·김혜연(2010). 「여성 직업 교육프로그램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고의숙(1998). 「제주지역 남·여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고재문·강순민(2008).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 직업교육학회논문집』 9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 고지영·강경숙·이연화(2018). 『지방의회의 양성평등 의정역량 강화 방안-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구남철(1998). 「산업계 여고생의 진로지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귀숙(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한국사회학』 30권. 한국사회학회.
- 권귀숙(2004).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 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

- 성연구』 43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권귀숙(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 제주4·3의 여성사」. 『4·3과 역사』 11권. 제주 4·3연구소
- 권미선(2008).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권복순(2010). 「자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6권. 실천민속학회.
- 권복순(2012). 「<가문장아기>와 <자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제51집. 배달말학회.
- 권복순(2013). 「칠성본풀이 여성주인공의 심리구조와 그 의미」. 『국제언어문학』 28권. 국제언어학회.
- 권태효(2010).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권태효(2011).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권. 한국무속학회.
- 길태숙(2009).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9권. 열상고전연구회.
- 김건태(2009).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김경란(2007). 「일제시기 민적부의 작성과 여성호주의 성격-19세기 제주 호적중초, 광무호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7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김경미·김동주·권순용(2010). 「여성장애인 성역할 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0권. 한국직업재활학회.
- 김동윤(1999).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1권. 영주어문학회.
- 김동윤(2002).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도연구』 22권. 제주학회.
- 김동윤(2009).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 자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1권. 한국비평문학회.
- 김동현(2015). 「1964년 작 영화 <해녀> 연구 - 창조된 표상과 상상의 분할」. 『영주어문』 29권. 영주어문학회.
- 김만덕기념 사업회(2004).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 김만덕기념 사업회(2007). 『김만덕 자료총서 I』. 도서출판 각.
- 김만덕기념 사업회(2008). 『김만덕 자료총서 II』. 도서출판 각.

- 김명실(2004).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실·김혜연(2005).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김미경(2015). 「제주 해녀들의 삶과 생활을 활용한 공연 스토리텔링 연구」. 『공연문화연구』 31권.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희곡학회).
- 김미량(1996). 「여성과 TV매체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김미진(2008).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0권. 영주어문학회.
- 김미진(2010).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0권. 영주어문학회.
- 김미진(2015).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2015). 「제주여성리더십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호(2010).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모형과 추진전략 -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26-2.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 김민호(2017).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23권.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민호·오성배(2011). 「지역사회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선기(2010). 「제주 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집』 14권. 한일어문학회.
- 김성례(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제주4·3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26권. 창작과 비평사.
- 김성례(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권. 문화과학사.
- 김수연(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조사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11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김수정(2008).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2012). 「독도어장과 제주해녀」. 『대구사학』 109권. 대구사학회.
- 김영돈(1968). 「제주의 통과의례-혼례」. 『제주도』 33호. 제주도.
- 김영돈(1973).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 김영돈(1982). 「제주도 민요 연구 : 여성노동요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돈(1983). 「제주도 여성노동요에 드러난 도민의식」. 『국어국문학 논문집』 12권.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 김영돈(1986).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 3집. 제주학회.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영돈(2000). 「제주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권. 비교민속학회.
- 김영돈·고광민·한림화(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
- 김영돈·김범국·서경림(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영순·이미정·최승은(2014). 「제주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4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영주·이석주(2017).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6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영희(2010).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직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김정규(2013).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 -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0권. 한국치안행정학회.
- 김은석(2011). 「사진으로 본 제주여성과 근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권. 한국사진지리학회.
- 김은석(2014). 「사생활과 제주여성의 근대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권. 한국사진지리학회.
- 김은석(2015). 「20세기 초 교육 관련 사진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근대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권. 한국사진지리학회.
- 김은석·문순덕(2006). 『제주여성문화(개념 정립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김인덕(1999). 「일제시대 제주 출신 제일 여성 활동가들의 투쟁」. 『제주도사연구』 8집. 제주도사연구회.
- 김일우(200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권. 고려사학회.
-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 김정우(2016). 「제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과학연구』 18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김진영(2001). 「제주지역 여성농민과 복지」. 『제주도연구』 20권. 제주학회.
- 김진영·남진열(2006). 「제주지역 직장여성의 직무만족도 수준 분석」. 『법과정책』 12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김현선(2004). 「제주도 <순 없는 색시>의 각 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탐라문화』 2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혜숙(1992).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 여성을 중심으로」. 『논문집』 34권. 제주대학교.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혜연(1996). 「여성의 경제활동」. 『제주리뷰』 2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김혜연(1996).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단체 네트워크 운동에 의한 가능성 탐색」. 『제주리뷰』 1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김효실(1999). 「제주 여성의 부인 암에 관한 조사 연구 : 제주시내에 소재한 1개 병원의 의무 기록을 중심으로」. 『논문집』 23권. 제주한라대학교.
- 김효심(1992).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논문집』 21권. 제주교육대학교.
- 김후자(201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제주군(2006). 『군제 60주년 남제주화보집 : 이어도사나』. 남제주군.
- 노대원(2017). 「현대 서사 문화 속의 제주 해녀」. 『한국언어문학』 103권. 한국언어문학회.
- 류정월(2013).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권. 한국여성문학학회.
- 류정월(2015). 「무속신화의 젠더화된 죽음관과 위무의 두 가지 방식」. 『여성문학연구』 3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 문성화(2015). 「다문화사회에서 관용(tolerance)의 확대적용 방안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희(2005). 「서부경남에 전승된 제주도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16권. 한국민요학회.
- 문순덕(2002). 「세시풍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 속담」. 『반교어문연구』 14권. 반교어문학회.
- 문순덕(2005). 「제주지역 신문광고에 나타난 여성대상어」. 『영주어문』 9권. 영주어문학회.
- 문순덕(2007).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 : 제주열녀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각.
- 문순덕(2008). 「제주여성문화유적의 문화적 위상」.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12호. 제주특별자치도.
- 문순덕(2009). 「제주여성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32권. 제주학회.
- 문순덕(2010). 「제주방언의 성별語」. 『제주학연구』 5권. 제주학연구소.
- 문순덕(2010). 『섬사람들의 음식연구』. 학교방.
- 문순덕(201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재편화 방향과 과제」. 『JDI FOCUS』

- 111호,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2). 「제주4·3사건으로 침묵된 언어 표현」. 『제주발전연구』 16호,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2). 「제주지역 다문화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사회과학연구』 3-2,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 문순덕(2012). 『제주여성 속담의 미학』 (2004 재수록, 『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 본 통과 의례』), 민속원.
- 문순덕(2013). 『제주여성의 일생의례와 언어』. 인터북스.
- 문순덕(2018).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학과 예술』 25권,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 문순덕·고승한·고경민(2017).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 문순덕·김진호(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박찬식(2010).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염미경(2014).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현진숙·장혜련(2013). 『해녀문화유산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미야기 키미코(2017). 「오키나와와 제주를 둘러싼 폭력의 구조 - 젠더적 시점에서」. 『4·3과 역사』 17권, 제주4·3연구소.
- 민경임(1964). 「한국 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이대사원』 5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민윤숙(2011).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 - 제주 해녀들의 물질과 사회적 지위」. 『역사민속학』 35권, 한국역사민속학회.
- 민윤숙(2012).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권, 한국민속학회.
- 민윤숙(2018). 「경북지역 해녀들의 물질 방식의 분화와 발전」. 『실천민속학연구』 31권, 실천민속학회.
- 박경열(2009).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 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47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박신영(2016).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양생(1985). 「한국해녀의 생리학적 특성 : 잠수양상 및 에너지 대사에 관하여」. 『제주도연구』 2집, 제주학회.
- 박영례·위휘·김수진(2010). 「성인여성의 생활습관과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권, 지역사회간호학회.

- 박정희(2004).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성(2016). 「여신 자청비의 노정기와 역할 대리자 - 체청 고아 선녀, 황우양 부인, 제우스와 견주어」. 『구비문학연구』 43권. 한국구비문학회.
- 박종오(2015). 「서남해 해녀의 어로방식 변화 고찰」. 『도서문화』 46권.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박찬식(2007).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변성구(2006). 「해녀노래의 사실과 유형 구조」. 『한국언어문화』 29권. 한국언어문화학회(구 한양어문화회).
- 변진희(2008). 「제주해녀 보존·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화영(2011). 「재일조선인 여성들과 이카이노의 생활공간 - 원수일의 『이카이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서경림(1998). 「제주 신화와 여성의 위상-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4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서지영(2010).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 손달례(2008).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물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4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송성대·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원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12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송연옥(2015).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6권. 한국구술사학회.
- 송태현(2009). 「신화와 문화콘텐츠 - 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신연우(2013). 「제주도 신화와 ‘고통’의 문제 -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권. 열상고전연구회.
- 신우봉(2017). 「해녀 도구어의 날말발 연구」. 『한국언어문학』 103권. 한국언어문학회.
- 신임순(2017).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영·송지현(2017). 「제주 정착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 국내 이주 한국 여성

- 을 대상으로」. 『여성학연구』 207권.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 안미정(2006).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잡(裸潛)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39권. 한국문화인류학회.
- 안미정(2007).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 제주도 잠수(潛水)의 사례에 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역사문화학회.
- 안미정(2008).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안미정(2010).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안미정(2012). 「해녀의 '전통', '주체',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접근 : "열린" 바다 위의 분쟁 : 식민지 관행과 해양자유론의 재고찰」. 『일본학』 34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안미정(2016).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안숙현(2011). 「TV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방안」. 『인문콘텐츠』 20권. 인문콘텐츠학회.
- 양남순(1976). 「제주도여성의 의생활의식에 관한 연구-주부와 여교사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4권 4호. 대한가정학회.
- 양성국·김봉현(2012).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경영사학』 62권. 한국경영사학회.
- 양숙연(1994). 「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 양영수(2011).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탐라문화』 38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양영수(2011). 「제주신화의 여성원리 - 그리스신화와와의 비교」. 『비교한국학』 1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 양영자(2003). 「해녀노래의 표현과 주제」. 『영주어문』 6권. 영주어문학회.
- 양영자(2012).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 제36집. 한국민요학회.
- 양옥진(1999). 「제주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금융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논문.
- 양정필(2017). 「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 『사학연구』 125권. 한국사학회.
- 양진영(2017).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김만덕 기념관 전시기획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호(1999). 「천주교의 전래가 제주 근대 여성교육에 미친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주(2015). 「제주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미경(2008). 「제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체계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염미경(2011).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탐라문화』 3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염미경(2017).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화」. 『4·3과 역사』 17권. 제주4·3연구소.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9권. 지역사회학회.
- 염미경·김민호·권상철(2016). 「대학 다문화교육 현황과 방향 모색 - 제주대학교 다문화교육 강좌 운영 및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 분석」. 『교육과학연구』 18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염미경·김수연(2007).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의 여성정책」. 『지역사회학』 8권. 지역사회학회.
- 오고운·김성봉(2011).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탐라문화』 3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오세정(2010).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오신정(2012). 「국가페미니즘의 지방적 함의 연구 - 1990년대 이후 제주도 여성정책기구 설립의 정치적 동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익성(1976). 「미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제주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2집. 제주한라대학교.
- 오출세(1981). 「민요에 나타난 여성 : 제주도 부요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 우창현(2012). 「결혼여성이민자 대상 불규칙 활용 교육 방법 -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6권.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 유소영(2009). 「제주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방향」. 『교육과학연구』 11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유소영(2010).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유원희·서세진·최병길(2018).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권.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 유철인(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 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 읽기 - 제주 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권. 한국문화인류학회.
- 유철인(2011).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4권. 한국문화인류학회.
- 유철인(2017). 「구술된 경험과 서사적 주체성 - 여성 사업가의 구술생애사 읽기」. 『한국여성학』 33권. 한국여성학회.
- 윤원수·오윤정·양덕순(2013). 「여성공무원의 조직문화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주지역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이경하(1999).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화연구』 9권. 한국구비문화학회.
- 이경희·신혜숙(1998). 「산욕기 여성의 경험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권 2호. 여성건강간호학회.
- 이광규(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이선화(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훈 엮음(2015). 『해녀 연구총서 1-문학 14편』 (승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8). 학교방.
- 이성훈 엮음(2015). 『해녀 연구총서 2-민속학 14편』 (승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8). 학교방.
- 이성훈 엮음(2015). 『해녀 연구총서 3-역사학 14편』 (승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8). 학교방.
- 이성훈 엮음(2015). 『해녀 연구총서 4-경제학, 관광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11편』 (승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8). 학교방.
- 이성훈 엮음(2015). 『해녀 연구총서 5-음악학, 복식학, 서평, 자료 20편』 (승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8). 학교방.
- 이성훈(2002). 「해녀 <노 짓는 노래> 의 사실과 현장성」. 『온지논총』 8권. 온지학회.

- 이성훈(2003). 「〈해녀 노 젓는 노래〉의 가창방식」. 『온지논총』 9권. 온지학회.
- 이성훈(2005).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27권. 한국언어문화학회(구 한양어문학회).
- 이성훈(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 이성훈(2006). 「〈해녀 노 젓는 소리〉 창자 이기순 연구」. 『한국언어문화』 29권. 한국언어문화학회(구 한양어문학회).
- 이성훈(2009).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6권.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 이성훈(2010). 『해녀 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 이성훈(2017).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에 나타난 지명 의미와 민속 지식」. 『한국언어문학』 103권..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소윤(2017). 「제주도 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향배(向背) : ‘신부 바귀치기’ 화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4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원영(2016). 「제주 여성당신(女性堂神)의 해신적(海神的) 성격과 존재 양상」. 『한국무속학』 33권. 한국무속학회.
- 이유경(201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 :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0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은희(1998). 「제주도 여성정책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희(2017). 「한국문화교육 자료로서 무속신화의 활용 방안 - 〈자칭비 신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2권. 중앙어문학회.
- 이인경(2008).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7권. 한국구비문학학회.
- 이장순·고정순·김효선(1999).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권 5호. 한국식품영양학회.
- 이재섭(2016).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주(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여성학논집』 16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정주(1999). 「제주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화(2015). 『김만덕의 실천적 삶과 제민정신 연구』. 보고서.
- 이즈미세이치(泉靖一)(1961). 『제주도(濟州島)』. 동경대학출판회.
- 이지영(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지홍(2017). 「자청비 신화 속 사랑관계 유형 분석과 연극치료 활용 방법 연구」. 『연극예술 치료연구』 7권.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 이차숙(1968). 「가정경영부 :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적 견지에서 본 제주도의 축첩의 관행」. 『가족과 환경 연구』 6권. 대한가정학회.
- 이창기(1997). 「19세기 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 이창식(2012).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30권. 온지학회.
- 이창식(2013). 「설문대할망 관련 전승물의 가치와 활용」. 『온지논총』 37권. 온지학회.
- 이한창(2015). 「이양지의 해녀에 관한 연구 - 트라우마의 형성과 발현을 중심으로」. 『일본어 문학』 64권. 한국일본어문학회.
- 임소현(1998). 「여성노인의 자활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임진형(2007). 「제주도 전통 가족에서 여성의 일과 아동 양육의 의미 고찰」. 『아동보육연구』 3권.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
- 장승심(2012).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장안순(2008). 「『이카이노이야기(猪飼野物語)』의 제주여성」. 『일어일문학연구』 67권. 한국일어일문학회.
- 장영주(2012). 「설문대신화에 나타난 교육이념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련(2011).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주체」. 『비교한국학』 19권. 국제비교한국학회.
- 장화경(2004). 「지역여성정책의 지역성 함의 -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7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전경수(2012). 「문화주권의 제주해녀(濟州海女)와 해군기지 - 사회과학의 관찰과 예측」. 『제주도 연구』 38권. 제주학회.
- 전기주(2012). 「문화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제주여성의 의식과 문화수용-제주 서사무가 속 여성상을 중심으로」.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31권.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 전영준(2016). 「탐라신화(耽羅神話)에 보이는 여성성(女性性)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 정민희·이용규(201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한국도서연구』 29권. 한국도서(섬)학회.
- 정용복(2016).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연구 - 제주지역 다문화미디어교육 관계자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권. 한국지역언론학회.
- 정원옥·권귀숙(2016). 「끝나지 않은 애도 - 4·3사건 피해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4·3과 역사』 16권. 제주4·3연구소.
- 정의철·정용복(2016).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 제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한국언론학회.
- 정진희(2010).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화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정진희(2017). 「제주도 무속 신화 <문전본풀이>의 가부장제와 ‘어머니로 살기」. 『국문학연구』 35권. 국문학회.
- 정창권(2007). 「고전의 현대적 수용-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사진자료집 :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2). 『신문기사자료집 :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3). 『사진자료집 2 : 제주여성, 시대를 어떻게 만났을까』.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5). 『제주여성 1호 찾기 :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
- 제주도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4).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1997). 『21세기 제주여성 발전을 위한 제주여성 의식조사 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2004).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35년』.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2005). 『제주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실태조사-제주도내 여성단체 임원 및 일반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4).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 ①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6).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 ② :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앗주』.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문화원(2014).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여성사Ⅱ : 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2』.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2017).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여성문화유적1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6).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동아일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6).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일본어 신문』.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2014).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2009). 『제주보육 50년사』.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2007). 『전통맥향 : 제주여성 무형문화재의 생애』.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2007).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여성사료집Ⅱ』.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 조규익(2005). 「문뜰의 존재양상과 의미 -해녀 노 짓는 소리 전승론의 일단(一端)-」. 『한국시가연구』 18권. 한국시가학회.
- 조규익(2007).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 구성 및 전승의 원리」. 『탐라문화』 3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조도현(2011). 「만덕전(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인문학연구』 84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은희(2011).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입법정책』 5권. 한국입법정책학회.
- 조진숙(1986). 「제주도 성인 여성의 의복 구매형태에 관한 실태조사」. 『탐라문화』 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조현설(2003).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조현설(2011).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6권. 제주학회.
- 조혜정(1982). 「제주도 해녀사회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심설당.
- 조혜정(1988).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좌혜경(1998). 「자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3권 1호. 한국민속학회.
- 좌혜경(2002). 「일본 쓰가지마[菅島]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권. 한국민속학회.
- 좌혜경(2004). 「해녀노래 현장과 창자 생애의 사실 수용 분석 -해녀노래 보유자 안도인의 노래와 생애를 바탕으로」. 『영주어문』 7권. 영주어문학회.
- 좌혜경(2005).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 10권. 영주어문학회.
- 좌혜경(2008). 「해녀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영주어문』 15권. 영주어문학회.
- 좌혜경·권미선(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권. 제주학회.
- 주삼차(2015).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입법정책』 9권. 한국입법정책학회.
-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차옥승(2007).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종교연구』 49권. 한국종교학회.
- 차윤정(2016).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 로컬 공동체와 “차이의 공간” 생성 -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채미하(2018).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神女)의 역할과 위상」. 『탐라문화』 57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석(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 최원오(2015). 「제주도 구전신화에서의 여성의 '감성·감수성'과 신체적 표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최재석(1977). 「제주도의 혼인의례와 그 사회적 의미 : 동부지역의 삼달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16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최재석(1978). 「제주도의 첩제도」. 『아시아여성연구』 17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최진원(2007).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제주설화의 의미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5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최희순(1988).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의 관계 :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타카노 후미오·정광중(2002). 「쇠퇴하는 해녀어업에 대하여」. 『제주도사연구』 11권. 제주도사연구회.
- 표정옥(2011). 「한국 여성 신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욕망과 문화적 의미작용 연구-제주도 무속 신화 속 여성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6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하경숙(2015). 「<해녀 노 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온지논총』 42권. 온지학회.
- 하경숙(2016).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온지논총』 48권. 온지학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10). 『제주도 접접계契문화 조사보고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한금순(2015).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권. 제주학회.
- 한금순(2016). 「17세기 제주도 여정(女丁)의 성격-군역(軍役) 부담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53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한정운(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한창훈(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 한창훈(1999).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잡수의 생활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1권 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 한창훈(1999). 「제주도 잡수들의 생활과 민요」. 『탐라문화』 2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허남춘(2013).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 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허남춘(2014).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8권. 반교어문학회.

- 허남춘(2014). 「성모·노고·할미란 명칭과 위상의 변화 - 지리산과 한라산의 여성신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9권. 한국무속학회.
- 허도희(1995). 「농촌여성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허정옥(2002).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22권. 제주학회.
- 허춘(1996).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고(女性考)」. 『탐라문화』 1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허춘(1999).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16집. 제주학회.
- 허호준(2003). 「제주해녀항쟁의 주도자 김옥련 할머니의 삶」. 『4·3과 역사』 3권. 제주4·3연구소.
- 현길자(2012). 「제주시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경·황경수(2010).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34권. 제주학회.
- 현선이(1977). 「기혼여성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 제주시내 일부지역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3집. 제주한라대학교.
- 현정화(2014).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숙자(1995). 「중년기 여성의 노후계획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황석규(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황석규(201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권. 한국사진지리학회.

부록 2. 제주 여성정책연구 논저 목록

- 강경숙(2016).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강사지원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민선(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민선(201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선필(2017).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손태주(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집행기준 수립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안미정(2015).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이해웅(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희(2006).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경희·강영미·류상부·강상준·강미영(2008). 『제주 여성관광종사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강경희·강영미·류상부·현문규·강미영(200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강경희·홍봉기·김영보(2007).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대옥·류상부·고정자·강미영(200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강세현(2007). 『노인의 취업 실태와 욕구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고승현(2006). 『제주지역노인의 노후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고지영(2015).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2016).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수요 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2017). 『제주지역 여성 창업 실태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강대옥·문순덕(2014).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수립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김은정(2016).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권희정·염미경(2014).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가족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대호·강대옥·김상명·임애덕·정민(2007).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김대호·류상부·강상준·강미영(2008).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김대호·류상부·현문규·강미영(2009). 『청소년의 성인지, 결혼 및 출산 자녀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김진영·김남진·류상부·강상준·강미영(2008).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김홍석(2017).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문순덕·강대옥·김오순(2009).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김진호(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김혜숙·고승환·강대옥·김효선·진관훈·황석규(20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 계획(2011~2014)』. 제주특별자치도
- 문순덕·박찬식(2010).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현혜경(2012).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 제주발전연구원
- 손영주·최은영·송영아·류상부·고정자·강미영(2008).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손태주(2014).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4). 『제주특별자치도 24시 어린이집 확충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6).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6).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2017).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강경숙(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이해웅(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희(2015).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희(2016).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희(2017).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희·고지영·김은정·오명녀(2017). 『2018~2022 제주이시랑플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희·김태일(2016).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화·홍연숙(2014).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가정폭력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해응(2017). 『제주지역 간호인력 근로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2016).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2016). 『제주지역 청년여성 일자리 욕구와 취업지원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김홍석·고승환·이길주·조항웅(2017).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신영호·윤명희·조은희·최은하(2017).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이연화(2016).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분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이연화·이해응(2017).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최은하(2015).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홍연숙(2014).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성폭력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임애덕·류상부·고정자·강미영(2008). 『제주특별자치도 CEO 경영활동 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임애덕·류상부·현문규·강미영(2009).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임애덕·홍봉기·강미영(2007). 『제주특별자치도민 출산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광중·황석규·류상부·현문규·강미영(2009). 『제주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정민(2006). 『제주여성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 및 정책선호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민·강희경·류상부·강미영(2008). 『불임부부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정민·류상부·현문규·강미영(2009). 『제주지역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정승훈·김태운·고승환·강창민·최영근(2007).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승훈·김태운·고승환·강창민·최영근(2007).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여진(20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여진·강경숙·고지영·손태주·김영순·김이승현·정이은숙(20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여진·고승환(2016).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대응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영태(2006). 『제주도 보건복지여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0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07).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의 성별분리 통계 자료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08). 『200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0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09). 『2009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0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10).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10).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1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13).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14). 『201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2015~2018)』.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강경숙(2009). 『2009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강경숙(2010).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고태호·엄상근·임정현·이슬(20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김경희·성운애(2007). 『성매매예방 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김석준(2007).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김진영(2005).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혜숙·강경숙(200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혜연(2005).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혜연(2008).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효선(2007). 『상·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 구축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박정환(2007). 『제주특별자치도 중 고령 여성 경제활동 욕구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심운애·고인중(20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이갑숙(201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이갑숙(2014).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이영찬(200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임소진(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정진주(2011).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정혜숙(2011).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조영희(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홍성철(2008).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따른 진료 행태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2006). 『2006 제주여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2008). 『2008 제주여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현인숙(2007). 『노인치매에 대한 인식 및 부양가족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
본부.
- 현인숙·류상부·강상준·강미영(2009). 『만성질환 노인의 장기요양 및 간호욕구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현인숙·이선화·류상부·고정자·강미영(2008). 『제주지역 고학력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18-08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21일

발행인 이은희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소 경신인쇄사(☎ 064-746-2044)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33-4 93330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